

보험동향 2015년 여름호

- | | |
|-------------|--|
| Ⅰ 총괄 |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
| Ⅰ 경제금융 동향 | 경제총괄 김석영 (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아름 (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해랑 (연구원) |
| Ⅰ 국내보험시장 동향 | 보험총괄 김석영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이해랑 (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
| Ⅰ 해외보험시장 동향 | 미 국 이해랑 (연구원)
영 국 김진억 (수석담당역)
일 본 이아름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부 록〉 2014년 자연재해 및 인재 현황
(이해랑 연구원)
〈부 록〉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현황과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진출사례
(이소양 연구원) |

■ 목차

I. 테마진단

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 1

미국 보험상품 규제의 변화와 국내 비교 / 20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51

2. 국내경제 / 69

3. 금융경제 / 82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88

2. 생명보험 / 91

3. 손해보험 / 104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25

2. 영국 동향 / 134

3. 일본 동향 / 143

4. 중국 동향 / 151

〈부 록〉 2014년 세계 자연재해 및 인재 현황 개관 / 160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현황과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진출사례 / 171

부록 I. 통계표 / 203

부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210

I. 테마진단

◆ OECD 국가의 퇴직금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김동겸 선임연구원

1. 검토배경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퇴직자(퇴직연금수급대상자)의 대부분이 퇴직금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의 퇴직금부 연금화 관련 정책과 동향 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됨.

○ 특히, 국민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수급률이 31.2%에 불과해, 노인 빈곤율 심화의 한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퇴직금부의 연금화가 보다 요구됨.

■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55세 이상 퇴직자의 96.9%가 일시금으로 퇴직금부를 수령(2015년 1/4분기 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으로의 전환(연금수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¹⁾

○ 퇴직금부의 연금수령은 수급자 기준으로 3.1%, 금액 기준으로 0.9%에 불과해 연금으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이 미흡함.

○ 이와 같은 현상은 중간정산에 따른 연금재원 소진, 연금세제 혜택 부족으로 인한 일시

1) 금융감독원(2015).

금선호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중심의 사적연금 대책(2014년 8월 27일)”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 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름.

- 그러나 발표된 연금전환 대책을 보면 연금세제 관련 대책에 국한되어 있고, 그 내용도 연금수령 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감면을 더 부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연금전환 대책은 고령화를 일찍이 경험한 OECD 국가의 퇴직금부 연금화 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대책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연금화 관련 정책과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한 후에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여 보고자 함.

2. 퇴직급여상품의 유형 및 특징

퇴직급여상품은 인출단계에서의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일시금, 종신연금, 소득인출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일시금 수령은 현금유동성이 높은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재원을 조기 소진할 경우 추가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워 타 지급옵션에 비해 개인의 장수리스크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음. 반면, 종신연금의 경우 사망 시까지 연금수급이 가능함에 따라 개인의 장수리스크 해지를 통해 노후빈곤을 완화할 수 있음. 소득인출형 상품은 일시금과 연금옵션이 결합된 상품으로, 인출액 조정 등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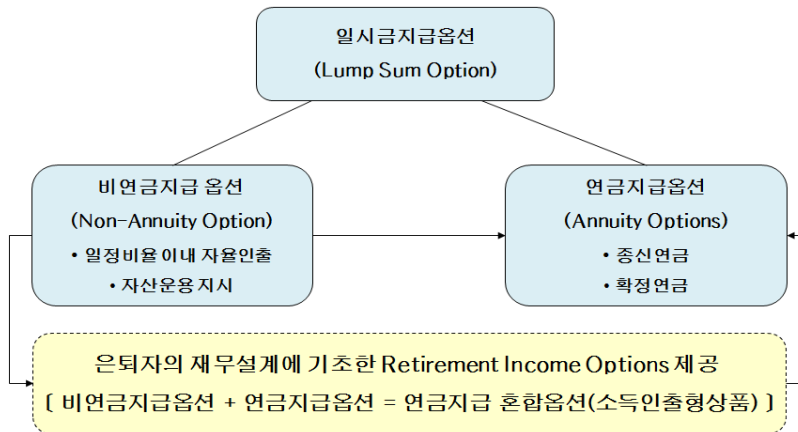
가. 퇴직금부 지급 형태

■ 연금상품은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연금수령 시점까지 연금재원을 납입하고 운용하는 적립단계(accumulation phase)와 축적된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인출단계(decumulation phase)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금상품을 통해 은퇴 이후의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고자 하는 연금화(annuitization) 전략²⁾은 이 중 인출단계에 해당함.

-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퇴직급여상품은 인출단계에서의 연금지급방식을 기준으로 (1) 일시금, (2) 종신연금, (3) 소득인출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 지급옵션의 유형



자료: 성주호(2014)의 그림을 일부 수정.

- 일시금(Lump Sum)은 축적된 연금자산을 일시에 전액 수령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전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을 수 있음.
 - 적립금을 은행구좌, 은퇴저축계좌 등에 이전시키고 필요 시 인출³⁾
 - 적립금을 활용하여 소득창출이 가능한 금융상품 구매
 - 소비활동을 위한 인출(funding immediate consumption), 채무상환(repaying debt)
- 종신연금(Life-time Annuities)은 전 생애기간 동안 급부 제공을 통해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헤지해 주는 상품임.
 - 종신연금상품은 연금지급기간, 연금수령액, 연금수령시점 등 각 기준에 따라 연금의 종류를 세분화 하는 것이 가능함.⁴⁾
- 소득인출형(Income Drawdown) 상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인출금액을 제공하는 상품으

2) 본 고에서 연금화(annuitization)의 의미는 (1) 근로기간 동안 축적한 적립자산 전체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더불어, (2) 퇴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자산으로 종신연금을 포함한 일반 연금상품 등을 구매하는 소득인출형(Income Drawdown) 상품까지를 모두 포괄함.

3) 뉴질랜드의 KiwiSaver Account가 이에 해당됨.

4) 연금상품 구입시점과 연금 수령시점의 일치여부 기준으로는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과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으로 구분할 수 있음.

로, 일반적으로 연금전환옵션과 일시금옵션이 결합되어 있음.⁵⁾

- 소득인출형 상품은 퇴직자의 일시금 선호 현상을 반영해 적립액의 일부에 대해 일시금 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 적립자산은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프로그램 인출방식(Program Withdrawal)⁶⁾이 이에 해당함.

나. 지급형태별 주요 특징

■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는 개인이 기대여명 이상으로 생존하여 생기는 위험으로, 은퇴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자금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장수리스크는 낮은 투자실적, 높은 인플레이션,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요인과 결합되어 근로 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이 실제로 필요한 노후자금 수준을 하회할 수 있는 위험으로 작용함.

■ 종신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 상품은 장수리스크, 유동성, 소비자의 니즈 반영 등에서 볼 때 각기 장·단점이 존재함.

-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 줌으로써 일시금 수령에 비해 자산소진 위험을 축소시켜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줌.⁷⁾
 - 반면, 현금 유동성 수준은 타 지급옵션에 비해 낮은 단점이 있음.
- 일시금은 현금 유동성 수준이 높은 장점은 있으나, 일시금으로 수령한 연금액을 조기 소진할 경우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없어 타 지급 옵션에 비해 장수리스크가 크다는

5) 인출형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영국을 들 수 있음. Finance Act 2011을 통해 Income Withdrawal이 현재의 Drawdown Pension으로 명칭이 변경됨. 연금이 개시되는 연령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55세부터 개시가 이루어짐.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퇴직, 55세 이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인출이 가능함. 연금지급단계의 상품 중 소득인출형 상품은 도입초기 4.8%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매년 비중이 확대되어 2013년 기준 16.2%를 차지하고 있음.

6) 프로그램인출은 개인이 근로기간동안 축적한 퇴직자산을 이용하여 본인의 펀드를 개설한 후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소득창출을 위해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출하는 구조임. 동 방식은 연금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Systematic Withdrawal Plan, 영국에서는 Income Drawdown, 호주에서는 Allocated Product 혹은 Market-linked Income Stream이라는 명칭으로 활용되고 있음.

7) Yari(1965)는 위험회피성향을 보유한 개인이 상속동기가 없는 경우 장수 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산을 연금화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 위험회피자의 경우 자산의 고갈위험 또는 수익률 저하로 인한 자산 손실 위험을 종신연금(life annuity)을 판매한 금융기관에 전가시킴으로써, 생존기간 동안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안이 최적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음.

문제가 있음.

- 소득인출형 상품의 경우 연금전환시점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고 개인의 다양한 니즈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존재함.
- 반면, 일반 연금상품보다 높은 비용과 매년 인출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며, 종신연금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 퇴직급여상품별 주요 리스크 보장범위

구분	해당 리스크 보장 여부			추가적 혜택	
	투자	물가상승	장수	상속	유동성
실질 정액형 종신연금(Fixed Real)	○	○	○	제한적	×
명목 정액형 종신연금(Fixed Nominal)	○	○	×	제한적	×
실질 증액형 종신연금(Escalating Real)	○	○	○	제한적	×
실질 증액형 종신연금(Escalating Nominal)	○	○	일부	제한적	×
변액종신연금(Variable) : 최저보장옵션	○	○	가능	제한적	×
프로그램인출(Lifetime Phased Withdrawals)	×	×	가능	○	×
유기연금(Term Annuities)	×	가능	가능	○	×
일시금(Lump Sums)	×	가능	가능	○	○
자가연금(Self-annuitization)	×	가능	가능	○	○

자료: Rocha et al. (2011).

3. OECD 국가의 퇴직금부 연금화 동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준은 각국의 문화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미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중시하여 연금으로 전환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는 연금수령 의무화, 연금세제 강화, 자동가입장치 마련 등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함. 특히, 퇴직금부 지급방식을 보다 다양화하여 소득인출형 상품(일부 일시금, 일부 연금) 등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금화 유인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함.

가. 현황

1) 퇴직연금유형별

■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의 퇴직급부 지급형태(예: 미국)를 보면 DB형 퇴직연금, C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순으로 연금으로 전환(연금화)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DB형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퇴직급부 지급형태를 연금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비중은 최대 88%에 이르고 있어 연금전환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CB형 퇴직연금⁸⁾의 경우, 최대 41%까지 근로자가 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DB형 퇴직연금이나 C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에게 연금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음.

■ 특히, 근로자가 자산운용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자율적으로 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DB형 퇴직연금 등에 비해 연금전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2〉 연금제도 형태별 연금전환 비율(예: 미국)

연금제도 형태	주요 연구	연금전환 비율
Defined Benefit Plans	Hurd and Panis(2006)	61%
	Benartzi et al, (2011): IBM employees	88%
	Mottola and Utkus(2007)	27%
	Benartzi et al, (2011)	53%
DC - 401(k)	Schaus(2005)	6%
Cash Balance Plans	Mottola and Utkus(2007)	17%
	Benartzi et al, (2011)	41%

자료: Benartzi et al, (2011).

8) CB(Cash Balance)형은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특징이 결합된 상품으로, 적립금액은 DC형처럼 변동하지만, 기업이 운용책임(예: 최소급부보장)을 담보하고 있는 제도임.

2) DC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OECD 국가의 퇴직급여 지급형태를 보면 각국이 보유한 연금상품, 사회보장제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연금으로 전환이 높은 국가로는 네덜란드, 칠레, 스위스 등이며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대적으로 연금으로 전환이 매우 낮은 국가임.

〈표 3〉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수령형태 비교

구분	종신연금	소득인출형 상품	일시금
호주	낮음(1% 미만)	약 50%	약 50%
뉴질랜드	0%	미개발	대다수
미국	은퇴자의 9%	N.A.	N.A.
캐나다	30%	DC형의 대다수	N.A.
아일랜드	DC 펀드의 30%	DC 펀드의 50%	비과세 일시금 인출
스위스	80%	N.A.	20%
덴마크	종신연금 구매의무화 (적립액의 52%)	46% (확정기간부 연금)	2%
네덜란드	100%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N.A.	N.A.
싱가포르	100%(종신연금 구매를 위한 최소액 별도 적립)	미개발	최소금액 초과분에 대해 일시금 수령
칠레	은퇴자의 60%	은퇴자의 40%	N.A.
영국	은퇴자의 대다수	은퇴자의 일부분	비과세 일시금 인출

자료: Oxera(2015).

- 네덜란드는 은퇴자의 100%가 종신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80%, 칠레는 60%가 종신연금으로 수령하여 연금으로의 전환이 매우 높음.

- 이에 반해 호주는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소득인출형 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각각 50% 수준에 이름.

■ 개인의 선택권이 많이 부여된 미국, 호주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상대적으로 일시금에 비해 연금으로의 전환이 낮은 수준임.

-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는 일시금수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체기능을 하는 국가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국민연금을 민영화한 칠레와 더불어 유럽복지국가인 스위스, 덴마크 등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표 4〉 OECD 주요국의 연금수령수준 및 내용(DC형 퇴직연금 기준)

연금수령	대표국가	세부내용
매우 높음	스위스(80%)	높은 연금지급비율, 지급단계의 선택방식 제한
높음	칠레(60%)	제한된 상품선택 구조, 소득인출형 상품 옵션 활성화
보통	아일랜드(30%)	소득인출형 상품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활성화
낮음	미국(9%)	옵션 범위 다양화, 연금상품에 대한 유인 미흡
매우 낮음	호주(1%), 뉴질랜드(0%)	세제, 자산조사 등 연금 수령 시 이익 전무

자료: Raven(2014), Drivers of Investment Decisions in the Decumulation Phase.

- 또한, 연금과 일시금지급 방식을 결합한 소득인출형 방식으로 퇴직급부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부 지급방식의 다양화 경향이 나타남.

-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의 경우, 소득인출형 상품 등을 통해 다양한 퇴직급부 지급방식이 존재함.

나. 특징

- 연금화 수준은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정책적 측면, 연금세 제적 측면, 소비자의 인식 및 행태적 측면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1) 퇴직급부 수령 관련 정책

- 퇴직급부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전환하는 국가의 특징 중 하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임.

-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은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함.

- 영국의 경우 2011년 4월 이전에는 Finance Act를 통해 75세 이전에 연금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⁹⁾
- 연금자산의 의무연금화 정책은 1921년 Finance Act를 통해 시행되었으며, 1976년 연금화 상한연령을 75세로 조정함.¹⁰⁾

〈표 5〉 퇴직금부 관련 규제 비교

구분	종신연금	소득인출형 상품	일시금
호주	허용	허용	허용
뉴질랜드	허용	허용	허용
미국	허용	허용	허용
캐나다	허용	원칙적으로 허용	DC제도에 국한
아일랜드	허용	소득이 큰 경우 허용	25% 비과세
스위스	디폴트옵션	금지	허용
덴마크	거치연금 형태	금액제한	허용
네덜란드	의무화	금지	금지
싱가포르	의무화	금지	금지
칠레	디폴트옵션	프로그램인출 제한	금지
영국	허용	상한·유연인출상품 운영	25% 비과세

자료: Oxera(2015).

■ 특히, 공적연금의 민영화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칠레의 경우 소득인출형 수령이나 일시금수령을 제한하고 연금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반면, 연금화 수준이 낮은 호주와 미국의 DC형 제도에서는 연금전환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급부수령을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9) 영국의 경우 칠레와는 다르게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는 형태이나 연금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취한 이유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의 역할을 증대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음. 영국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 연금자산의 75% 이상을 종신연금(annuity)으로 수령하도록 의무화하여, 25%까지만 일시금 인출을 허용함. 법 개정으로 2015년 4월 이후 연금화 수령의무가 없어져 가입자의 자산선택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급부의 25%까지는 비과세로 일시금수령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한 근로자는 나머지 75%로 종신연금이나 분할지급방식을 선택함.

10) Sheshinski and Eytan(2008); 홍원구(2014).

■ 이와 같은 퇴직급여에 대한 연금의무화 조치와 더불어 영국, 칠레 등에서 시행 중인 지급 옵션에 대한 정부의 규제 또한 근로자의 연금전환에 큰 영향을 미침.

- 칠레는 부분 일시금 인출은 허용하지 않고, 전부일시금 인출은 적립금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함.
- 영국은 연금전환 시 최대 25%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50세와 75세 사이에 연금으로 전환해야 함.
 - 적립금이 법정적립금(Statutory Lifetime Allowance)의 1%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일시금 수령이 가능함.
- 스위스는 종신연금형태로의 전환만 허용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인출은 불허함.¹¹⁾

〈표 6〉 퇴직금부의 지급 옵션 비교

구분	지급단계 옵션
호주	· 연기금(Superannuation Fund) 유지, 일시금 인출 · 소득인출형(Income Stream) 상품으로의 전환: Account-based Pension, Annuity
캐나다	· 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Income Drawdown) 상품: RRIF, LIF
칠레	· 계획인출형(Retiro Programado), 즉시연금(Renta Vitalicia Inmediata), 거치연금(Renta Temporal con RV Diferida), 인출옵션이 부과된 거치연금(RV Inmediata con Retiro Programado)
덴마크	· 종신연금(Lifetime Annuities), 유기연금(Term Annuities), 일시금
뉴질랜드	· 본인의 의사에 맞게 KiwiSaver 구좌에 축적된 자산을 인출, 일시금
스위스	· 연생종신연금(Joint Life Annuity), 일시금

자료: Oxera(2015).

2) 연금관련 세제혜택

■ 퇴직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과세체계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입하는 보험료, 적립단계에서 발생한 투자수익, 은퇴 이후 인출하는 적립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따라 분류 가능함.

- 퇴직연금 과세체계방식은 TEE방식과 EET방식 등으로 구분되며,¹²⁾ OECD 대다수 국가에서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EET방식으로 운영함.

11) 2005년부터 적립금의 25% 이상을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함.

12) TEE(Tax Exempt Exempt)형은 연금 납부단계 과세 또는 소득공제 불인정, 운용단계 운용이익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연금수령단계에서는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하는 과세제도임. EET(Exempt Exempt Tax)형은 연금납부단계에서는 과세면제 또는 소득공제, 운용단계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연금수령단계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임.

〈표 7〉 퇴직연금 과세체계 비교

과세체계	주요 국가
TTE(Tax Tax Exempt)	호주, 뉴질랜드
EET(Exempt Exempt Tax)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ETT(Exempt Tax Tax)	덴마크
EEE(Exempt Exempt Exempt)	싱가포르

■ 특히,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는 보험료 납입과 퇴직적립금 축적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인출단계에는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TTE(Tax Tax Exempt)방식을 띠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일시금수령 시에 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적용을 받은 연금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일시금으로 전액인출을 선호함.

■ 반면 근로기간 동안 축적된 자산을 이용하여 은퇴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은 영국은¹³⁾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령 시 보다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¹⁴⁾

○ 즉, 2015년 4월 이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자산의 25%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로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나, 18,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적립금에 대한 일시금 인출은 고액 세율(55%)이 적용되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일시금 인출을 억제함.¹⁵⁾

- 적립자산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이 종신연금상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으며, 75세 이전까지는 일정범위 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함.

13) DC형 가입자의 약 3/4 정도가 은퇴시점에 연금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됨(PPI(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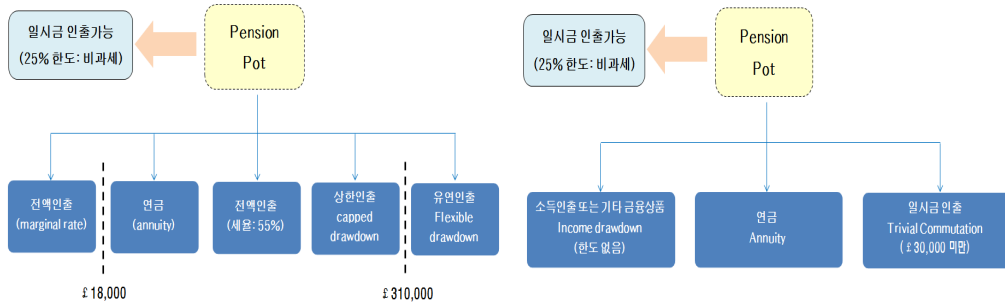
14) Pension Policy Institute(2015), Freedom and Choice in Pensions.

15) 전액인출이 가능한 소액적립자산의 한도를 18,000파운드로 설정하고 있음.

〈그림 2〉 영국의 급여지급형태 변화

[제도변경 전 : 2015년 4월 이전]

[제도변경 후 : 2015년 4월 이후]



자료: Pension Policy Institute(2015).

○ 그러나 2015년 4월 이후 퇴직자들이 본인의 한계 소득세율(marginal tax rate)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경우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

- 즉, 적립자산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로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인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됨.

■ 또한, 연금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뉴질랜드나 호주는 퇴직금부 지급단계에서 연금수령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시금수령에 비해 미흡한 경향이 있음.

○ 2007년 KiwiSaver 제도¹⁶⁾를 도입한 뉴질랜드는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미흡으로 지급단계에서 연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¹⁷⁾

○ KiwiSaver 펀드를 통한 자산축적단계 동안 발생한 투자수익은 개인소득수준에 따라 10.5~17.5%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급단계에서는 30% 연금소득세를 부과함.¹⁸⁾

■ 이러한 과세체계와 더불어 유산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상속세(inheritance tax) 등에 의해서도 연금화의 수준차이가 발생함.

16) 뉴질랜드는 가계저축을 증대 및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가계자산을 조정하기 위해 Opt-out에 기초한 DC형 퇴직연금제도인 KiwiSaver 제도를 도입함. 동 제도는 정부의 규제대상이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정부보증이 없음.

17) 뉴질랜드의 경우 연금자산의 인출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

18) Oxera(2014).

- 상속세가 없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상속세가 있는 칠레(25%), 스위스 등을 비교해 볼 때, 상속세 존재여부에 따라 연금전환 비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경우 1992년 상속세 폐지로 인한 유산상속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 발생으로 종신연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

3) 연금화 유인 상품개발

■ 실질적으로 연금을 구매하는 소비자(근로자)가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할 수 있도록 연금화 유인 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짐.

-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연금상품에 의해 헤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수리스크헤지 연금상품(고령친화형 연금상품)이 개발되어 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함.
- 고연령거치연금(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 증액연금(Enhanced Annuities) 등이 대표적인 고령친화형 연금상품임.
- 특히, 고연령거치연금은 보통 가입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거치종신연금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거치기간에 걸쳐 모두 인출하도록 설계되어 연금지급 개시 전 일시금을 소진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존재함.

■ 또한, 호주,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 등은 다양한 옵션을 포함한 소득인출형 상품 등을 개발하여 퇴직금부의 일부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음.

- 미국은 초기인출 가능한 확정기간형 연금 등을, 덴마크는 가입자와 배우자의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인출하는 상품 등을 개발하여 연금으로의 전환을 유인함.

〈표 8〉 퇴직급여의 연금화 상품 개발 사례 비교

구분	종신연금	소득인출형 상품
호주	- 고연령거치연금(Longevity Pensions)* * 연금개시연령 85세 - 프로그램인출	다양한 옵션을 포함한 소득인출상품개발 (Account Based Income Stream)
미국	- 변액연금 - 최저보증급여 - Continual Payout Plans	- 초기인출 가능한 확정기간형 연금 (Modified Guaranteed Annuities) -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한 BlackRock CoRI 은퇴지수 개발
캐나다	최저보증이 있는 변액연금 공급	감독규정에 승인펀드, LIF 옵션 명시
아일랜드	-	개인이 직접 투자안을 선택하여 운영
덴마크	-	가입자 및 배우자의 기대여명을 고려 → 인출액 결정
칠레	-	프로그램인출 옵션 활성화: 연금화 금액의 200%까지 인출 가능
영국	- 증액연금(Enhanced Annuities) 활성화* * 연금시장의 28%(2013년 말 기준)	- 상한인출(Capped Drawdown) - 유연인출(Flexible Drawdown)

4) 소비자 인식 및 행태

■ 근로자의 은퇴 이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연금상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규제·정책, 세제혜택 등과 같은 명시적 요인 외에도 심리적 요인 등 비명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비명시적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선호(consumer preference), 금전적 가치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value for money), 소비자 행태(consumer behaviors) 등이 있음.
- 소비자 선호체계는 각국의 문화차이로 발생하는 특정자산 및 소비에 대한 니즈 차이로, 예를 들어 호주의 주택구입을 위한 일시금 선호, 싱가포르에서의 유산상속 동기 등을 들 수 있음.
- 소비자 행태로는 디폴트옵션의 영향, 손실발생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회피 성향 등을 들 수 있음.

〈표 9〉 연금관련 소비자 인식 행태 비교

선호체계(Preference)	인식(Perception)	소비자행태(Behaviour)
·리스크 · 수익 간 상충 - 연령, 소득별, 투자수익률	·연금에 대한 저평가 - 낮은 국채수익률	·고정관념에 기초한 선택(framing)
·초기자본에 대한 수요	·상품유연성에 대한 니즈	·근시안적 행태(myopic) - 기대여명에 대한 과소 평가
·유산상속 동기	·연금 - 사망 시 자산 소진	·손실회피성향(loss aversion) -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을 우려
·초기대안 선택에 대한 유인	·사회적 관습	·관성(inertia) - 저관여, 자동가입 선택

자료: Raven(2014), Drivers of Investment Decisions in the Decumulation Phase.

■ 특히, 소비자 행태경제학에서는 개인이 바로 행동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을 연기하는 미루기(Procrastination)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미루기 현상은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소비하는 행태가 발생하는 등 개인의 재무계획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구조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선진국들은 자동가입¹⁹⁾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가입을 촉진하고 은퇴 후 연금수령으로 유도하고자 노력함.²⁰⁾

○ 예를 들어, 은퇴저축 계획을 제공하는 미국의 고용주 대부분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기를 기다리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을 통해 연금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 자동가입(auto-enrollment)에 동참한 기업의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연금수령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 신규채용자의 85% 이상이 퇴직저축계획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자동가입 이전 가입률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임.²¹⁾

19) 자동가입은 상품, 정책 또는 법률관계가 기능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나 연금으로, 이용자, 관련자 또는 당사자들이 그것들을 바꾸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적용됨. 바로 행동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을 연기하는 미루기(Procrastination)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기본 상품을 설정하는 것임.

20) Lauren E. Willis(2013), When Nudges Fail - Slippery Defaults,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 특히, 영국 등은 자동가입과 저축액 증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입을 유도하고 연금수령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에 노력함.
- 따라서 이 제도의 첫 번째 도입목적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입 유도이며 두 번째 목적은 퇴직급부의 연금전환 유도로 안정적인 노후보장 강화에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OECD 국가의 경우 대체로 정부정책에 의한 연금수령 의무화보다 다양한 연금지급옵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함. 이런 OECD 국가 연금화정책 동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부 일시금수령을 허용하되, 일정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연금화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퇴직급부 지급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소득인출형 상품개발 등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시금수령에 비해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보다 부여하는 한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 확대 및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지금까지 DC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연금화 현황 및 특징 등을 살펴 볼 때, 각국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정책적 특성 등에 따라 연금화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모든 운용리스크를 부담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보다 연금전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으로 전환을 유인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즉, 정부의 정책에 의한 연금수령 의무화보다는 다양한 연금지급옵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금화 관련 정책이 변화함.
 - 칠레 및 유럽의 주요 복지국가 등은 법적·제도적으로 연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앵글로색슨 국가 및 오세아니아 국가 등은 근로자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화를 유도함.

21) William E. Nessmith, Stephen P. Utkus, and Jean A. Young(2007),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Automatic Enrollment, Vanguard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 이러한 OECD 국가의 연금화 동향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부 일시금수령을 허용하되, 일정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금화 정책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퇴직금부의 연금전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 선진국은 대체로 DB형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비율이 5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을 합한 전체의 연금수령 비율이 3.1%에 불과함.

■ 이런 점에서 퇴직금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역할이 요구되며 점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자율적 연금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그 이유는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산층 근로자가 투자실패로 연금재원을 소실할 경우 개인의 장수리스크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령화리스크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개인의 자율권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권(정책적 연금화)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연금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금부가 일시금 또는 연금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퇴법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방식이 다양화(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전에 연금으로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고령친화형 연금상품 개발 및 지급옵션이 부여된 소득인출형 상품 개발 등을 정부차원에서 독려하고, 연금중심의 연금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선진국처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동가입을 허용하여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연금전환을 통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보다 제고되도록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요구됨.

〈참 고 문 헌〉

- 금융감독원(2015), 「15.3월 말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 10), “금융투자회사의 윤리·준법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
- 김지희(2012),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선 연금화가 장려되어야」, 한국투자증권.
- 김태우·김치완(2014), 「사적연금 시장의 연금화 전략과 시사점」, 『생명보험협회지』, 생명보험협회.
- 남수정(2013), 「필요노후생활비와 개인연금불입액의 종단적 분석: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적용」, 소비자학 연구, 제24권 제1호.
- 노형식(2011), 「장수위험 대비를 위한 연금화 활성화의 과제」, 금융포커스, 금융연구원.
- 류건식(2014),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
- 박상규(2014), 「퇴직연금 급여의 연금화 유도방안」, 한국투자증권.
- 성주호(2014), “사적연금제도의 Vision & New Paradigm”, 100세 시대, 신성장 동력과 사적연금, 한국 보험학회 창립 50주년 맞이 한·일 특별세미나.
- 여운경(2014), 「장수리스크 감소를 위한 은퇴자산의 인출전략에 관한 연구」, Vol. 27 No. 1, 산업경제연구.
- 이경희(2013), 「세제적격 개인연금 계약자의 지급옵션 선택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71권, 보험개발원.
- 정승희·최현우(2010), 「해외 퇴직급여상품의 발전동향 및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주소현·김세완(2012), 「기대수명 증가와 종신연금」, 소비자학연구, 제23권 제4호.
- 진익(2013),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와 개인연금 활성화 과제」,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
- 최윤희(2014), 「연금퍼즐에 대한 계리적 분석 및 대안적 연금설계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원구(2014), 「영국 DC형 퇴직연금 인출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 AON Hewitt(2011),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의 활용.
- Banerjee, Sudipto(2013), Annuity and Lump-Sum Decisions in Defined Benefit Plans: The Role of Plan Rules, Issue Brief, No.381,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 Benartzi, Shlomo, Alessandro Previtero, and Richard H. Thaler(2011), “Annuitization Puzzl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4): 143-64.
- Butler, Monika, and Federica Teppa(2007), The Choice between an Annuity and a Lump Sum: Results from Swiss Pension Fun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FCA(2014), Retirement income market study: Interim Report.

HM Trasury(2014), Pensions: Income Drawdown.

_____(2014), Freedom and choice in pensions, March 2014.

James, Estelle, Martinez, Guillermo, and Augusto, Iglesias(2006), The Payout Stage in Chile: Who Annuitizes and Why?,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 Finance*.

Oxera(2014), The Retirement Income Market.

_____(2014), The Retirement Income Market: Country Analysis.

Pension Policy Institute(2014).

Roberto Rocha, Dimitri Vittas, and Heinz P. Rudolph(2011), Annuities and Other Retirement Products: Designing the Payout Phase, World Bank.

Shapiro, Arnold(2010), "Post-Retirement Financial Strategies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dividual who is approaching Retirement Age", Society of Actuaries.

Wells, Jackie(2014), Pension Annuities: A Review of Consumer Behaviour, Financial Conduct Authority.

Working Party on Private Pensions Clarkson, Max(2014), "Annuity Products: Definition, Criteria and the Evolution of Product Design", OECD.

◆ 미국 보험상품 규제의 변화와 국내 비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1. 검토배경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는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위험가중자기자본규제 등 재무건전성감독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요율규제 완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FIO는 2013년 “보험규제 체계개선 및 현대화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상품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본고는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종류와 최근 규제현황을 국내와 비교, 분석하였음.

■ 일반적으로 보험규제는 크게 재무건전성규제와 상품을 포함한 시장행위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자는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 사후적 규제에 해당하고, 후자는 상품개발과 판매행위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전적 규제에 해당함.

■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위험가중자기자본금규제(Risk Based Capital)가 도입되기 전까지 생명보험은 준비금 적정성규제를, 손해보험은 주로 요율규제를 중심으로 보험회사 부실을 방지하여 보험계약자 보호 감독정책 기조가 유지되어 왔음.

- 손해보험의 경우 '80년대 후반에 발생한 배상책임보험위기를 거치면서 보험회사들의 탄력적인 요율결정 및 적용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전인가 외의 다양한 형태의 요율규제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 대규모계약자에 대한 상품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금융위기 이후 재무성 산하에 신설된 연방보험청(Federal Insurance Office, 이하 FIO라 함)²²⁾은 2013년 12월 “보험규제 체계개선 및 현대화방안 보고서(How to Modernize and Improve the System of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²³⁾²⁴⁾에서 보험상품²⁵⁾ 규

22) FIO의 설립근거 법규는 12 U.S.Code § 313-Federal Insurance Office이며, 설립배경 등은 이기형·이상우(2008), 조용운(2010) 참조.

23) FIO는 『Section 502 of Dodd-Frank Act』에 의거, 법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보험산업 감독규제의 개선 및 현대화 방안을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주요내용은 〈부록 1〉 참조).

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여 향후 각주의 상품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FIO는 보험상품(약관 및 요율) 규제에 대해 일부 기업성 보험종목의 규제완화, 개인보험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주별 약관과 요율규제의 차이로 인한 감독비용 완화, 가격결정 왜곡구조의 해소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본고는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적용 여부의 기본사항인 보험정의에 대한 논의 및 정립과정, 주별 보험상품 규제현황과 FIO의 평가 등을 조사하고, 국내와 비교·분석하였음.

2.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종류

미국에서 보험정의는 NAIC를 중심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으며, 보험상품 규제의 종류는 사전인가에서 자율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가. 보험정의

■ 최근의 보험상품은 과거의 순수리스크(pure risk) 중심의 보험에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순수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 투기적 리스크 요소까지를 포함한 보험으로 진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업과 보험상품 개발의 핵심이 되는 보험정의도 변화해 갈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 보험정의는 은행지주회사의 영업행위 가능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화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현재는 NAIC를 중심으로 한 보험산업 내에서 보험정의가 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24) <http://www.treasury.gov/initiatives/fio/reports-and-notice/Document/How%20to%20Modernize%20and%20Improve%20the%20System%20of%20Insurance%20Regulation%20in%20the%20United%20States.pdf>.

25) 미국은 보험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별보험종목 단위를 상품이라고 지칭함. 국내의 경우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기초서류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를 함.

■ 1990년대 이전 미국의 보험정의는 주별로 보험법에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배경은 보험업이 주보험청 규제를 받는 것 등의 일정한 조건²⁶⁾을 만족하는 경우에 연방반독점법의 적용제외로 인정한 1945년 『맥커런퍼거슨법』에 기초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의 보험정의는 주 보험법과 법률적 해석²⁷⁾ 등에 따르고 있었으나, 1999년 『금융현대화법(Financial Modernization Act 1999 또는 Gramm-Leach-Bliley Act(이하 GLBA라 함))』이 제정되면서 보험정의의 확립논의가 확대되었음.

■ GLBA 제6712조²⁸⁾ ((c) Definitio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insurance” means—)
는 전국은행이 보험영업 활동을 못하도록 보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 ① 1999년 1월 현재 주 보험청의 규제를 받고 있는 모든 보험상품
- ② 1999년 1월 이후 주 보험청의 인가를 받고 최초로 제공되는 배상책임, 생명손해, 건강손해, 재산의 손괴를 부보, 보증,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증보험, 배상책임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 재물손해보험, 권리손해담보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²⁹⁾
 - 세법 제7702조에서 정한 생명보험상품³⁰⁾ 및 세법 제 832(b)(5)에 해당하는 보험상품
- ③ 세법 72조에 의거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계약(annuity contract)³¹⁾

26) 보험업의 연방 반독점법 적용제외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임(15 U.S.C Section 1011-1015, Justin L. Brady et.al.(1995), The Regulation of Insurance,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pp. 46~47).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요건으로 계약자의 리스크 분산 또는 전가에 효과가 있어야 하고,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관계를 증권으로 통합한 활동이어야 하며, 보험업 내로 국한된 활동이어야 함.

-주의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함.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거래거절 또는 강요, 협박의 행위 또는 이를 위한 협정을 구성하지 않아야 함.

27) Griffin System v. Washburn의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은 계약자와 보험자 간 일정기간 동안의 계약 존재, 계약자의 피보험이익 존재, 계약자의 보험료 지불을 약정, 담보위험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는 리스크 인수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함(GAO(2006), p. 23).

28) 15 U.S.C §6712, Insurance underwriting in national banks(<http://www.gpo.gov/fdsys/granule/USCODE-2011-title15/USCODE-2011-title15-chap93-subchapl-sec6712>).

29) 개인자동차보험, 상업용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 모기지보험, 상공업종합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화재계열보험, 농장종합보험, 항공기보험, 신원 및 이행보증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 해양보험, 내륙운송보험, 기관기계보험.

30) 현금가치축적테스트(Cash Value Accumulation Test),안내보험료 요건(Guideline Premium Requirements), Cash Value Corridor 범주 이내에 해당되어야 함.

31) 연금계약자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세금배제율(exclusion ratio)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전부 과세하게 됨(세금배제율=투자금액(연금보험료)/기대수입(payout)).

■ GLBA는 이와 같이 보험의 종류에 대한 범위만 정하고 보험정의는 주 보험청이 해당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위임함으로써 주별로 보험정의와 보험범위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워싱턴 D.C, 일리노이, 미시건, 텍사스 주, 아이오와,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테네시 등은 보험정의가 없고 보험종류(class of insurance)만 열거하여 각 보험종목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보험약관과 요율을 규제하고 있음.³²⁾

○ 보험정의와 보험종류를 열거하여 약관과 요율을 규제하고 있는 주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보험은 “일방이 우연하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손괴, 배상책임을 다른 상대방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Cal. Insurance Code §22).³³⁾

- 콜로라도 주는 보험은 “일방이 확정할 수 있는 우연한 리스크(determinable risk contingencies)에 의해 특정 또는 확정적인 금액 또는 급부를 상대방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consideration)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Colo. Rev. Stat. §10-1-102(7)).

- 뉴욕 주의 경우에는 보험정의는 없으나 보험계약을 “일방(보험자)이 우발적 사고발생(the happening of a fortuitous event)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실질적인 이해관계(a material interest)를 그 사고 발생 때에 가지고 있고 또한 가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금전적 가치의 급부(benefit of pecuniary value)를 지급의무를 진다는 합의, 기타의 거래”로 정의하고 있음.³⁴⁾

■ GLBA 시행 이후 NAIC는 각주 보험청이 보험정의를 규정하거나 확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정의 구성 4가지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³⁵⁾을 제시하였음.

○ 보험정의의 4가지 요소는 “①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면계약에 의해 협정할 것, ② 일방(계

32) Todd et al.(2000), p. 233.

33) 22.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one undertakes to indemnify another against loss, damage, or liability arising from a contingent or unknown event.

34)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2006), 뉴욕주보험법(상), p. 55(N.Y. ISC. LAW § 1101: NY Code-Section 1101(a)).

35) NAIC(2000), Definition of Insurance, Working Group White Paper(<http://www.naic.org/store/free/DOI-OP.pdf>).

약자)으로부터 확인된 리스크로 기인해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는 자 또는 모두(보험회사)에게 전가가 있어야 할 것, ③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 지불을 약정(consideration)할 것, ④ 보험회사는 약정한 보험료를 받음으로써 리스크를 인수하며, 리스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급부의 어떤 다른 형태를 보상(indemnify), 방어(defend) 또는 제공(provide)할 책임이 수반될 것”임.

- 이러한 구성 요소를 수용하여 보험을 정의하고 있는 주는 애리조나, 코네티컷 주가 대표적임.

■ 국내의 경우 미국과 같은 보험을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 상법에서 보험계약(contract of insurance)을 정의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 보험업(business of insurance)을 규정하고 있음.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실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로 보험계약을 정의하고 있음.
- 보험업은 보험업법에서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 국내와 미국을 비교하는 경우, 국내가 전가리스크를 전통적인 순수리스크(재산, 생명, 신체)로 제한하고 있어 NAIC의 보험정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보험상품 규제종류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등 경쟁을 촉진하는 정도에 따라 경쟁적 상품규제³⁶⁾와 비경쟁적 상품규제로 구분되며 보험종목별 보험약관과 요율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비경쟁적 상품규제는 주제정보험상품 적용, 사전인가(Prior Approval)가 대표적임.³⁷⁾

36) 감독관은 시장구조, 시장성과, 시장행위, 소비자의 가격정보 획득 및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효경쟁 여부를 판단하며, 경쟁적인 시장여부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1년 단위로 결정함. NAIC(2010), 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e and policy Form Law Guideline 2010, Section 4 competitive market.

37)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5), p. 3 및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2010), pp. 11~12 참조 정리.

- 보험청(또는 요율산출기구) 작성 보험상품 적용제도(State or Bureau-made Form, Rate)는 보험회사가 사용할 약관이나 요율을 보험청이나 요율산출기구에서 작성하여 제시하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로 경쟁성이 가장 없는 제도임.
- 사전인가제도(Prior Approval)는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요율을 변경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하기 일정기간 전에 주 보험청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형태임.

■ 경쟁적인 보험상품 규제는 범위요율제도(Flex Rating), 신고제도(File & Use), 보고제도(Use & File), 자율제도(No File) 등이 있음.

- 범위요율제도는 사전인가제도와 경쟁적제도(File & Use 또는 Use & File)를 혼합한 제도로 보험회사가 기준요율에 대해 일정 허용폭(flexibility bands)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 또는 보고함.
 - 보험회사가 일정 허용폭을 벗어나서 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인가를 받아야 함.
- 신고제도는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요율을 사용하기 전 혹은 특정 기한³⁸⁾ 내에 주 보험청에 신고하고 보험청의 거부가 없는 한 인가되는 형태이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임.
- 보고제도는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요율을 계약자에게 적용한 후 일정기한 내에 보험청에 신고하여 특정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되는 규제임.
- 제출제도는 보험회사가 사용할 약관이나 요율을 보험청에 제출만 하면 되는 제도로 제출에 대한 특정한 기한이 없고 보험청에서 거부의사가 없는 한 인가되는 제도임.
- 자율제도는 보험회사가 사용할 약관이나 요율을 보험청에 제출하거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도로 가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이나 파괴적 경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규제형태임.

■ 1990년대 이후 상품규제는 보험회사의 규제비용 감소와 상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적 접수방식 등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90년대 초 주보험청은 전자접수제도(SERFF: System for Electronic Rate and Form Filings)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현재 워싱턴 DC와 49개 주의 3,900개 보험회사가

38) 모델법은 30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주 보험법에서는 최저 10일 최대 90일까지로 다양하며 상당수의 주가 30일을 채택하고 있음.

648,150건을 이용하였음.

-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다수 주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를 위한 주간보험상품규 제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³⁹⁾

3. 보험상품 규제 현황 및 FIO 의견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는 보험산업별로 다르게 운영됨. 생명보험 가격은 준비금을 통한 간접규제방식이며,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법』시행으로 계약자들의 리스크관리 정도에 따라 요율규제 방법과 요율변수 사용을 달리하고 있음. 손해보험은 주별로 종목마다 다양한 규제형태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쟁을 촉진하는 신고제 또는 보고제를 채택한 주가 전체보험료의 64%를 점유하고 있음. FIO는 보험회사의 규제비용 축소를 위해 주별 규제차이 개선과 대규모 계약자에 대한 상품규제 완화를 제안하였음.

가. 생명보험 상품규제

- 미국 대부분의 주는 생명보험 약관과 보험료에 대해 손해보험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고 준비금 평가를 통해 보험료 적정성을 판단하는 간접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음.⁴⁰⁾
 - 보험약관은 보험료와 다르게 주 보험청의 사전인가 등의 규제를 받는 주가 다수 있음.⁴¹⁾
 - 다수 주에서 영업을 하는 생명보험사는 소재지 주 보험청의 보험약관을 인가받아야 하고 영업하는 주 보험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주간보험상품인가제도”를 도입하였음.
- 생명보험 약관에 대한 주간보험상품인가제도는 NAIC가 2003년에 제정한 『주간보험상품규제협정(The Interstate Insurance Product Regulation Compact, 2003. 7)⁴²⁾ 모델규제』에 기초하여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39) Harrington(2013), pp. 204~217 요약 정리.

40) NAIC(2014), State Insurance Regulation: History, Purpose and Structure, p. 3.

41) 금융감독원(2006), 보험심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pp. 8~12.

42) <http://www.naic.org/store/free/MDL-692.pdf>.

- 동 모델규제는 생명보험 등 인보험 상품(약관)⁴³⁾과 광고에 대해 심의기관이 심사하여 승인하면 개별 주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보험회사가 다른 주의 인가나 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됨.
- 동 제도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개인 및 단체 연금보험, 장기 간병보험, 장애소득보험(Disability Income Insurance)임.
- 2015년 1월 말 현재 동 규제를 채택한 주(compacting state)는 43개 주이며 미국 전체 생명보험료의 73%에 해당됨.
 - 동 규제를 채택하지 않은 주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델라웨어, 코네티컷,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DC임.⁴⁴⁾
- FIO는 보험규제 현대화방안의 일환으로 주법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주에 대해 동 제도의 채택을 권고하였음.⁴⁵⁾

■ 동 인가제도의 심의기관은 비영리형태로 2006년에 설립된 “주간보험상품규제위원회 (Interstate Insurance Product Regulation Commission: IIPRC)”임.

- 회원사가 상품과 광고에 대해 인가신청을 하면 상품별 통일표준(Uniform Standard)에 의거 소정기한 내에 심사하여 인가해주고 있음.
- 2013년 현재 통일표준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생명보험, 연금, 장기간병보험, 장애 소득보험 등에 대해 93개가 운영되고 있음.
- 2014년 생명보험 상품 인가현황을 보면, 198개 보험회사가 999개 상품을 접수하여 876개 보험상품이 인가되었으며, 평균 심사기간은 27일이었음.
 - 보험상품에 첨부된 특약(form)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현재 3,205개에 이름.

43) 상품은 보험약관(청약서, 특약, 배서 포함)만 해당하며 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음(오하이오 주 보험법 sec. 3915.16 article II.11. product).

44) <http://www.insurancecompact.org/index.htm>.

45) FIO(2013), p. 50.

〈표 10〉 IIPRC의 생명보험 상품 인가 현황

(단위: 개사, 건, 일)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등록회사	-	38	74	113	132	167	182	198
상품접수	36	106	244	368	464	744	806	999
특약접수	113	395	1,314	1,456	1,588	2,595	2,657	3,205
수정접수	-	-	-	40	78	157	251	220
인가상품	29	126	279	320	436	625	769	876
인가율(%)	81	119	114	87	94	84	95	88
심사일수	35	25	28	42	38	23	28	27

자료 : IIPRC(2014), Annual Report, p. 12(<http://www.insurancecompact.org/index.htm>).

■ FIO는 대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다수 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가 주간보험상품규제위원회(IIPRC)에 참여하여 최초 상품인가에 대한 중복회피 등 절차를 개선하고, IIPRC의 취급상품 확대를 제안하였음.

- 현재 운영 중인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장애소득보험, 장기간병보험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험시장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 뉴욕 주가 비회원으로 되어 있어 그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이들 주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나. 건강보험의 상품규제

■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의 상품규제는 생명보험과 달리 약관과 요율에 대해 사전인가에서부터 신고제도, 보고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건강보험 개혁이 추진되면서 보험 가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요율변수 등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음.

■ NAIC는 2007년에 『건강보험 약관 및 요율 신고모델법(Health Policy Rate and Form Filing Model Act)』⁴⁶⁾과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Filing of Rates for Individual Health Insurance Forms)⁴⁷⁾을 공표하여 향후 건강보험 상품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모델법은 보험회사가 건강 및 상해보험의 약관 및 요율을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주 보

46) <http://www.naic.org/store/free/MDL-165.pdf>.

47) <http://www.naic.org/store/free/MDL-134.pdf>.

협청에 신고 또는 인가신청을 하고, 주 보험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 또는 수 정보완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러한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는 30일 이내에 재접수를 하지 않으면 인가가 거부되는 것으로 규정함.

-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건강 및 상해보험의 약관과 요율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할 때 첨부되어야 할 서류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율산출에 필요한 경험실적기간은 3년 이상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주 보험청은 NAIC의 모델법과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상품규제를 하고 있으며 많은 주가 개인보험과 소규모단체 건강보험(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인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음.⁴⁸⁾

- 2014년 현재 사전인가를 채택한 주는 개인보험에 대해 34개 주이며, 소규모 및 대규모 단체보험에 대해 각각 27개 주, 24개 주임.
- 신고제도를 채택한 주는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이며, 요율산출자료만 제출하는 주는 조지아 등이 있음.
- 개인보험에 대해 자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앨라배마 등 3개 주이며, 소규모 및 대규모 단체보험에 대해서 각각 12개 주임.

48) <http://www.ncsl.org/research/health/health-insurance-rate-approval-disapproval.aspx>.

〈표 11〉 건강보험 약관 및 요율 인가제도 운영 현황(2010)

형태	개인보험	단체보험	
		소규모그룹	대규모그룹(50인 이상)
사전인가	알래스카, 콜로라도, 코네티컷, DC,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34개 주)	알래스카, 콜로라도, 코네티컷, DC,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몬태나, 미네소타, 미시시피, 뉴햄프셔,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몬트,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27개 주)	알래스카, 콜로라도, 코네티컷, DC,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네소타, 몬태나, 미시시피,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몬트,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24개 주)
File & Use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아이다호,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건,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11개 주)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텍사스, 유타(9개 주)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리건, 텍사스, 유타(12개 주)
Use & File	위스콘신(1개 주)	위스콘신(1개 주)	위스콘신(1개 주)
Filing Only	아칸소, 조지아(2개 주)	조지아, 버지니아(2개 주)	조지아, 버지니아(2개 주)
No File	앨라배마, 일리노이, 미주리(3개 주)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주리, 네바다,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12개 주)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주리, 네바다,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12개 주)

자료 : 1) <http://www.ncsl.org/research/health/health-insurance-rate-approval-disapproval.aspx>.

2) Gilbert Ojed et al, (2012), p. 14.

■ 『오바마케어법(The 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 2010)』에서도 건강보험의 요율변수(rating variable)와 관련하여 규제를 채택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개인과 소규모그룹(small group)에 대한 보험을 인수할 때 보험료의 차등화 변수로 나이, 흡연여부, 가족규모, 거주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대규모 그룹보험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사용하도록 하였음.⁴⁹⁾

○ 또한 요율변수별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나이의 경우 최저그룹에 대해 최대 3배 이내, 흡연여부는 최대 1.5배 이내로 정하고 있음.

49) <http://obamacarefacts.com/obamacare-health-insurance-rules/>.

-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였던 요율변수인 기왕증(pre-existing conditions), 건강상태(health status), 보험금지급실적(claims history), 보험가입기간(duration of coverage), 성별(gender), 직업과 종업원 규모 및 업종별 변수는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추가하여 개인 및 소규모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정손해율의 상한(개인 및 소규모그룹: 80%, 대규모그룹 85%)을 정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있음.

■ 건강보험의 개인보험과 소규모그룹보험별 요율변수 사용은 주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음.⁵⁰⁾

- 소규모그룹보험의 경우 건강상태와 보험금지급실적을 제외한 변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수정지역요율제도(Adjusted Community Rating)를 채택한 주는 9개 주(앨라배마,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오리건, 워싱턴)임.
 - 지리적인 요인만을 이용하여 보험료 차등화를 하는 지역요율제도(Community Rating)를 채택한 주는 뉴욕과 버몬트 주임.
 - 소규모 그룹관련 요율규제를 채택하지 않은 주는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DC임.
-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뉴욕 주만 지역요율제도(Community Rating)를 채택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메인, 워싱턴, 오리건, 버몬트, 뉴저지 등 6개 주가 수정지역요율제도(Adjusted Community Rating)를 채택하고 있음.
 - 이외에 요율변수에 대한 범위요율제도(Rating Band)는 아이다호, 켄터키,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미네소타 등 11개 주가 채택하고 있음.
 - 워싱턴 DC와 기타 32개 주는 요율변수에 대한 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 FIO 보험약관 규제(Form Regulation)는 인가형태와 심사기간 등이 주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이기 때문에 주 감독자원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상품규제의 통일성 부족으로 인해 규제차익 기회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50) http://www.naic.org/documents/topics_health_insurance_rate_regulation_brief.pdf.

다. 손해보험 상품규제

- 손해보험의 상품규제는 생명보험에 비해 구체적인 형태로 1900년대 초부터 운영되었음.
- 화재보험의 경우 1909년 캔자스 주가 처음으로 사전인가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차별성, 비과도성, 적정성 원칙에 기초하여 약관과 요율을 심사하였음.⁵¹⁾
 - 그 이후 뉴욕 주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고 요율산출기구(Rating Bureau)⁵²⁾를 인정하는 법규를 채택하였으며, 다른 주로 확대되어 다양한 형태의 상품규제 형태가 도입되었음.
 - 요율산출기구인 ISO의 경우 1970년대 이전까지는 영업보험료를 산출하여 제시했지만 그 이후 권고요율로 전환하고 1989년부터 참조순보험료(prospective loss cost)⁵³⁾를 산출하여 주 보험청의 인가를 받아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있음.
 - 회원사는 요율산출기구의 참조순보험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아울러 요율산출기구는 산출하는 보험종목의 표준약관(standard policy)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 대부분의 주가 주 보험법에 요율규제법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리노이 주만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한정해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5년 현재는 대부분 보험종목에 보고제를 운영함.⁵⁴⁾
- NAIC는 손해보험의 약관과 요율규제가 주별로 상이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주 보험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법과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51) Angelo Borselli(2010), "Insurance Rates Regulation in Comparison with Open Competition", *Connecticut Insurance Law Journal*, Vol. 18.1, p. 115.

52) 대표적인 요율산출기구는 National Council on Compensation Insurance(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Surety Association of America(surety bonds and crime insurance), Insurance Services Office, Inc.(most commercial and personal lines other th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merican Association of Insurance Services, Inc.(many commercial and personal lines other than workers compensation)가 있음.

53) Insurance Service Organization의 경우 상공업보험(Commercial Lines) 12종(Automobile, Boiler and machinery, Business owners, Crime, Employment-related practices liability, Farm, Glass, Inland marine, Liability(various types),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Package policies, Property Insurance), 가계성보험 6종(Automobile, Dwelling fire and allied lines, Homeowners, Inland marine, Liability(including personal umbrella))임.

54)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2010), Analysis of Property/Casualty Insurance Rate Regulatory Laws, p. 4.

- 2010년에 『손해보험 모델 요율약관법 가이드라인(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E AND POLICY FORM LAW GUIDELINE 2010)⁵⁵⁾』을 제시하였음.
- 또한 손해보험 약관 및 요율규제가 다양한 점을 감안해 『사전인가 모델법(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ing Law: Prior Approval Version)⁵⁶⁾』 『신고제도모델법(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ing Law: File and Use Version)⁵⁷⁾』도 추가적으로 공표하였음.

■ 1990년대에 들어 대규모 계약자가 가입하는 상공업보험(Large Commercial Lines)에 대한 상품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NAIC는 『손해보험 모델요율약관 규제 가이드라인(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e and Policy Form Regulation Guideline)』을 제시하였고 다수 주가 이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주보험청의 약관과 요율에 대해 사전인가 등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계약자(Exempt Commercial Policy Holders, 이하 ECPs라 함)는 아래 조건에서 2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음.
 - ① 순자산 5천만 달러 초과, ② 순수입 또는 순매출액 1억 달러 이상, ③ 종업원 500명 이상(지주회사 1,000명이상)인 개인기업, ④ 고용 또는 확보된 리스크관리자가 보험계약체결을 행하는 기업, ⑤ 총보험료 50만 달러 초과, ⑥ 연간예산 또는 자산 4,500만 달러 초과 비영리공익법인, ⑦ 인구 5만 명 초과 자치단체
- 2014년 현재 ECPs를 채택한 주는 알래스카 등 31개 주임.⁵⁸⁾
 - 주 보험청은 NAIC 모델법의 ECPs 규정을 그대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각주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고 있으며, ECPs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인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대부분의 주가 약관과 요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⁵⁹⁾
- 뉴욕 주의 경우 개인보험을 제외한 내륙운송보험과 기업성 보험계약의 약관과 요율에 대

55) <http://www.naic.org/store/free/GDL-1776.pdf>.

56) <http://www.naic.org/store/free/GDL-1780.pdf>.

57) <http://www.naic.org/store/free/GDL-1775.pdf>.

58)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델라웨어, 워싱턴 DC,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미시건,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햄프셔, 뉴멕시코, 뉴욕,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5), Regulation Modernization.

59) NAIC(2014), Commercial Lines(EX) Working Group.

한 인가 또는 신고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뉴욕 주 보험법 제6301조-6304조).

-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 유지하고 있음을 승인받아야 하며, 대상계약자도 스스로 리스크관리자를 고용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조건 등을 협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개인 손해보험의 요율규제는 주별로 다른 규제형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인가보다는 신고제 또는 보고제, 범위의율을 채택하는 주가 더 많음.

○ 2013년 현재 개인자동차보험에 사전인가제도를 채택한 주는 캘리포니아 주 등⁶⁰⁾ 16개 주이고 워싱턴 DC를 포함한 34개 주는 신고제도 또는 보고제도, 범위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특히 와이오밍 주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자율요율(No File)을 채택하고 있음.

○ 범위의율제도(Flex Rating)는 주로 개인용자동차보험과 주택종합보험 등 개인보험상품에 적용하고 있음.

- 알라스카의 경우 $\pm 10\%$, 캔터키는 $\pm 25\%$ (1년 이내), 뉴저지는 자동차보험 $\pm 7\%$, 주택종합보험 $\pm 5\%$ 를 운영함.

- 그리고 노스다코타 $\pm 5\%$ (Use & File), 펜실베이니아 $\pm 10\%$, 사우스캐롤라이나 $\pm 7\%$, 테네시 $\pm 15\%$ 를 적용하며, 뉴욕 주는 개인용자동차보험에 한정해 $\pm 5\%$ 를 운영하고 있음.

- 개인보험 이외의 종목은 의료사고배상책임에 한정해 워싱턴 DC는 $\pm 10\%$, 뉴저지는 $\pm 15\%$ 를 채택하고 있음.

■ FIO는 주별로 다른 규제방식을 모니터링하여 보험소비자보호와 보험사업자의 리스크와 비용축소가 가능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조사,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임.

○ FIO는 주별로 보험상품 및 요율규제의 방법과 세부절차(심사기간 등 인가기간, 제출자료) 등이 크게 달라 다수 주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에게 규제비용 상승⁶¹⁾을 초래하며 가격결

60)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61) McKinsey & Company(2009)의 분석에 따르면 1개 이상의 다수 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130억 달러비용을 부담하고 손해보험회사는 72억 달러, 생명보험회사는 57억 달러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의 보험감독비용은 영국의 7배나 된다고 평가하였음.

정구조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 FIO는 보험회사가 개인보험에서 다양한 요율변수를 사용하여 과도한 리스크 세분화(risk classification)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소비자의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보험가용성 문제(availability problem)가 존재하게 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 저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FIO는 주 보험청이 개인보험종목의 가격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표준을 작성하고, 보험스코어⁶²⁾를 사용하는 대리점 등 보험판매채널과 보험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아울러 FIO는 보험가격산정과 담보범위 결정에 사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와 보고서를 향후 작성할 계획임.

- FIO는 ECPs에 대한 상품규제 완화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주가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음.

- 1998년부터 추진된 ECPs에 대한 규제완화는 보험시장 상황에 부합한 상품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국 손보사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나 다수 주가 동 규제완화를 채택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하고 도입 확대를 촉구하였음.

4. 보험상품 규제의 영향

가. 규제수준별 시장분포 및 잔여시장 영향

■ 보험상품의 요율규제는 가격결정 등 시장행위, 시장성과, 시장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보험요율을 사전인가 등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를 변동에 따라 적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리스크 계약자가 높은 리스크 계약자의 보험료를 보조하는 시장왜곡을 초래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리스크가 큰 계약자에 대해 인수를 기피하여 잔여시장(residual market)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62) 보험스코어는 계약자의 운전경력, 나이, 성별, 우편번호, 결혼유무, 신용도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작성함.

■ 주별 요율규제와 시장행위의 결과인 잔여시장 규모, 감독비용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별 요율규제수준지수를 만들어 평가하였는데, 주별 요율규제수준은 사전인가 등 비경쟁요율수준에 해당하는 주보다는 신고제 또는 보고제 등 경쟁요율수준에 해당하는 규제를 하는 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요율규제수준은 요율규제수준이 0.20보다 적으면 자율요율 시장, 0.20 초과 0.60 이하이면 경쟁요율 시장, 0.60을 초과하면 비경쟁요율 시장으로 구분하였음.

- 요율규제수준은 주별 종목별 보험료 비중에 요율규제형태별 비중을 곱해 산출하였음(규제강도=Σ종목별 보험료비중×규제형태비중(주제정요율 1.0, 사전인가 0.9, 범위요율 0.6, 신고제 0.4, 보고제 0.2, 자율요율 0)).

○ 2013년 현재 자율요율 시장과 비경쟁요율 시장에 해당하는 주(38개 주, 미국전체보험료의 63.9% 점유)가 경쟁요율 시장의 주보다 높게 나타났음.

- 비경쟁요율 시장에는 보험료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뉴욕 주를 비롯한 12개 주로 전체보험료의 36.1%를 차지함.

〈표 12〉 손해보험 요율규제 수준별 주별 분포

(단위: 백만 달러)

요율규제 수준	자율요율 시장	경쟁요율 시장	비경쟁요율 시장
	규제수준 < 0.2	0.2 ≤ 규제수준 ≤ 0.6	0.6 < 규제수준
해당 주	애리조나, 오кла호마, 일리노이 (3개 주)	메인, 미주리, 유타, 버몬트, 루이지애나, 델라웨어, 인디애나, 아이다호, 텍사스, 위스콘신,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미시건, 아칸소, 플로리다, 콜로라도, 캔자스, 아이오와, 버지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워싱턴DC, 뉴햄프셔, 와이오밍,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오리건, 오하이오, 켄터키, 조지아, 알래스카, 매사추세츠(36개 주)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 버지니아,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하와이 (12개 주)
보험료(2013)	38,302	307,166	195,108
전체비중	7.1%	56.8%	36.1%
주별 평균보험료	12,167	8,532	16,259

주: 각주의 보험상품별 규제방법과 요율규제수준은 〈부록 1〉 참조.

자료: NAIC 홈페이지, The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 각 주별 통계에서 추출.

■ 주별 손해보험 요율규제수준과 손보 감독비용, 감독인수, 민원지수, 보험수요인 보험침투도와 밀도와의 관계를 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음.

○ 주별 요율규제수준은 감독비용, 민원지수, 감독인 비중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보험수요인 밀도와 침투도와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음.

〈표 13〉 주별 요율규제 수준 관련 기초자료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합계	최소값	최대값
요율규제수준		51	0.46	0.18	23.44	0.17	0.90
손보감독비		51	1.62	0.85	82.66	0.25	4.75
민원지수		51	0.41	0.20	21.03	0.07	1.21
감독인 비중		51	2.52	1.99	128.37	0.81	14.16
보험침투도		51	0.03	0.01	1.75	0.02	0.05
보험밀도(로그값)		51	7.47	0.22	381.17	7.14	8.30
공동인수	개인자동차	51	0.57	3.10	29.29	0.00	22.04
	주택종합	51	1.52	4.95	77.59	0.00	31.51
무보험차비중		51	12.21	5.17	622.60	3.90	25.90

주 : 1) 모든 자료는 2013년 기준임. 손보감독비=(전체감독예산액×손보보험료비중)/손해보험료×1000

2) 민원지수는 손·생보 민원건수/보험료 100만 달러, 감독인 비중은 감독인 수/손보보험료 1만 달러, 1인당 회사 수는 영업 중인 주 내 보험회사 수/감독인 수, 침투도는 손보보험료/GDP, 밀도 ln(손보보험료/인구).

3) 잔여시장의 경우 개인용자동차보험비중은 임의보험부보대수에서 공동인수부보대수 비율, 주택종합보험비중은 주택종합보험보험료에서 잔여시장보험료 비중임. 무보험차비중은 대인배상보험금청구건수에서 무보험자의 보상청구건수 비율임.

자료 : 1) 주별 보험감독비, 종목별 보험료는 NAIC 홈페이지, The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에서 추출.

2) 공동인수의 잔여시장은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5), Insurance FackBook 활용.

〈표 14〉 주별 요율규제 수준과 감독비용, 보험밀도 등의 상관관계

구분	요율규제 수준	손보 감독비용	민원 지수	감독인 비중	보험수요		잔여시장		무보험 차비중
					침투도	밀도	개인자동차	주택종합	
규제강도	1.000	-	-	-	-	-	-	-	-
손보감독비용	0.167***	1.000	-	-	-	-	-	-	-
민원지수	0.184***	0.012	1.000	-	-	-	-	-	-
감독인 비중	0.156	0.488*	0.116	1.000	-	-	-	-	-
보험침투도	-0.082	-0.037	-0.167	0.020	1.000	-	-	-	-
보험밀도	-0.058	-0.011	-0.183***	-0.027	0.427*	1.000	-	-	-
잔여시장	개인자동차	0.190***	-0.067	0.241**	0.029	-0.144	-0.159	1.000	-
	주택종합	-0.073	-0.113	-0.074	-0.082	0.285*	0.146	0.068	1.000
	무보험자	0.001	-0.150	-0.022	-0.138	0.189***	-0.155	-0.112	0.244**

주 : *는 5% 유의수준, **는 10% 이내 유의수준, ***는 25% 이내 유의수준임.

■ 요율규제수준이 잔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요율규제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자동차보험의 잔여시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⁶³⁾ 동 분석이 1년간 자료라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음.

〈표 15〉 요율규제 수준별 감독비용, 잔여시장 차이

(단위: 백만 달러, 인, 건, %)

요율규제 수준	보험료	손보 감독비	보험 밀도	침투도	평균 감독자수	민원 건수	회사/ 감독자	개인 자동차 잔여시장
자율요율시장	38,302	1.81	1,652	3.42	149	4,931	1.19	0.00
경쟁요율시장	307,166	1.56	1,867	3.49	184	3,582	0.77	0.14
비경쟁요율시장	195,108	1.77	1,677	3.27	362	10,267	0.45	2.01

주: 항목별 설명은 〈표 4〉 참조.

- Regan et al.(2009)⁶⁴⁾는 50개 주에 대해 1990~1998년간 자동차보험의 요율규제(사전 인가와 경쟁요율)와 잔여시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전인가를 채택하고 있는 주가 잔여시장 규모 증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율규제가 무보험자를 감소시킨다는 판단을 유보하였음.
- Tennyson(2007)⁶⁵⁾은 요율규제가 보험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수익이 감소하여 특정시장의 보험가용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계약자에게 리스크에 부합한 보험료부과가 되지 못하여 더 많은 잔여시장(residual market)이 만들어지며, 다수 소비자에게 평균적인 보험비용을 상승시킨다고 분석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요율규제는 사회와 보험소비자에게 높은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았음.
-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요율규제수준을 높게 하면 가격결정구조의 왜곡을 초래해 잔여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63) 자율요율수준의 주 0.0%, 경쟁요율수준의 주 0.14%, 비경쟁요율수준의 주 2.01%.

64) Regan et al.(2009), p. 37.

65) Sharon L. Tennyson(2007), Efficiency Consequences of Rate Regulation in Insurance Markets, Networks Financial Institute Policy Brief No. 2007-PB-03.

나. 요율규제의 시장성과 및 구조에 대한 영향

■ 주별 요율규제강도가 보험회사의 성과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변동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NAIC는 요율규제를 강하게 하는 주와 그리하지 않은 주의 보험회사 수익성(insurer profitability)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
- 보험회사의 수익성과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 경영효율성, 가격경쟁전략 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표 7〉 참조).⁶⁶⁾
- 또한 요율규제는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보험회사의 수익성 크기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며, 보험영업이익 변동성에는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 있음.
- 사전인가제도 채택 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익 변동성은 그리하지 않은 주(market oriented rating law)의 보험회사 변동성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경쟁적인 요율규제를 채택하고 있어 손해실적(loss experience)에 따라 신속하게 요율을 변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표 16〉 개인용자동차보험 요율규제 형태별 수익률과 시장집중도

규제형태	보험료		보험료인상률(%) (1989~2010)	평균이익률 (2010년, %)	시장집중도 (HHI)
	10억 달러	비중(%)			
사전인가	63.40	42.4	48.0	9.4	996
File & Use	63.80	42.6	60.4	7.7	1,031
Use & File	12.60	8.4	61.7	9.7	865
Flex	4.70	3.1	66.8	4.5	1,311
No File	5.10	3.4	70.1	9.7	1,207
계	149.60	100.0	43.3	8.6	698

주: 미국 법무성은 HHI <1000: 경쟁시장, 1000 ≤ HHI ≤ 1800: 다소 집중된 시장, 1800 (HHI: 높게 집중된 시장으로 구분함.
자료: J. Robert Hunter et al.(2013), pp. 8~12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 Hunter et al.(2013)⁶⁷⁾은 요율규제 형태와 시장구조를 개인용자동차보험시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요율규제가 약하게 되면 집중도(HHI)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7〉 참조).

66)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2010), pp. 8~9.

67) J. Robert Hunter et al.(2013), p. 10.

- 사전인가제도를 채택한 주의 집중도가 996으로 규제가 적은 주의 집중도 1,207보다 적게 나와 오히려 요율규제가 강함에도 경쟁적인 시장으로 왜곡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⁶⁸⁾
- 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적정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가격경쟁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등의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게 됨.

■ D' Arcy(2001)은 1971년 이후 개인용자동차보험 요율규제를 하지 않은 일리노이 주와 그러하지 않은 주들과 35년간의 손해율, 잔여시장규모, 파산회사 등을 비교하여 본 결과, 소비자보호 불가능 등의 문제가 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하였음.

5. 요약 및 국내 비교

미국과 국내의 보험상품 규제를 비교한 결과, 보험정의는 국내가 순수리스크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규제는 보험종목별 적용 및 규제법규의 체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가. 미국 상품규제의 요약

- 미국의 보험상품 규제는 주로 손해보험의 개인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종목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율요율과 경쟁요율수준에 해당하는 주가 38개 주로 전체보험료의 63.9%를 점유하고 있음.
- 보험상품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전인가 등의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잔여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감독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민원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6〉).
- 또한 상품규제의 차이가 보험회사의 수익률 수준에는 영향이 적지만 경쟁시장인 주의 수익률 변동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7〉).
- FIO는 주별 상품규제 차이 등으로 인한 감독비용 상승억제와 보험가용성문제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보험회사와

68)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 손해보험시장에서 1994년 가격자유화 이전에 나타났던 결과와 유사함.

주 보험감독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은 FIO를 중심으로 최근 EU와 재무건전성규제와 보험상품 규제를 포함한 시장 행위규제 등 전반적인 보험감독 규제에 대해 보험협상⁶⁹⁾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보험 계약에 대한 담보제공 등 상품운영 규제부분의 변화가 예상됨.

○ 보험상품 규제의 경우 EU는 1994년 이전까지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해왔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가격을 제외한 약관)에 대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⁷⁰⁾

나. 국내 비교

■ 국내 보험상품 규제의 경우 미국의 요율규제와 유사하게 신고제 또는 보고제 등 경쟁적인 요율규제를 채택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전자적인 접수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국과 국내의 보험상품 규제를 비교하여 보면 보험정의, 보험상품 구성요소, 규제 적용대상 상품, 규제 적용단위, 법규체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69) EIOPA(2012), pp. 7~10.

70) Eling Martin et.al.(2009), pp. 19~24.

〈표 17〉 미국과 국내의 보험상품 규제비교

구분		미국	한국
보험 정의		순수리스크 외로 확대	순수리스크에 한정
상품 규제 적용 체계	보험상품 구성	보험약관, 보험료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표준약관	요율산출기관	금융감독원
	규제종류	사전인가, 신고제, 보고제, 범위요율, 자율요율	신고제, 보고제
	규제적용 단위	보험종목별, 계약자규모별, 리스크세분화(개인용자동차, 건강보험)	- 보험종목별, 판매채널별, 특별계정 해당여부, 요율산출 방 법별 - 요율조정범위별($\pm 25\%$), 표준기초서류 사용여부 - 리스크세분화 도입여부, 요율조정 회수별 - 보험기간별, 사업비부과방식(후취) 등
	적용상품	손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일부 주 약관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전 종목
	처리기간	주별 90일, 60일, 45일, 30일, 15일, 10일 다양함	신고: 30일 전 제출, 20일 이내 변경권고 보고: 분기종료 후 10일 내 목록제출
	제출방법	전자방법 이용(SERFF)	금융정보교환망(2014년 도입)
규제법규		주보험법, Regulation	보험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감독 업무시행세칙

■ 첫째, 국내의 보험정의는 리스크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전가기법도 금융복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순수리스크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존재해 종합리스크 인수자로서의 역할에 제약받을 가능성 존재하나, 미국은 포괄적 정의로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개별주 보험법에서 보험정의를 내리고 있는 관계로 주에 따라 Warranty, Guarantee 등 유사상품에 대해 보험법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⁷¹⁾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NAIC는 보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각주에 채택할 수 있는 보고서를 2000년에 제시하였음.

-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법에서 보험계약⁷²⁾을 정의하고 있으나 보험은 정의하고 있지 않아 날씨파생상품, 자동차서비스상품, 제품보증 등에 대해 보험법 적용 논의와 더불어 보험개념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⁷³⁾

71) DCSC(Debt Cancellation or Suspension Contract)의 경우 일리노이 주와 미시간 주는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뉴욕 주는 보험으로 보고 있음(GAO(2006), p. 27).

72) 일본 보험법 제2조 제1항은 “보험계약, 공제계약, 기타 사용하는 이름에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의 급부(생명보험계약 및 상해질병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금전의 지불에 한한다)의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당해 일정한 사유 발생 가능성에 기초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규정함.

〈표 18〉 미국과 한국의 보험 정의 비교

구성요소	미국	한국	비교
계약관계	서면계약	약정할 것	미국이 더 구체적임
리스크전가	확인된 리스크 또는 위험노출(exposure)로 인한 손실(loss)	재산, 생명, 신체의 불확실한 사고	한국은 구체적 사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범위가 제약됨
약인(consideration)	현금형태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불	보험료를 지급	차이 없음
보 험 정 의 약인의 영수에 대한 보험회사의 리스크인수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음으로써 리스크를 인수하는 것이며, 리스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하기 위한 급부의 어떤 다른 형태를 보상, 방어 또는 제공할 책임이 수반함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미국은 한국의 보험금액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보상, 방어 등으로 구체화
감독 법규	주 보험법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 상법 제638조를 리스크전가의 범위가 재산, 생명, 신체에 국한되지 않도록 미국 NAIC 권고안과 같이 “확인된 리스크 또는 위험노출로부터 생긴 손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취급 보험종목을 허가하면 보험업법상 상품규제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확인된 리스크 또는 위험노출로부터 발생한 손실”이 불확실 또는 우연한 사고로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로 변경이 필요함.

■ 둘째, 미국은 보험상품 규제를 취급하는 보험종목별 및 개인보험의 보험가용성문제 발생 억제에 위한 리스크세분화에 국한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는 보험종목, 판매채널, 요율산출방법, 표준기초서류 사용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음.

○ 미국은 보험업 영위허가 시 등록한 보험종목에 대해 규제형태(사전인가제, 신고제, 보고제)를 달리하고 있으며, 리스크세분화에 대한 규제는 개인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음.

- 최근 들어 계약자 스스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여 보험회사와 가격협상력이 있는 대규모 계약자(ECPs)에 대해 상품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비해 국내는 동일한 보험종목일지라도 판매채널별(금융기관대리점, 단종대리점), 유통산출방법별(순보험료법, 현금흐름법),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서류 사용여부, 요율조정횟수별, 사업비부과방식별, 보험기간(일반손보 3년 이상)에 따라 신고제 또는 보고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요인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따른 상품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요소임에도 이들 요소를 규제의 단위로 채택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보험상품 규제를 보험업법상 허가종목별 특성에 따라 신고제 또는 보고제, 범위요율제 차등화 등의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⁷⁴⁾

- 또한 현재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pm 25\%$ 조정한도를 두어 범위요율형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험종목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검토가 필요함.

■ 셋째, 현재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 등으로 분산된 보험상품 규제내용을 보험업법으로 상향, 종목별로 재규정하여 보험회사의 상품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경우 보험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보험상품 규제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규제의 대상과 적용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미국과 국내의 상품규제 차이점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채택과 재무건전성감독 로드맵과 병행, 검토하여 이들 규제 간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해야 함.

○ 국내의 경우 OECD 가입 시 추진된 보험가격자유화는 현재의 보험상품 규제체계를 태동시킨 근간이 되었으나 당시와 현재의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큰 차이가 있음.

- 20년이 지난 현재는 재무건전성 감독규제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향후 솔벤시 II를 기초로 한 자기자본규제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의한 부채 공정가치평가제도가 2020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임.⁷⁵⁾

74) 일본의 경우에도 보험업법에 보험종목단위로만 상품규제를 운영하고 있음(일본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7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7. 31),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부록 1〉 FIO의 보험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검토분야	세부이슈	제안내용(recommendation)
재무 건전성 감독	모기지보험회사	연방표준과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기준개발
	캡티브	재보험캡티브에 전가하는 것에 대한 표준적이고 투명한 지급능력 감독체제 개발
	RBC 방법론과 적정성 결정	각 주의 기준은 모범기준과 통일표준에 부합해야 함(RBC, ORSA)
	준비금적립	원칙중심적립방식으로 전환
	재보험의 신용담보 제공	전국표준화 노력, 재보험신용제공모델법 및 규제(NAIC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 and Regulation)에 부합하도록 재무성과 USTR이 협력
	지배구조	보험회사특성에 맞는 지배구조 원칙을 개발
	그룹감독	각주는 그룹감독기준 개발, 그룹감독대학 신설
	보험계약자보증기금	계약자 보호한도 등에 표준화된 기준 마련
시장 행위 감독 소비자 보호 시장 접근	판매채널허가	등록대리점 및 중개사전국협회개혁법 채택, FIO의 이행점검
	상품인가	모든 주가 주간보험상품규제위원회에 참여하여 상품인가절차를 개선, 표준화상품개발, 기업정보보험규제 개선
		군인전용 개인용자동차보험 개발
		모든 주가 연금거래적합성모델규제 채택, 시행
	요율규제	각 주는 개인보험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규제형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FIO는 각주의 요율규제 개혁에 공동으로 노력
	리스크 세분화	각 주는 개인보험 가격산정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표준 개발, 보험스 코어사용상품 공급자에 대한 규제감시를 확대함, FIO는 개인정보 활용 관련 연구진행
	비인가 및 재보험개혁법	Dodd-Frank법 이행사항(Surplus Lines 세금회수 단순화) 점검 및 연방개입필요성 검토
	시장행위규제	각 주는 시장행위에 대해 시장규제핸드북에 부합하게 검사와 감시 등의 개혁을 할 필요
	자연거대재해	각주는 자연거대재해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모범기준의 채택 및 시행

〈부록 2〉 주별 손해보험 요율규제 방법 및 요율규제 수준(2014년 12월 현재)

(단위: 백만 달러)

주별	보험료 (2013)	보험 밀도	보험종목별 요율규제 방법											요율규제 수준
			주택 종합	개인 자동차	상업 자동차	화재	계열 보험	건강 상해	상업 종합	해상 보험	배상 책임	종합 보험	농장 종합	
알라바마	7,309	3.8	AP	AP	AP	AP	FU	AP	FU	FU	FU	AP	FU	74.1
알래스카	1,733	2.9	FR	FR	FR	FR	FR	AP	UF	UF	AP	AP	FR	52.7
아리조나	8,642	3.1	UF	UF	UF	UF	FU	FU	ECP	ECP	UP	UP	UP	17.4
아칸사스	4,489	3.6	FU	FU	FU	FU	FU	FU	ECP	ECP	AP	AP	FU	36.7
캘리포니아	61,172	2.8	AP	AP	AP	AP	AP	AP	AP	AP	FU	AP	AP	79.4
콜로라도	9,262	3.1	FU	FU	FU	FU	FU	AP	ECP	ECP	AP	FU	FU	37.2
코네티컷	7,698	3.1	AP	AP	AP	FU	FU	AP	FU	FU	FU	AP	FU	69.6
델라웨어	2,139	3.4	FU	FU	FU	FU	FU	FU	ECP	FU	FU	FU	FU	29.8
D.C	1,670	1.5	FU	FU	FU	FU	FU	AP	FU	ECP	AP	AP	FU	39.2
플로리다	41,377	5.2	FU	FU	FU	FU	UF	AP	UF	ECP	AP	FU	FU	36.8
조지아	15,043	3.3	FU	AP	AP	FU	FU	FU	ECP	ECP	ECP	FU	FU	51.8
하와이	2,183	2.9	AP	AP	AP	AP	AP	AP	AP	AP	AP	AP	AP	89.9
아이다호	2,201	3.5	UF	UF	UF	UF	UF	UF	UF	UF	AP	UF	UF	31.1
일리노이	22,221	3.1	UF	UF	UF	UF	UF	UF	UF	UF	UF	FU	UF	19.6
인디애나	9,782	3.1	FU	FU	FU	FU	FU	AP	ECP	ECP	ECP	FU	UF	30.5
아이오와	6,019	3.6	UF	UF	UF	AP	AP	AP	AP	AP	AP	AP	AP	45.1
캔사스	5,988	4.2	FU	FR	FR	FR	FU	FU	ECP	ECP	AP	AP	FU	43.7
컨터키	6,455	3.5	AP	FR	FR	UF	UF	UF	UF	UF	UF	UF	UF	47.8
루지애나	10,401	4.1	FU	AP	AP	FU	FU	FU	ECP	ECP	ECP	FU	FU	48.7
메인	1,969	3.6	FU	FU	FU	FU	FU	FU	ECP	ECP	FU	FU	FU	31.6
메릴랜드	9,879	2.9	FU	FU	FU	FU	FU	AP	ECP	ECP	AP	AP	FU	40.7
매사츄세츠	12,631	2.8	FU	FU	FU	FU	FU	AP	ECP	ECP	AP	FU	FU	35.7
미시건	16,564	3.8	FU	FU	FU	FU	FU	FU	ECP	ECP	FU	FU	FU	36.0
미네소타	10,238	3.3	FU	FU	FU	FU	FU	AP	FU	FU	AP	FU	FU	41.6
미시시피	4,586	4.4	AP	AP	AP	AP	AP	AP	AP	AP	AP	AP	AP	86.7
미주리	9,843	3.6	UF	UF	UF	UF	UF	UF	UF	UF	FU	FU	UF	21.0
몬테나	2,098	4.8	FU	FU	FU	FU	FU	AP	FU	FU	FU	FU	FU	35.6
네브라스카	4,237	3.9	FU	FU	FU	FU	FU	FU	ECP	ECP	FU	AP	FU	33.4
네바다	4,051	3.1	AP	AP	AP	AP	AP	AP	ECP	ECP	FU	AP	AP	64.8
뉴햄프셔	2,132	3.1	FU	FU	FU	FU	FU	AP	ECP	ECP	AP	AP	FU	39.5
뉴저지	18,986	3.5	AP	AP	AP	AP	US	AP	UF	UF	AP	AP	UF	70.3
뉴멕시코	2,865	3.1	FU	FU	FU	FU	FU	AP	ECP	ECP	AP	AP	AP	40.2
뉴욕	40,188	3.1	AP	AP	AP	FU	FR	AP	FU	ECP	AP	AP	FU	70.4
노스캐롤라이나	13,231	2.8	FU	AP	AP	FU	FU	AP	FU	FU	AP	FU	FU	69.3
노다코타	2,919	5.2	FU	AP	AP	FU	FU	AP	FU	FU	FU	AP	AP	54.1
오하이오	16,026	2.8	FU	FU	FU	FU	AP	AP	AP	FU	FU	FU	AP	46.8

주별	보험료 (2013)	보험 밀도	보험종목별 요율규제 방법											요율규제 수준
			주택 종합	개인 자동차	상업 자동차	화재	계열 보험	건강 상해	상업 종합	해상 보험	배상 책임	종합 보험	농장 종합	
오클라호마	7,439	4.1	UF	UF	UF	UF	UF	UF	ECP	ECP	UF	AP	UF	18.0
오레건	5,668	2.6	FU	FU	FU	FU	FU	AP	FU	FU	AP	AP	FU	46.7
펜실바니아	21,588	3.3	FR	AP	AP	FR	FR	AP	ECP	ECP	AP	FR	FR	63.7
로드아일랜드	2,025	3.8	FU	FU	FU	FU	FU	AP	ECP	ECP	AP	AP	FU	38.2
스캐틀라니아	7,593	4.1	FU	FR	FR	FU	FU	AP	ECP	ECP	AP	AP	AP	48.6
사다코타	2,319	5.0	FU	FU	FU	FU	FU	FU	ECP	ECP	FU	FU	FU	33.5
테네시	9,956	3.5	FU	AP	AP	FU	FU	AP	ECP	ECP	AP	FU	AP	57.0
텍사스	44,533	2.9	FU	FU	FU	FU	FU	FU	ECP	ECP	FU	FU	FU	32.0
유타	3,648	2.6	UF	UF	UF	UF	UF	UF	UF	UF	FU	UF	UF	22.1
버몬트	1,382	4.7	UF	UF	UF	UF	UF	AP	ECP	ECP	AP	AP	UF	26.0
버지니아	11,682	2.6	AP	FU	FU	FU	FU	FU	ECP	ECP	AP	FU	FU	46.5
워싱턴	11,284	2.8	AP	AP	AP	AP	UF	AP	ECP	ECP	AP	AP	UF	68.7
W버지니아	2,832	3.8	AP	AP	AP	FU	FU	FU	FU	FU	FU	AP	AP	71.4
위스콘신	9,142	3.2	UF	UF	UF	UF	UF	UF	UF	UP	AP	UF	UF	32.5
와이오밍	1,258	2.8	NO	NO	NO	NO	AP	AP	AP	AP	AP	AP	AP	39.9

주: AP: 사전인가, FU: 신고제, UF: 보고제, FR: 범위요율, ECP: 대규모계약, NO: 자율제

자료: 주별 요율규제방법은 III(2015), NAIC(2014c), 건강보험은 <http://www.ncsl.org/research/health/health-insurance-rate-approval-disapproval.aspx> 참조하여 정리.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2006), 「보험심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이기형·이상우(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 보험감독체제 개편 논의와 전망」, 『주간이슈』, 제119호, 보험연구원.

조용운(2010), 「미국 금융감독체제 개편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주간이슈』, 제87호, 보험연구원.

安井敏晃(2010), 法律の適用・解釋における保険概念に役割, 『保険學雜誌』, 第609号.

後藤元(2010), 保険概念における不可欠な條件について, 『保険學雜誌』, 第609号.

Angelo Borselli(2010), “Insurance Rates Regulation in Comparison with Open Competition”, *Connecticut Insurance Law Journal*, Vol. 18, 1.

Baird Webel(2014), “Insurance Regulation: Issues, Background, and Legislation in the 113th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Arcy Stephen(2001), Insurance Price Deregulation: The Illinois Experience, Insurance Rate Regulation Conference Brookings Institution.

Eling Martin et.al.(2009),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 Comparison, Independent Policy Report: The Independent Institute.

EIOPA(2012), EU-U.S. Dialogue Project Technical Committee Reports: Comparing Certain Aspects of the Insurance Supervisory and Regulatory Regime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FIO(2013), How to Modernize and Improve the System of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O(2014), 2014 Annual Report on the Insurance Industry.

GAO(2006), Definition of Insurance and Related Information.

Gilbert Ojed et al.(2012), Health Insurance Premium Rate Review Regulation: Case Studies to Inform California, California Program on Access to Care School of Public Health,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Harrington(2013), Insurance Rate Regulation in the 20th Century.
- Hunter J. Robert et al.(2013), “What Works : A Review of Auto Insurance Rate Regulation in America and How Best Practices Save Billions of Dollars”,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5), “Regulation Modernization”.
- Insurance Regulatory Law(2011), “A Brief Chronicle of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Part II: From McCarran-Ferguson to Dodd-Frank(<http://www.insreglaw.com/2011/05/brief-chronicle-of-insurance-regulation.html>)”.
- IIPRC(2014), Annual Report(<http://www.insurancecompact.org/index.htm>).
- Justin L. Brady et.al.(1995), The Regulation of Insurance,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 Larry J. Bruning(2013), NAIC and Academy Update: Navigating the International and U.S. Regulatory Environment,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 Mckinsey & Company(2009), Improving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 NAIC(2014a), State Insurance Regulation: History, Purpose and structure.
- _____(2014b), 2011/2012 Auto Insurance Database Report.
- _____(2014c), Commercial Lines(EX) Working Group.
- _____(2010), 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e and policy Form Law Guideline 2010.
- _____(2000), Definition of Insurance Working White Paper.
-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2010), Analysis of Property/Casualty Insurance Rate Regulatory Laws.
- Regan Lauren et al.(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 Insurance Rate regulation and insured Loss Cost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NAIC.
- Sharon L. Tennyson(2007), “Efficiency Consequences of Rate Regulation in Insurance Markets”, Networks Financial Institute Policy Brief No. 2007-PB-03.
- Stephan P. D’Arcy(2001), Insurance Price Deregulation: The Illinois Experience, The Insurance Rate Regulation Conference Brookings Institution.

Todd Jerry D., Kueber Micheal A., O'Keefe Patrick(2000),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Insurance: Is it Changing?", *CPCU Journal*, Winter 2000.

미국의회도서관(<http://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senate-bill/534/text>)

주간보험상품규제위원회(<http://www.insurancecompact.org>)

미국주의회의원전국회의(<http://www.ncsl.org/research/health/health-insurance-rate-approval-disapproval.aspx>)

미국보험감독관협의회(http://www.naic.org/documents/topics_health_insurance_rate_regulation_brief.pdf)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5년 1/4분기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유로 지역과 일본의 경우 전분기보다 상승하였고, 미국의 경우 하락함. 한편, 신흥국 중 중국 경제성장률은 소폭 하락함.

■ 2015년 1/4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유로 지역과 일본의 경우 개선되었으나 미국과 중국은 둔화되며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됨.

- 1/4분기 미국 경제는 2014년 4/4분기보다 -0.2%(연율) 성장한 반면, 유로 지역의 경우 미약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며 전분기대비 1.5%(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기업 수익성 및 고용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와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확대 등으로 3.9%(연율)를 기록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생산 둔화와 수요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3%를 기록함.

〈표 1〉 세계경제성장률¹⁾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¹⁾	3.4	3.4	n.a.	n.a.	n.a.	n.a.	n.a.	n.a.	n.a.	n.a.
선진국 ¹⁾	1.4	1.8	n.a.	2.4		1.3		2.2		n.a.
신흥국 ¹⁾	5.0	4.6	n.a.	5.2		4.6		4.7		n.a.
미국 ²⁾	2.2	2.4	1.8	4.5	3.5	-2.1	4.6	5.0	2.2	-0.2
유로 ³⁾	-0.4	0.8	1.5	0.7	1.1	0.9	0.4	0.7	1.4	1.5
일본 ⁴⁾	1.6	-0.1	2.9	2.0	-0.9	4.4	-6.8	-2.0	1.2	3.9
중국 ⁵⁾	7.7	7.4	1.8	2.3	1.8	1.6	2.0	1.9	1.5	1.3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 유로 지역: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3) 국가별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5.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5. 6).

3) Eurostat(2015. 6).

4) 일본 내각부(2015. 6).

5) 중국 국가통계국(2015. 4).

■ 2015년 1/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2 하락한 99.6을 기록함.

○ 미국과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나 유로 지역과 일본의 경우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함.

- 1/4분기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내수 및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회복 부진으로 소폭 하락함.

- 1/4분기 유로 지역과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각각 2014년 4/4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00.6, 99.9를 기록함.

-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부동산 시장 및 투자 위축 지속 전망 등으로 2014년 4/4분기보다 0.6 하락한 98.0을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²⁾	100.0	100.0	100.0	100.1	100.2	100.1	100.0	99.9	99.8	99.6
선진국 ³⁾	100.1	100.3	99.9	100.2	100.4	100.4	100.4	100.3	100.3	100.2
미국	100.3	100.4	100.3	100.4	100.4	100.4	100.5	100.5	100.2	99.8
유로	99.6	100.5	99.3	99.8	100.4	100.6	100.5	100.4	100.4	100.6
일본	100.7	100.3	100.5	101.0	101.4	101.1	100.4	99.9	99.8	99.9
중국	100.5	99.2	100.5	100.5	100.3	99.9	99.4	99.0	98.6	98.0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5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하락하며 2014년 4/4분기보다 1.3%p 낮은 2.4%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2014년 4/4분기 3.1%에서 0.1%p 낮아진 3.0%를 나타내었고,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8%p 하락한 1.6%이었음.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3)}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2.7	3.3	1.9	3.0	4.0	3.1	2.8	3.7	3.7	2.4
선진국	0.5	2.4	0.0	0.5	2.5	2.3	1.8	2.2	3.1	3.0
신흥국	5.1	4.3	4.1	5.7	5.5	3.8	3.8	5.2	4.4	1.6

주: 1) 2014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3)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5년 1/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낮아진 2.6%를 기록하였고, 원자재가격은 미국 원유재고 증가로 낮아짐.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4/4분기 1.0%보다 0.5%p 하락한 0.5%를 기록한 반면, 신흥국의 경우는 동 기간 4.3%에서 4.6%로 0.3%p 높아짐.

○ 두바이 현물지수와 WTI 현물지수는 원유재고 증가 및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24.2%, 29.9% 하락하였고, CRB 상품지수¹⁾도 15.7% 하락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4				2015		2014				2015
	연간	2/4	3/4	4/4	1/4		연간	2/4	3/4	4/4	1/4
세계	3.5	3.1	2.7	2.7	2.6	두바이 현물지수	95.1	106.7	100.3	69.0	52.3
선진국	1.4	1.7	1.5	1.0	0.5	WTI 현물지수	91.6	102.6	95.1	69.2	48.5
신흥국	5.1	4.6	4.0	4.3	4.6	CRB 상품지수 ²⁾	288.1	308.0	291.3	261.4	220.3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한국은행; Bloomberg.

1)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그 상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함.

가. 미국경제

2015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달러화 강세, 일시적인 한파,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보다 2.4%p 하락한 -0.2%를 나타내며 2014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됨.

〈경제성장〉

■ 2015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달러화 강세, 일시적인 한파, 국제유가 하락, 서부항만 파업 등으로 2014년 4/4분기보다 2.4%p 하락한 -0.2%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일시적인 한파 및 달러화 강세,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2.3%p 하락한 2.1%를 기록함.
- 민간투자자의 경우 기업 수익성 둔화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 증가로 전분기대비 2.4% 증가함.
- 수출 증가율은 달러화 강세로 인해 전분기보다 10.4%p 하락한 -5.9%를 나타내었고 수입 증가율도 전분기보다 3.3%p 하락한 7.1%를 기록함.
- 1/4분기 정부지출의 경우 긴축적 재정정책이 완화되고 있으나 재정적자로 인한 지출 축소로 전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며 0.6% 감소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GDP	2.2	2.4	1.8	4.5	3.5	-2.1	4.6	5.0	2.2	-0.2
민간소비	2.4	2.5	1.8	2.0	3.7	1.2	2.5	3.2	4.4	2.1
재화	3.4	3.4	1.3	3.5	3.7	1.0	5.9	4.7	4.8	1.0
서비스	1.9	2.1	2.0	1.3	3.7	1.3	0.9	2.5	4.3	2.7
민간투자	4.9	5.8	6.9	16.8	3.8	-6.9	19.1	7.2	3.7	2.4
설비	3.0	6.3	1.6	5.5	10.4	1.6	9.7	8.9	4.7	-2.0
주택	11.9	1.6	19.0	11.2	-8.5	-5.3	8.8	3.2	3.8	6.5
수출	3.0	3.2	6.3	5.1	10.0	-9.2	11.1	4.5	4.5	-5.9
수입	1.1	4.0	8.5	0.6	1.3	2.2	11.3	-0.9	10.4	7.1
정부지출	-2.0	-0.2	0.2	0.2	-3.8	-0.8	1.7	4.4	-1.9	-0.6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5. 6),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내수부문〉

■ 2015년 1/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4년 4/4분기보다 1.5%p 하락한 -1.0%를 나타냄.

○ 소매판매 증가율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5년 4월과 5월에는 국제유가 반등에 따라 상승세를 보임.

○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보다 8.6 높아진 101.3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4월에는 낮아짐.

■ 2015년 1/4분기 주택경기의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신규주택착공이 줄어들었지만, 주택가격지수는 주택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함.

○ 1/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9.9%p 하락한 -7.3%를 나타내었으며 2015년 4월에는 22.1%로 상승하였다가 5월에는 -11.1%로 하락함.

○ 1/4분기 주택가격지수는 대도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주택수요 증가로 전분기보다 0.4% 상승한 173.8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3.9	3.8	0.8	0.7	0.6	2.3	0.8	0.5	-1.0	0.2	1.2
소비자신뢰지수 ²⁾	73.1	86.9	81.0	73.4	80.5	83.4	86.3	92.7	101.3	94.3	95.4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18.4	7.8	2.0	14.6	-7.7	5.4	4.6	2.6	-7.3	22.1	-11.1
주택가격지수 ⁴⁾	158.2	170.7	164.2	165.8	165.9	170.5	173.5	173.0	173.8	177.0	n.a.

주: 1)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5년 1/4분기 산업생산증가율, 설비가동률 및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²⁾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소폭 상승함.

○ 1/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2%p 하락한 -0.1%를 나타내었으며 2015년 4월과 5월에도 0%를 하회함.

- 설비가동률은 1/4분기 79.0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4월과 5월에도 둔화세가 지속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의 경우 1/4분기에는 전분기에 비해 하락한 52.6을 나타내었고 4월에도 낮아졌으나 5월에는 소폭 상승함.

○ 경기선행지수는 소비자신뢰지수 상승의 영향으로 1/4분기 121.2를, 4월 122.3을, 5월 123.1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2.9	4.2	0.6	1.2	1.0	1.4	1.0	1.1	-0.1	-0.5	-0.2
설비가동률 ²⁾	77.6	78.5	77.9	78.4	78.6	79.1	79.3	79.5	79.0	78.3	78.0
ISM제조업PMI	53.8	55.7	55.2	56.0	53.5	55.5	56.9	56.9	52.6	51.5	52.8
경기선행지수 ³⁾	111.1	117.5	111.6	113.5	114.5	116.5	118.7	120.5	121.2	122.3	123.1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값의 증가율.

2) 2007=100

3) 2004=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2)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과 물가〉

■ 2015년 1/4분기 취업자 수 증가세는 저유가, 달러화 강세, 기상여건 악화³⁾ 등으로 인해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실업률은 소폭 하락세를 보임.

○ 전분기대비 비농업 취업자 증감은 1/4분기 58만 6,000명으로 전분기보다 38만 7,000명 감소하였으며,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1/4분기 29만 3,000명으로 전분기보다 4,000명 증가함.

- 2015년 4월과 5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일시적인 한파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각각 전월대비 20만 명 이상이 증가하며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임.

○ 1/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5.6%를 기록하였고, 2015년 4월과 5월에도 5%대를 유지함.

- 포괄적 실업률도 2015년 1/4분기에는 11.1%, 2015년 4월과 5월에는 각각 10.8%를 기록함.

■ 2015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1.4%p 하락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4.0%p 하락함.

○ 2015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0.1%를 나타내었고, 4월에는 -0.2%를 기록함.

- 1/4분기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7% 상승하였고, 2015년 4월과 5월에는 각각 1.8%, 1.7% 상승함.

○ 원유 재고 증가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3.2%, 2015년 4월 -4.4%, 5월 -3.0%를 나타냄.

-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1.7%를 나타내었고, 2015년 4월과 5월 각각 2.0%를 기록함.

3) BoA 메릴린치는 기상여건에 민감한 건설업, 광업, 제조업 등 생산 업종과 레저를 비롯하여 금융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 일자리가 축소된 걸로 보아 일시적인 영향일 것으로 예측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물가 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¹⁾ (%)	7.4	6.2	7.2	7.0	6.6	6.2	6.1	5.7	5.6	5.4	5.5
포괄적 실업률(u-6) ²⁾ (%)	13.8	12.0	13.7	13.3	12.6	12.1	12.0	11.4	11.1	10.8	10.8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238.8	311.6	57.0	65.1	57.9	85.2	71.2	97.3	58.6	22.1	28.0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34.4	30.8	33.1	34.3	33.0	31.5	30.0	28.9	29.3	28.4	27.5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5	1.6	1.6	1.2	1.4	2.1	1.8	1.3	-0.1	-0.2	0.0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8	1.8	1.7	1.7	1.6	1.9	1.8	1.7	1.7	1.8	1.7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3	1.9	1.2	0.8	1.6	2.8	2.5	0.8	-3.2	-4.4	-3.0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5	1.9	1.2	1.4	1.9	1.8	2.0	2.0	1.7	2.0	2.0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분기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나. 유로경제⁴⁾

2015년 1/4분기 유로 지역 경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독일 및 영국 경기 둔화로 2014년 4/4분기와 동일한 성장률을 보임.

〈경제성장〉

■ 2015년 1/4분기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회복세를 나타내었지만, 독일과 영국의 경우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2014년 4/4분기와 동일한 0.4%를 기록함(〈표 9〉와 〈표 12〉 참조).

○ 1/4분기 유럽 주요 5개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각각 전분기보다 0.5%p, 0.3%p, 0.2%p 상승한 반면, 독일과 영국은 전분기대비 각각 0.4%p, 0.3%p 하락함.

4) 2015년 여름호부터 2015년 1월 2일 신규 가입한 리투아니아를 포함하여 유로화 사용 19개국(EA19)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됨.

-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나,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전분기보다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5%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의 경우 스페인을 제외한 주요 유로 지역의 고정자본투자 증가로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0.8%를 기록하였고 정부지출 증가율도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0.6%를 기록함.
- 1/4분기 유로 지역 수출 증가율은 스페인을 제외한 주요 유로 지역의 수출 감소로 전분기보다 0.2%p 낮아진 0.6%를 기록하였지만,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1.2%를 기록함.

〈표 9〉 유로 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EA19 GDP	-0.4	0.8	0.4 (1.5)	0.2 (0.7)	0.3 (1.1)	0.2 (0.9)	0.1 (0.4)	0.2 (0.7)	0.4 (1.4)	0.4 (1.5)
민간소비	-0.6	1.0	0.2	0.2	0.0	0.3	0.3	0.5	0.4	0.5
고정자본투자	-2.4	1.2	0.8	0.7	0.5	0.5	-0.5	0.1	0.4	0.8
정부지출	0.2	0.6	0.1	0.2	0.1	0.2	0.2	0.2	0.1	0.6
수출	2.0	3.8	1.6	0.5	0.8	0.5	1.3	1.4	0.8	0.6
수입	1.3	4.1	1.4	1.6	0.2	0.7	1.3	1.7	0.8	1.2

주: 전분기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5, 6).

〈생산 및 내수부문〉

■ 2015년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7%를 나타내었으며 2015년 4월에도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 1/4분기 유로 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2.6으로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며, 2015년 4월과 5월에는 각각 103.8을 나타내었음.
- 유로 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 -6.3을 나타내며 둔화폭이 축소되었으며, 2015년 4월 -4.6을, 5월 -5.6을 기록함.

- 2015년 1/4분기 유로 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의 경우 2014년 4/4분기보다 0.5%p 상승한 0.9%를 기록하였고 2015년 4월에는 0.1%를 나타냄.

〈표 10〉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유로 지역 ESI ¹⁾	93.8	101.6	95.5	99.5	101.8	102.5	101.2	100.8	102.6	103.8	103.8
소매판매 증가율 ²⁾ (%)	-0.8	1.3	0.6	-0.4	0.6	0.5	0.2	0.8	0.7	0.7	n.a.
소비자신뢰지수 ³⁾	-18.7	-10.1	-15.9	-14.5	-11.3	-7.9	-10.0	-11.3	-6.3	-4.6	-5.6
산업생산 증가율 ⁴⁾ (%)	-0.7	0.8	0.0	0.6	0.1	0.2	-0.2	0.4	0.9	0.1	n.a.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년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비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과 물가〉

- 2015년 1/4분기 북유럽을 제외한 모든 주요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1/4분기 실업률은 2014년 4/4분기보다 0.1%p 하락한 6.9%를 기록하였으나, 북유럽의 경우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6.8%를 나타냄.
 - 1/4분기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8.7%를 기록하였으며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8.7%를 기록함.
- 2015년 1/4분기 모든 주요 유럽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자재 가격 약세와 역대 수요 둔화 등으로 하락함.
- 1/4분기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4/4분기보다 0.7%p 하락한 -0.1%를 기록하였으며, 북유럽의 경우도 전분기보다 0.3%p 하락한 0.6%를 나타냄.
 - 또한, 1/4분기 동유럽과 남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분기보다 각각 0.6%p, 0.3%p 하락한 -0.5% -0.9%를 나타냄.

〈표 1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4년 3/4	7.1	6.7	9.1	19.2	0.9	1.0	0.3	-0.4
2014년 4/4	7.0	6.7	8.8	19.0	0.6	0.9	0.1	-0.6
2015년 1/4	6.9	6.8	8.7	18.7	-0.1	0.6	-0.5	-0.9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4, 6).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독일 GDP	0.1	1.6	0.8	0.3	0.4	0.8	-0.1	0.1	0.7	0.3
민간소비	0.8	1.1	0.8	0.6	-0.8	0.8	0.0	0.7	0.7	0.6
고정자본투자	-0.6	3.3	2.4	0.8	1.2	3.0	-1.7	-1.2	0.8	1.5
수출	1.6	3.8	1.4	0.3	1.8	0.1	1.0	1.5	1.0	0.8
수입	3.1	3.5	1.5	1.8	0.7	0.2	0.7	0.8	1.9	1.5
프랑스 GDP	0.7	0.2	0.8	-0.1	0.2	-0.2	-0.1	0.2	0.1	0.6
민간소비	0.4	0.6	0.3	0.0	0.5	-0.4	0.4	0.4	0.2	0.9
고정자본투자	-0.6	-1.2	0.4	0.1	0.1	-0.7	-0.5	-0.5	-0.4	-0.1
수출	1.7	2.4	2.6	-1.2	0.8	0.4	0.1	0.9	2.8	1.1
수입	1.7	3.8	1.9	1.0	0.2	0.6	1.0	1.8	1.8	2.6
이탈리아 GDP	-1.7	-0.4	0.0	0.1	0.0	-0.2	-0.1	-0.1	0.0	0.3
민간소비	-2.8	0.3	-0.5	0.1	0.1	0.2	0.1	0.2	0.1	-0.1
고정자본투자	-5.8	-3.3	0.3	0.2	-0.8	-2.1	-0.6	-0.7	0.2	1.5
수출	0.5	2.6	0.1	1.3	-0.3	0.3	1.3	0.4	1.8	0.0
수입	-2.3	1.8	-1.2	2.2	-0.3	-0.3	1.2	0.8	0.5	1.4
스페인 GDP	-1.2	1.4	-0.1	0.1	0.3	0.3	0.5	0.5	0.7	0.9
민간소비	-2.3	2.4	0.0	0.4	0.3	0.6	1.0	0.8	0.9	0.7
고정자본투자	-3.8	3.4	-1.0	1.2	0.2	0.4	2.0	1.1	1.4	1.3
수출	4.3	4.2	6.1	0.5	-0.2	0.1	0.7	3.9	0.0	1.0
수입	-0.5	7.6	6.5	1.4	0.2	1.1	2.1	5.0	-0.6	0.8
영국 GDP	1.7	2.8	0.6	0.7	0.4	0.9	0.8	0.6	0.6	0.3
민간소비	1.7	2.5	0.4	0.5	0.3	0.8	0.5	1.0	0.4	0.6
고정자본투자	3.4	7.8	0.6	2.7	2.3	3.2	0.7	1.7	-0.6	1.5
수출	1.5	0.6	4.6	-3.4	-1.3	1.7	-0.7	-0.1	4.6	-0.3
수입	1.4	2.2	3.8	1.9	-1.4	1.2	-1.2	1.4	1.6	2.3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 Bloomberg.

다. 일본경제

2015년 1/4분기 일본 경제는 설비 및 주택투자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소폭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이어짐.

〈경제성장〉

■ 2015년 1/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기업 수익성 및 고용 개선에 따른 설비 및 주택투자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0.7%p 상승한 1.0%를 기록함.

-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유가하락 및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및 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상쇄되며, 2014년 4/4분기와 동일한 0.4%를 기록함.
- 1/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엔화 약세로 인한 기업실적 호조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2014년 4/4분기보다 2.4%p 상승한 2.7%를 기록함.
- 주택투자 증가율은 소비세율 인상 전 선투자에 따른 반작용으로 2014년 2/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2015년 1/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2.3%p 상승한 1.7%를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1/4분기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며, 공공투자는 FY2013 추경 예산의 조기집행 이후 투자 여력 감소로 전분기대비 1.5% 감소함.
- 1/4분기 수출 증가율의 경우 對미국과 對동남아 수출은 양호하였으나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對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전분기보다 0.8%p 하락한 2.4%를 기록함.
- 1/4분기 수입 증가율은 설비 및 주택투자 증가 등으로 전분기보다 1.5%p 상승한 2.9%를 기록함.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1.6	-0.1	0.7 (2.9)	0.5 (2.0)	-0.2 (-0.9)	1.1 (4.4)	-1.7 (-6.8)	-0.5 (-2.0)	0.3 (1.2)	1.0 (3.9)
민간소비	2.1	-1.3	0.9	0.3	-0.2	2.1	-5.1	0.4	0.4	0.4
설비투자	0.4	3.9	2.6	0.8	1.5	5.1	-4.8	0.1	0.3	2.7
주택투자	8.8	-5.1	1.5	4.6	2.9	2.0	-10.8	-6.4	-0.6	1.7
정부지출	1.9	0.2	0.6	-0.1	0.0	-0.3	0.3	0.2	0.3	0.1
공공투자	8.0	3.8	2.9	5.1	0.1	-0.9	0.7	1.6	0.1	-1.5
수출	1.2	8.4	3.0	-0.4	0.1	6.1	0.0	1.6	3.2	2.4
수입	3.1	7.4	2.4	1.8	3.1	6.6	-5.2	1.1	1.4	2.9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5. 6).

〈생산 및 내수부문〉

■ 2015년 1/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내수 및 수출 둔화로 인해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6%를 기록함.

○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로 인한 총수출 부진으로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2015년 4월 1.2%, 5월 -2.2%를 나타내며 하락세가 지속됨.

■ 2015년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40.7을 나타내었고, 2015년 4월과 5월 각각 41.5, 41.4를 기록함.

○ 2015년 1/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4년 4/4분기보다 3.1%p 하락한 -2.1%를 나타내었으나, 2015년 4월에는 0.3%를 기록함.

■ 2015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주택투자가 증가하며 전분기에 비해 8.4%p 높아진 -5.4%를 나타내었고 2015년 4월에는 0.4%를 기록함.

○ 1/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주택투자 증가로 전분기대비 6.3% 증가하였으며 2015년 4월에는 3.8% 증가함.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0.6	2.1	1.7	1.8	3.0	-3.8	-1.9	1.7	1.6	1.2	-2.2
소매판매 증가율 ²⁾ (%)	1.0	1.7	0.3	1.4	3.8	-7.1	3.8	1.0	-2.1	0.3	n.a.
소비자신뢰지수 ³⁾	43.6	39.3	43.7	42.1	39.0	38.9	40.5	38.9	40.7	41.5	41.4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11.0	-9.0	13.5	12.9	3.4	-9.3	-13.6	-13.8	-5.4	0.4	n.a.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5.8	4.0	1.6	4.9	1.2	-7.7	3.8	0.7	6.3	3.8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전분기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2015년 1/4분기 실업률은 4/4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유효구인배율⁵⁾은 소폭 상승하며 고용시장은 미미한 회복세를 보임.

○ 2015년 1/4분기 실업률은 3.5%를 기록하였고 4월과 5월에는 각각 3.3%로 소폭 하락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1/4분기 1.15를 기록하였고, 2015년 4월과 5월 각각 1.17, 1.19를 나타내며 고용시장이 소폭 회복세를 보임.

■ 2015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재고 증가로 인한 원유가격 하락 및 소비세율 인상효과 소멸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함.

○ 2015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2.3%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4월 0.6%, 5월 0.5%로 하락세가 지속됨.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1/4분기에는 전분기와 동일한 2.1%였으며, 4월과 5월에 각각 0.4%를 기록함.

5)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구직자 수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4.0	3.6	4.0	3.9	3.6	3.6	3.6	3.5	3.5	3.3	3.3
유효구인배율 ¹⁾ (배)	0.93	1.09	0.95	1.00	1.05	1.09	1.10	1.12	1.15	1.17	1.19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4	2.7	0.9	1.4	1.5	3.6	3.3	2.6	2.3	0.6	0.5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2	1.9	-0.1	0.5	0.7	2.3	2.3	2.1	2.1	0.4	0.4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2) 2010=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라. 중국경제

2015년 1/4분기 중국 경제는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7.0% 성장하는데 그침.

〈경제성장〉

■ 2015년 1/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전분기대비)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며 2014년 4/4분기보다 0.2%p 하락한 1.3%를 기록함.

○ 1/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에 이어 부동산 개발과 과잉생산 억제 정책 영향에 따른 제조업 위축으로 전분기 증가율보다 2.1%p 하락한 13.7% 증가함.

○ 1/4분기 수출 증가율의 경우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3%p 상승한 10.0%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4월에는 -6.4%를, 5월에는 -2.5%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對아세안과 對미국 수출이 전분기대비 각각 38.2%, 21.0% 증가하였으며, 對유로 지역 수출도 12.6% 증가함.⁶⁾

- 반면, 대외수요 둔화와 요소가격 상승 등 내부요인이 결합된 구조적 원인으로 인하여 2015년 4월 이후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⁷⁾

○ 1/4분기 수입의 경우 수요 감소 및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전분기보다 하락한 17.6% 감소하였으며, 2015년 4월 -16.2%, 5월 -17.6%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됨.

6) 국제금융센터(2015. 3. 12).

7) 국제금융센터(2015. 5. 13).

〈표 1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질 GDP ¹⁾	7.7	7.4	2.3 (7.9)	1.8 (7.6)	1.6 (7.4)	2.0 (7.5)	1.9 (7.3)	1.5 (7.3)	1.3 (7.0)	n.a.	n.a.
고정자산투자 ²⁾	20.3	16.8	20.2	19.9	17.8	17.3	16.5	15.8	13.7	12.0	11.4
수출 증가율 ³⁾	8.6	4.8	4.0	7.5	-6.6	4.2	12.8	8.7	10.0	-6.4	-2.5
수입 증가율 ³⁾	7.6	0.0	8.5	7.1	-0.1	0.8	0.7	-1.5	-17.6	-16.2	-17.6

주: 1) 전분기대비,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내수부문〉

■ 2015년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반부패 정책 및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 부진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함.

○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반부패 정책 영향에 따른 보석류 및 기업요식비, 석유류 판매 부진으로 전분기보다 1.5%p 하락한 10.2%를 기록함.⁸⁾

○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07.5를 기록하였고 2015년 4월 107.6으로 상승세가 지속됨.

〈표 17〉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3.2	12.0	13.3	13.5	12.2	12.3	11.9	11.7	10.2	10.0	10.1
소비자신뢰지수	101.2	104.4	98.3	101.4	104.0	103.9	104.5	104.9	107.5	107.6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8) 국제금융센터(2015. 3. 12).

〈생산부문〉

■ 2015년 1/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로 인해 2014년 4/4분기에 비해 하락하였고 구매자관리지수도 소폭 하락함.

○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0%p 하락한 5.6%를 기록함.

○ 1/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49.9를 나타내었으며, 2015년 4월 50.1, 5월 50.2를 기록함.

〈표 18〉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9.7	8.2	10.1	10.0	8.8	8.9	8.0	7.6	5.6	5.9	6.1
구매자관리지수 ²⁾	50.8	50.7	50.8	51.3	50.3	50.7	51.3	50.4	49.9	50.1	50.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의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물가〉

■ 2015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2015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4/4분기보다 0.3%p 낮아진 1.2%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4월 1.5%, 5월 1.2%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4.6%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4월과 5월에도 동일한 수치를 유지함.

〈표 19〉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3	2014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6	2.0	2.8	2.9	2.3	2.2	2.0	1.5	1.2	1.5	1.2
생산자물가 상승률(%)	-1.9	-1.9	-1.7	-1.4	-2.0	-1.5	-1.3	-2.7	-4.6	-4.6	-4.6

주: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2. 국내경제

2015년 1/4분기 국내경제는 투자부진 완화에도 민간소비 부진과 상품수출 감소로 성장을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경제성장〉

■ 201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회복 지연, 재화수출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2.5%에 그침.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소비심리 둔화⁹⁾가 지속된 가운데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1.5% 증가하는데 그침.
- 설비투자는 5.8% 늘어나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며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경기 개선에 따른 미분양주택 물량 해소 등으로 0.6% 증가하여 전분기의 부진에서 소폭 회복함.
- 지식생산물투자는 IT 제조업 및 자동차업체의 수익성 하락과 이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1.7% 증가하는데 그침.
- 재화수출은 對중국 수출 감소세 지속, 엔저 영향의 본격화, 세계 교역량 둔화¹⁰⁾ 등으로 0.9% 감소하였으며 재화수입은 내수부진 지속으로 0.1% 증가하는데 그침.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 GDP	2.7 (1.0)	3.2 (0.9)	3.5 (0.9)	2.9	3.9 (1.1)	3.4 (0.5)	3.3 (0.8)	2.7 (0.3)	3.3	2.5 (0.8)
민간소비	1.9	1.9	2.2	1.9	2.6	1.7	1.5	1.4	1.8	1.5
설비투자	-3.2	2.3	11.6	-0.8	7.2	7.7	4.2	4.2	5.8	5.8
건설투자	9.0	7.4	3.5	5.5	4.1	0.2	2.3	-1.4	1.0	0.6
지식생산물투자	4.2	2.1	6.7	4.4	7.2	5.7	4.9	1.1	4.6	1.7
재화수출(F. O. B)	6.3	2.3	3.1	4.5	3.8	3.6	1.6	0.5	2.3	-0.9
재화수입	0.7	0.7	5.2	1.3	3.1	1.3	1.4	-0.7	1.2	0.1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9) 소비심리 지수(CSI, 분기 중 평균): 2014년 1/4분기 108.3 → 2/4분기 106.3 → 3/4분기 106.0 → 4/4분기 103.0 → 2015년 1/4분기 102.0

10) 세계 교역량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4년 1/4분기 3.1 → 2/4분기 2.8 → 3/4분기 3.7 → 4/4분기 3.7 → 2015년 1/4분기 2.4

〈산업생산·경기〉

■ 2015년 1/4분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 감소세가 소폭 완화되고 서비스업 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1.0% 증가하였으나 4월과 5월 광공업생산 부진 심화로 전산업생산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음.

○ 2015년 1/4분기 광공업생산은 수출 감소, 글로벌 기업 간 경쟁 심화 및 현지생산 확대 등에 따른 ICT 생산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9% 줄어들었음.

- 4월과 5월 광공업생산은 각각 2.6%, 2.8%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출 감소세에 따른 자동차 및 전자제품 재고 증가로 제조업 생산 부진이 심화되었기 때문임.

○ 2015년 1/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2.8% 늘어남.

- 4월 서비스업 생산은 자산시장 개선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생산 확대와 전년 동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함.

- 5월 서비스업 생산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변경¹¹⁾ 및 메르스 관련 불안심리 확산 등으로 2.4% 증가하는데 그침.

〈표 21〉 생산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전산업생산 ³⁾	1.7	1.7	0.9	1.7	0.6	1.3	1.0	0.7	0.2
광공업	0.7	0.7	0.5	1.2	-1.9	0.0	-0.9	-2.6	-2.8
제조업	0.7	0.7	0.4	1.2	-1.9	0.1	-1.0	-2.7	-2.8
자동차	1.4	7.6	3.6	2.0	-3.1	2.4	-4.2	-1.1	-1.2
ICT	3.6	-1.5	1.6	-1.2	-6.0	-1.8	-1.4	-3.4	1.1
서비스업	1.5	2.0	1.5	2.6	2.6	2.2	2.8	4.0	2.4
도매 및 소매업	1.5	2.0	1.5	2.6	2.6	2.2	0.3	3.6	0.6
운수업	0.1	0.3	-0.3	0.0	-0.6	-0.2	4.3	1.5	2.8
숙박 및 음식점업	1.0	-0.2	0.0	1.9	4.7	1.7	-0.6	1.5	0.2
금융 및 보험업	0.5	2.1	0.7	2.1	-0.1	1.2	9.5	11.8	8.8
부동산 및 임대업	0.5	1.5	3.5	6.4	9.0	5.2	5.9	7.9	7.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11)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말에서 6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세무·회계 등 전문 서비스업이 3.2%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전문서비스업의 서비스업 기여도가 0.2%p 하락함(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6. 30)).

■ 2015년 1/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 생산 및 소매판매 부진 등으로 기준치(100) 수준에 정체되어 있음.

○ 1/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 지수 및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이 상승하면서 전분기대비 1.8 상승한 103.1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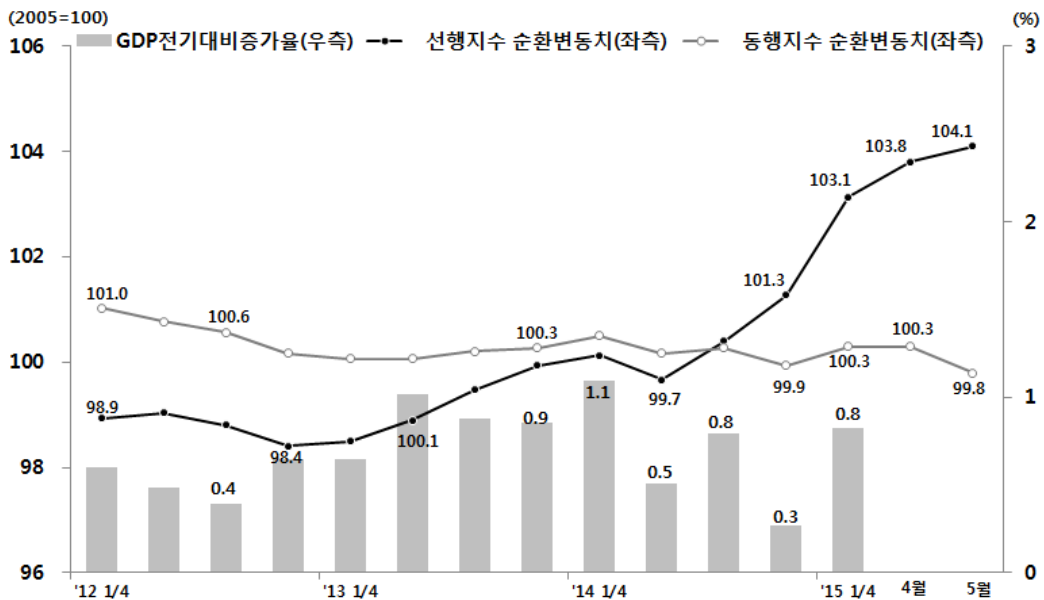
- 4월과 5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지수와 건설수주 증가세로 각각 103.8, 104.1을 기록함.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광공업생산 부진 완화로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100.3을 나타냄.

- 2015년 4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 부진 완화에도 수입과 건설기성액 감소로 100.3을 나타냄.

- 5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산업생산 부진 지속에 따른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전월대비 감소로 전월대비 0.5 하락한 99.8을 기록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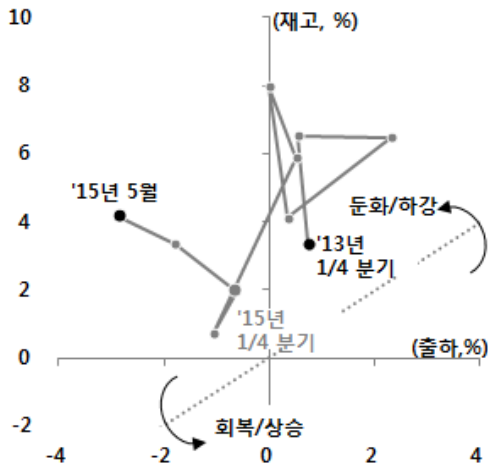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출하는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였고 재고는 전분기대비 1.3%p 상승한 2.0% 증가에 그쳐 제조업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고/출하비율의 경우 재고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분기대비 2.4%p 상승한 122.2%를 기록함.¹²⁾

○ 4월 출하가 1.8% 감소한 반면 재고는 3.4% 증가하면서 제조업 경기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고/출하비율은 127.2%를 나타냄.

○ 5월 출하는 2.8%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4.2% 증가하여 제조업 경기의 둔화/하강국면이 깊어지고 있으며 재고/출하비율도 전월대비 0.1%p 상승한 127.3%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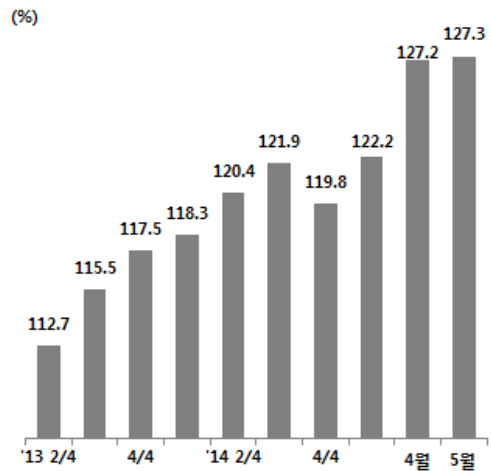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 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재고율)¹⁾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text{계절조정재고지수} \div \text{계절조정출하지수}) \times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2) 2015년 1월~2015년 5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내수부문〉

■ 2015년 1/4분기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판매 감소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6%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4월과 5월 각각 4.9%, 3.5%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가 원인임.

○ 2015년 1/4분기 내구재 판매는 승용차판매 둔화에도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 기저효과로 각각 13.2%, 7.5% 증가하였음.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¹³⁾ 등으로 2015년 1/4분기 1.6% 감소하였으나 4월과 5월 각각 1.7%, 3.9%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상반기에 지속되었던 준내구재 판매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임.

○ 2015년 1/4분기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소득공제 환급금 축소, 담배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0.4% 감소하였으나 4월 2.0% 증가함.

- 그러나 5월 비내구재 소비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월대비 0.1%p 하락한 1.0% 증가에 그침.

〈표 22〉 소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민간소비	1.9	2.6	1.7	1.5	1.4	1.8	1.5	-	-
소매판매	0.7	2.4	0.8	1.5	1.9	1.7	1.6	4.9	3.5
내구재	0.3	5.6	2.5	5.7	6.9	5.1	8.0	13.2	7.5
* 승용차	2.1	14.1	15.6	15.2	21.3	16.6	17.4	13.0	15.7
준내구재	2.1	-1.8	-2.2	1.4	0.4	-0.6	-1.6	1.7	3.9
비내구재	0.4	2.6	1.4	-0.5	-0.1	0.8	-0.4	2.0	1.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3) 2015년 1월 평균 기온은 0.5℃로 2001~2010년 평균 -0.6℃ 및 2011~2014년 평균 -1.9℃보다 온난하여 의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함(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3. 2)).

■ 2015년 1/4분기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고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는 감소세가 완화되었으며 4월과 5월에는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국내기계수주는 2014년 2/4분기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로 증가 전환하였음.

○ 설비투자지수의 경우 기계류 투자 확대에 전분기대비 3.0%p 높아진 8.4% 상승함.

- 그러나 4월 설비투자지수는 2.6%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운송장비 투자가 2014년 2/4분기 14.4% 증가하였던데 대한 기저효과로 5.4% 감소하였기 때문임.

- 5월 제조업 생산 둔화 확대에 기계류 설비투자가 5.2% 감소하면서 설비투자지수는 0.8% 상승하는데 그침.

○ 국내기계수주는 2014년 1/4분기 18.5% 증가하였던데 대한 기저효과로 2.6% 감소하였으나 4월과 5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각각 22.2%, 15.1% 증가하였음.

〈표 23〉 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설비투자	-0.8	7.2	7.7	4.2	4.2	5.8	5.8	-	-
설비투자지수	-0.8	7.5	6.7	1.5	5.4	5.0	8.4	2.6	0.8
기계류	-2.1	7.3	3.9	-0.9	5.4	3.9	11.0	5.9	-5.2
운송장비	2.8	7.8	14.4	7.8	5.5	8.0	2.1	-5.4	15.5
국내기계수주 ³⁾	6.6	18.5	4.0	49.4	-6.3	13.3	-2.6	22.2	15.1
건설투자	5.5	4.1	0.2	2.3	-1.4	1.0	0.6	-	-
건설기성(불변)	10.2	6.6	0.1	-1.9	-5.9	7.8	-2.0	-8.4	-4.9
건축	15.1	17.2	11.9	5.9	-0.9	-16.3	-0.4	-8.9	-2.9
토목	4.4	-7.4	-15.4	-13.2	-12.4	0.0	-4.6	-7.5	-8.7
국내건설수주(경상)	-12.9	15.5	25.4	42.8	-7.5	21.5	55.4	20.6	84.5
건축	-10.2	11.2	45.6	61.8	-5.0	-33.1	87.7	34.1	97.8
토목	-18.2	24.0	-11.5	-6.2	-13.1	0.0	-1.5	-7.1	27.8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단,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경우 2013년, 2014년 모두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5년 1/4분기 건설투자는 SOC 예산 조기집행 및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0.6% 증가하였음.

- 1/4분기 건설기성은 주택경기 개선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2014년 3/4분기 이후 지속되었던 감소세가 완화되어 전년동기대비 2.0% 줄어드는데 그침.
- 그러나 4월 건설기성은 공공청사 이전 마무리에 따른 건축 및 토목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8.4% 줄어들었으며 5월에도 4.9% 감소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주택경기 회복세 및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른 건설수주 확대로 민간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55.4% 증가함.
- 4월 건축부문 증가세 둔화와 토목부문 감소세 확대로 20.6% 증가하였으나 5월 건축부문과 토목부문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84.5% 늘어남.

〈고용〉

■ 2015년 1/4분기 고용시장은 지난 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데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총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고용률도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음.

- 총취업자 수는 최근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데 대한 기저효과와 산업생산 부진 지속 등으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4% 증가하는데 그침.
-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2015년 1/4분기 계절적 요인으로 전분기대비 0.7%p 감소한 0.8% 증가하였으나 4월과 5월 각각 2.2%, 3.0% 늘어남.
-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4%p 하락한 59.0%를 나타냈으나 4월과 5월 각각 60.3%, 60.9%로 회복하였음.
- 2015년 1/4분기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증가세¹⁴⁾가 취업자 증가율을 상회하여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4.1%를 기록하였으며 4월 3.9%, 5월 3.8%를 나타내는 등 2014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4분기 청년실업률의 경우 방학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전분기대비 2.0%p 상승한 10.3%를 나타냈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10.2%, 9.3%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지속함.¹⁵⁾

14)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14년 1/4분기 3.4% → 2/4분기 2.4% → 3/4분기 2.4% → 4/4분기 2.1% → 2015년 1/4분기 1.6%

〈표 27〉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총취업자 ¹⁾	1.6	3.0	1.8	2.0	1.7	2.1	1.4	0.8	1.5
청년취업자 ¹⁾	-1.3	2.6	1.4	2.7	1.5	2.0	0.8	2.2	3.0
고용률 ²⁾	59.5	58.8	60.8	60.9	60.4	60.2	59.0	60.3	60.9
실업률 ³⁾	3.1	4.0	3.7	3.3	3.2	3.5	4.1	3.9	3.8
청년 ⁴⁾ 실업률 ³⁾	8.0	9.8	9.4	8.6	8.3	9.0	10.3	10.2	9.3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0.5	1.0	-3.3	-7.0	-7.2	-4.5	-7.4	-8.6	-7.4
광공업	1.9	2.9	3.2	4.6	2.9	3.4	3.1	3.8	3.2
제조업	1.9	3.0	3.3	4.7	3.0	3.5	3.2	3.9	3.2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1.6	3.2	2.0	2.3	2.1	2.4	1.6	0.9	1.8
건설업	-1.1	1.6	0.7	3.3	4.0	2.4	4.3	3.5	2.3
도·소매, 음식, 숙박	0.6	5.5	3.8	4.9	4.2	4.6	2.5	1.2	3.1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1	1.9	-0.5	-2.5	-1.3	-0.6	-0.9	-0.4	0.1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7	2.4	1.9	2.1	1.5	2.0	1.3	0.7	1.5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5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고령화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광공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소폭 확대된 반면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건설업을 제외한 주요 업종에서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7.4% 줄어들었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8.6%, 7.4% 감소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¹⁶⁾는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3.1% 증가하였으며 4월 3.8%, 5월 3.2% 늘어났음.

15)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70%대의 대학 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직적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으로 청년취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3. 18)). 또한 금융·보험·교육서비스업 등 고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대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토론회(2015. 6. 22)).

16) 제조업 포함.

- 1/4분기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을 제외한 주요업종의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로 전분기보다 0.5%p 하락한 1.6% 늘어나는데 그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1/4분기 건설수주 증가세와 2013~2014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4.3% 증가하였으나 4월과 5월 각각 3.5%, 2.3%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의 경우 내수 부진과 계절적 요인으로 전분기보다 1.7%p 하락한 2.5%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1.2%, 3.1% 늘어남.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취업자 수의 경우 2015년 1/4분기와 4월 각각 0.9%, 0.4%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5월 전년동월대비 0.1% 증가로 전환하였음.
- 2015년 1/4분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1.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4월에도 0.7% 늘어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5월 1.5% 늘어남.

〈대외거래〉

- 2015년 1/4분기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한 1,334억 5,479만 달러, 수입은 유가하락 및 원화강세 등으로 11.1% 줄어든 1,117억 9,545만 달러를 시현하였고 무역수지는 216억 5,934만 달러 흑자를 달성함.
- 수출의 경우, 중화학 공업품(+1.8%)을 제외한 식료 및 직접소비재(-3.3%), 원료 및 연료(-36.0%), 경공업 제품(-5.2%)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음.
- 4월과 5월 수출은 유가 등 수출단가 하락, 세계 교역 둔화¹⁷⁾ 등이 지속되면서 각각 8.0%, 10.9% 감소하였음.
- 수입의 경우,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8.1%)와 연초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6.9%)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원유 및 철강, 석탄 등의 단가 하락으로 원자재(-29.4%)는 큰 폭으로 감소함.
- 2015년 4월과 5월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 감소로 각각 17.8%, 15.4% 줄어들었음.

17) WTO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중 세계 주요 70개국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3.0% 감소하였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5. 6. 1)).

〈표 24〉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1.7	4.8	4.5	9.4	-2.2	3.9	-3.3	7.3	-5.0
	원료 및 연료	-6.5	-7.5	2.9	3.3	-10.9	-3.2	-36.0	-37.0	-33.5
	경공업 제품	-3.6	-2.6	-0.4	-0.1	-0.9	-1.0	-5.2	-8.7	-12.4
	중화학 공업품	4.0	3.4	3.5	3.9	2.6	3.3	1.8	-4.5	-7.8
	전체	2.1	1.6	3.2	3.6	0.9	2.3	-3.0	-8.0	-10.9
	금액(억 달러)	5,596	1,375	1,457	1,418	1,477	5,727	1,335	462	424
수입	소비재	7.5	9.7	12.8	19.0	7.4	12.1	8.1	-0.9	2.1
	원자재	-3.7	0.8	0.9	4.8	-8.6	-0.6	-29.4	-29.1	-24.7
	자본재	2.8	1.9	4.6	1.2	5.2	3.3	6.9	-1.6	-3.4
	전체	-0.8	2.0	3.3	5.4	-2.8	1.9	-11.1	-17.8	-15.4
	금액(억 달러)	5,156	1,324	1,310	1,328	1,294	5,255	1,118	377	361
무역수지(억 달러)		440.5	51.7	147.2	89.2	183.5	471.5	216.6	85.3	63.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3) 수출과 수입은 2015년 5월까지 확정치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5년 1/4분기 지역별 수출의 경우 원화강세 및 엔저 영향 본격화,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미국 및 중남미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었고 수입도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었음.

○ 1/4분기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가운데 ASEAN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8% 감소하였고, 對일본 수출도 엔저 영향으로 22.2% 줄어들었으며 EU의 수입 수요 감소로 유로지역으로의 수출도 21.1% 줄어들었음.

- 4월 ASEAN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었으며 브라질 및 멕시코의 경제 불안 등으로 중남미로의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였고 5월 대외 위험 요인이 확대되면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줄어들었음.

○ 1/4분기 유가 하락, 수출 부진 지속, 산업생산 부진 등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41.8% 줄어들었으며 내수 수요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세가 확대되었음.

- 4, 5월 들어서도 유가가 소폭 반등하였으나 민간소비 및 제조업 생산 부진, 원화 강세로 중국을 제외한 주요지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세가 지속되었음.

〈표 25〉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수출	중국	25.4	2.8	-2.8	-1.7	0.4	-0.4	-1.6	-5.1	-3.3
	ASEAN	14.8	10.1	1.7	3.8	-3.0	3.1	-17.8	-19.6	-16.7
	미국	12.3	2.6	13.0	15.0	21.9	13.3	13.3	-2.6	-7.2
	EU	9.0	16.2	6.9	4.3	-4.1	5.7	-21.1	-11.9	-9.0
	중남미	6.3	-14.5	-15.5	13.6	14.6	-1.1	18.1	-11.7	-2.5
	중동	6.1	-2.2	6.9	19.0	9.3	7.7	-3.6	1.2	-12.9
	일본	5.6	-10.1	0.0	-3.5	-13.9	-7.2	-22.2	-12.4	-13.5
	전체	100.0	1.6	3.2	3.6	0.9	2.3	-3.0	-8.0	-10.9
수입	중동	22.7	-2.8	-1.0	0.8	-18.8	-5.6	-41.8	-38.5	-33.1
	중국	17.1	5.6	8.2	7.7	12.1	8.5	7.1	-3.4	-7.0
	동남아	13.5	2.8	-0.1	5.2	-2.1	1.4	-6.8	-17.2	-11.4
	EU	11.9	8.8	18.9	11.2	5.5	11.0	-7.8	-11.6	-4.5
	일본	10.2	-13.9	-10.5	-8.9	-8.3	-10.4	-8.8	-12.6	-19.0
	미국	8.6	9.9	10.8	11.8	4.1	9.1	-7.2	-7.2	-4.9
	호주	3.9	11.0	-2.0	-3.5	-11.5	-1.8	-19.2	-22.9	-20.9
	전체	100.0	2.0	3.3	5.4	-2.8	1.9	-11.1	-17.8	-15.4

주: 1) 2014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물가〉

■ 2015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1.0%를 기록하였으며 4월과 5월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상품가격 상승률은 공업제품 및 전기·수도·가스 물가 하락으로 -0.7%를 나타냈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1.1%, -0.8%를 기록하였음.

○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6%를 나타냈으며 4월과 5월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2015년 1/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보다 13.8 하락한 104.6을 나타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폭으로 위축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4월과 5월 각각 107.8을 나타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소폭 증가하였음을 나타냄.

〈표 2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소비자기대지수 ¹⁾	111.4	118.4	115.7	114.1	118.4	113.0	104.6	107.8	107.8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1.1	1.6	1.4	1.0	1.3	0.6	0.4	0.5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1.0	1.0	1.6	1.0	0.2	1.0	-0.7	-1.1	-0.8
농축수산물	-0.6	-4.7	-2.2	-3.3	-0.3	-0.6	0.3	-0.5	2.7
공업제품	0.9	1.6	2.0	1.6	-0.1	0.9	-0.4	-0.5	-0.3
전기·수도·가스	4.5	5.4	4.2	3.4	2.5	4.5	-3.7	-5.9	-9.0
서비스	1.5	1.3	1.6	1.7	1.6	1.5	1.6	1.6	1.6
집세	2.7	2.5	2.4	2.3	2.2	2.7	2.3	2.3	2.4
공공서비스	0.7	0.7	0.7	0.9	0.7	0.7	0.5	0.5	0.5
개인서비스	1.6	1.2	1.8	1.9	1.8	1.6	1.8	1.9	1.8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times$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2)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가계소득〉

■ 2015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기초연금 등으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2.6%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3.0% 증가하였음.

○ 2015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1만 7,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6% 증가하는데 그쳤고 실질소득 증가율도 전분기보다 0.6%p 상승한 2.0%을 나타냄.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66만 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101만 5,000원으로 11.6%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5만 3,000원으로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0.9%p 하락하며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실질소비지출은 0.6% 감소하여 흑자액은 11.6%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이 72.3%로 전년동기보다 2.2%p 하락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7.7%로 전년동기대비 2.2%p 상승함.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단위: %, %p)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만 원)	416.2	440.3	415.2	438.8	426.4	430.2	451.7
	증가율	2.1	5.0	2.8	3.0	2.4	3.4	2.6
	실질증가율 ²⁾	0.8	3.9	1.1	1.6	1.4	2.1	2.0
처분가능 소득	금액(만 원)	338.1	356.3	338.1	355.0	350.3	349.8	366.8
	증가율	1.9	5.1	2.8	2.8	2.9	3.5	3.0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만 원)	248.1	265.4	247.8	257.6	250.6	255.1	265.3
	증가율	0.9	4.4	3.1	3.3	0.9	2.8	0.0
	실질증가율 ²⁾	-0.4	3.2	1.5	1.9	-0.1	1.5	-0.6
흑자액	금액(만 원)	90.0	90.9	90.3	97.4	99.7	94.7	101.5
	증가율	4.7	7.3	2.2	1.6	8.3	5.2	11.6
평균소비성향 ³⁾		73.4	74.5	73.3	72.6	71.5	72.9	72.3
흑자율 ⁴⁾		26.6	25.5	26.7	27.4	28.5	27.1	27.7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2015년 2/4분기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국내 경제지표부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15년 1/4분기보다 18bp 하락한 1.80%를 기록함. 2015년 2/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달러화 강세, 국내 무역 흑자 지속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2014년 4/4분기 평균 환율보다 2.5원 하락한 1,097.8원임. 2015년 2/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 실적 악화 우려, 그리스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 메르스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평균 1,965.93보다 상승한 평균 2,094.02임. 2015년 1/4분기 보험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28.2% 감소하였고, 금융권 순수신의 경우 은행은 감소하고, 증권과 자산운용은 증가함.

〈금리〉

■ 2015년 6월 11일 한국은행은 2015년 3월 1.75%로 하향 조정한 기준금리를 1.50%로 다시 하향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경제 측면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신흥국 성장세 약화,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의 요인과 국내경제 측면에서 수출 부진, 메르스 사태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함.

■ 2015년 2/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국내 경제지표 부진, 기준금리 하락, MBS(주택저당증권) 입찰 호조 등에 따른 장기채권 수급부담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18bp 하락한 1.80%임.

- 4월 국고채 금리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2015년 3월 평균 1.87%에서 13bp 하락한 평균 1.74%를 기록함.
- 5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 MBS 발행에 따른 장기채권 수급부담 등의 영향으로 4월 평균 국고채 금리보다 14bp 상승한 1.88%였음.
- 6월 국고채 금리는 국내 경제지표 부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MBS 입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1bp 하락하여 평균 1.77%를 나타냄.

■ 2015년 2/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1.77%로 4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신용 스프레드

는 전분기대비 4bp 하락함.

- 2/4분기 CD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단기수신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30bp 하락하며 평균 1.77%를 나타냄.
- 2/4분기 평균 ‘국고채(3년)-CD(91일)’ 간 스프레드는 전분기대비 12bp 상승한 3bp로 지난 분기 발생한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 사라짐.
- 회사채 금리는 2/4분기 평균 2.04%로 전분기대비 22bp 하락하였고, 신용 스프레드는 평균 24bp로 전분기대비 4bp 하락함.
- 2/4분기 회사채 금리는 국고채(3년 만기)보다 소폭 하락함.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p)

구분	2014 2/4	2014 3/4	2014 4/4	2015 1/4	2015 2/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2.50	2.25	2.00	1.75	1.50	-0.25	-1.00
CD(91일)	2.65	2.51	2.16	2.07	1.77	-0.30	-0.88
국고채(3년)	2.82	2.50	2.17	1.97	1.80	-0.18	-1.02
회사채(3년, AA-)	3.25	2.89	2.51	2.26	2.04	-0.22	-1.21
스프레드(국고채-CD)	0.17	-0.01	0.01	-0.09	0.03	0.12	-0.14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43	0.39	0.34	0.28	0.24	-0.04	-0.19

주: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환율〉

■ 2015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와 국내 무역수지 흑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분기대비 2.5원 하락한 평균 1,097.8원임.

- 4월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주식 순매수 지속의 영향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3월 평균 원/달러 환율 1,112.6원보다 하락하여 평균 1,088.7원을 기록함.
- 5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91.3원으로 유럽중앙은행 자산매입규모의 일시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 위험회피심리 고조에 따른 아시아통화 동반 약세의 영향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임.

- 6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단행 언급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중국증시 급락에 따른 아시아 통화 약세,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1,112.6원을 나타냄.

〈표 30〉 환율 추이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4			2015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원/달러	1,030.4	1,025.8	1,086.7	1,100.3	1,097.8	1,088.7	1,091.3	1,112.2
엔/달러	102.2	103.8	114.5	119.2	121.4	119.6	120.7	123.7
달러/유로	1.371	1.328	1.249	1.127	1.105	1.080	1.117	1.121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2/4분기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스 정국불안 등의 영향으로 엔화와 유로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임.

- 4월 달러화는 미국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무역수지 흑자전환, 독일 경제지표 호조,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엔화와 유로화에 모두 약세를 보였으며, 평균 엔/달러 환율과 달러/유로 환율은 각각 119.6엔, 1.080달러였음.
- 5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120.7엔으로 일본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엔화에 강세를 보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1.117달러로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임.
- 6월 달러화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및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시사 등의 영향으로 엔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였으며, 유로화에 대해서는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여 평균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은 각각 123.7엔, 1.121달러를 나타냄.
- 그러나 6월 말 달러와는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시장 불확실성과 유로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며 유로화에 대해 강세로 전환됨.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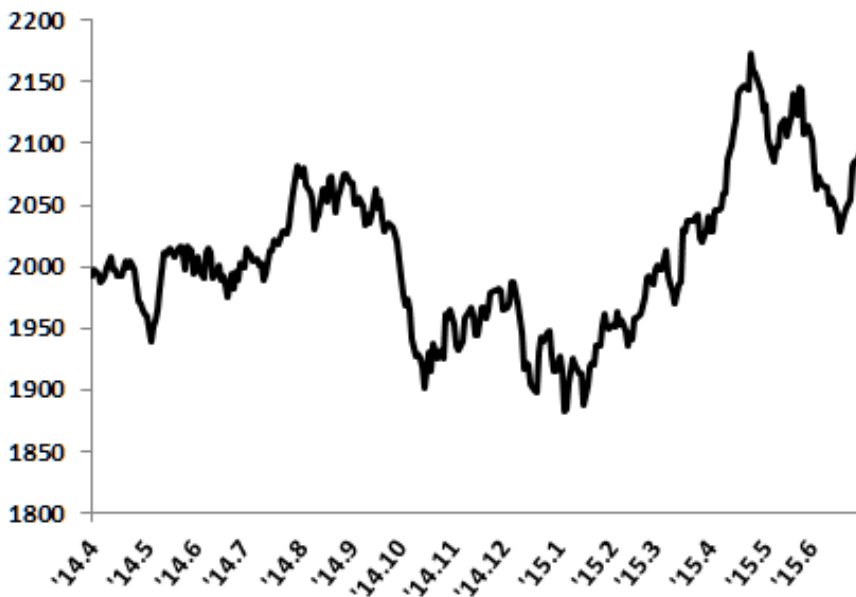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 실적 악화 우려, 그리스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메르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094.02를 기록하며 전분기 평균 1,965.93보다 상승함.

○ 4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글로벌 주가 강세, 유럽경제지표 개선, 외국인 순매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5년 3월 2,012.62에 비해 상승한 2,107.27을 기록함.

○ 5월 종합주가지수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 실적 악화 우려, 그리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였으나 국내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약화로 상승세로 전환되며 평균 2,114.90을 기록함.

○ 6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063.69로 메르스 확산,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불확실성 증대, 기준금리 인하,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6월 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발표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전환됨.

〈그림 4〉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흐름〉

- 2015년 1/4분기 보험권 총 순수신은 13조 9,618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28.2% 감소함.
 - 1/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36.8% 감소하였으며 10조 4,840억 원임.
 - 수입보험료는 27조 3,358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16.6% 감소한 반면 지급보험금은 16조 8,518억 원으로 4.1% 증가함.
 - 1/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5.1% 증가한 3조 4,778억 원임.
 - 원수보험료와 원수손해액 모두 전분기대비 각각 13.5%, 18.0% 감소하였으나 원수손해액이 원수보험료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 손해보험 순수신이 증가함.
- 2015년 1/4분기 금융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은행은 감소하였으나 증권과 자산운용은 증가함.
 - 은행의 경우 전분기대비 일반계정은 감소하고, 신탁계정이 증가하여 각각 2조 8,931억 원, 10조 9,407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5조 2,579억 원 감소한 13조 8,338억 원을 기록함.
 - 이는 예대율 규제 완화에 따른 은행의 자금노력 약화 등으로 인하여 법인자금 중심으로 정기예금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증권사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7조 2,143억 원이 늘어난 6조 5,495억 원을 나타냄.
 - 자산운용업의 총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1조 8,950억 원 증가한 27조 8,994억 원임.
 - 단기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수신경쟁력에 힘입어 MMF 수신이 늘어남.
 - 주식형펀드 및 채권형펀드는 환매 규모 축소, 시장금리 하락 기대, 일부 연기금 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증가함.

〈표 31〉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2/4	3/4	4/4	1/4	2/4	3/4	4/4	1/4	2/4
보험 ¹⁾	139,623	138,497	167,547	133,551	145,570	135,769	196,083	139,618	-
- 생보	109,365	108,554	135,447	101,936	110,963	104,478	165,865	104,840	-
수입보험료	245,003	240,001	287,363	257,467	264,960	255,554	327,771	273,358	-
지급보험금	135,639	131,447	151,916	155,531	153,998	151,076	161,906	168,518	-
- 손보	30,258	29,943	32,100	31,615	34,607	31,291	30,218	34,778	-
원수보험료	173,584	171,156	192,84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193,204	-
원수손해액	143,326	141,213	160,742	151,466	145,610	147,732	193,215	158,425	-
은행	182,746	-31,782	229,979	272,496	250,005	76,442	391,862	138,338	370,258
- 일반 ²⁾	147,443	-40,955	128,580	199,612	231,527	32,411	314,189	28,931	327,515
- 신탁	35,303	9,173	101,399	72,884	18,478	44,031	77,673	109,407	42,743
증권 ³⁾	9,232	-5,597	-47,513	6,904	19,088	53,478	-6,648	65,495	55,742
자산운용 ⁴⁾	44,093	-9,264	-41,835	96,918	16,946	196,161	160,044	278,994	163,004
종금 ⁵⁾	-11,420	1,082	2,444	8,863	2,733	826	3,420	- 6,816	8,403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2015년 1/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6.2%, 5.5%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5.9% 늘어난 46조 6,562억 원을 시현함.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3.6% 증가한 893조 5,502억 원을 기록함. 한편,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투자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2.3%를 나타냄.

가. 수입보험료

■ 2015년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5.9% 늘어난 46조 6,562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모두 성장하여 6.2% 증가한 27조 3,358억 원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 증가세에 힘입어 5.5% 증가한 19조 3,204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1),2)}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³⁾	연간 ⁵⁾	1/4
생명보험	24.0	28.7	77.2	25.7	26.5	25.6	32.8	110.6	27.3
	(-14.7)	(-8.3)	(-8.0)	(-17.8)	(8.1)	(6.5)	(14.1)	(1.9)	(6.2)
손해보험	17.1	19.3	53.8	18.3	18.0	17.9	22.3	76.6	19.3
	(2.3)	(6.8)	(4.2)	(8.0)	(3.8)	(4.6)	(15.9)	(8.3)	(5.5)
합계	41.1	48.0	130.4	44.1	44.5	43.5	55.1	187.2	46.7
	(-8.3)	(-2.8)	(-3.4)	(- 8.8)	(6.4)	(5.7)	(14.8)	(4.4)	(5.9)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년은 2014년 1~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 2015년 1/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른 운용자산 증가와 퇴직연금 자산 증가로 전분기대비 3.6% 늘어난 893조 5,502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금리 하락으로 채권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3.6%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퇴직연금 호조세에 따른 퇴직연금 관련 자산 증가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3.8% 증가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1),2)}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1/4
생명보험	584.1	597.5	597.5	609.2	625.0	640.4	662.1	662.1	685.7
	(2.6)	(2.3)	(9.1)	(2.0)	(2.6)	(2.5)	(3.4)	(10.8)	(3.6)
손해보험	165.1	170.6	170.6	176.9	185.1	191.4	200.3	200.3	207.9
	(3.0)	(3.3)	(12.4)	(3.7)	(4.6)	(3.4)	(4.7)	(17.4)	(3.6)
합계	749.2	768.0	768.0	786.1	810.2	831.8	862.4	862.4	893.6
	(2.6)	(2.5)	(9.8)	(2.4)	(3.1)	(2.7)	(3.7)	(12.3)	(3.6)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4) 2014년은 2014년 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 2015년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제외) 모두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여 2.3%를 나타냄.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2.1%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투자영업이익이 늘어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2.8%를 나타냄.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1),2)}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1/4	2/4	3/4	4/4 ³⁾	연간	1/4
생명보험	1.8	0.7	4.0	1.9	2.0	2.0	0.3	5.9	2.1
손해보험	2.4	1.5	6.7	2.6	3.0	2.2	0.9	8.7	2.8
합계	2.0	0.9	4.7	2.1	2.3	2.0	0.4	6.6	2.3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화재보험의 진입으로 FY2012 1/4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 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FY2013 3/3분기 이후 생명보험회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진입으로 25개 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3)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4)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2015년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한 27조 3,358억 원을,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6% 증가한 685조 6,606억 원을 기록함. 2015년 1/4분기 당 기준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6.2% 증가한 1조 2,814억 원을 나타냈으며, 운용자산 이익률과 자본이익률은 각각 4.35%, 2.08%였음. 2015년 1/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설계사, 대리점 채널이 상승하였으며, 모집조직은 전분기대비 모든 조직이 감소함.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2015년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6.2% 늘어난 27조 3,358억 원을 기록함(〈표 4〉 참조).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17.9% 늘어남.

■ 2015년 1/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시중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증가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3.6% 증가한 685조 6,606억 원을 시현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1),2),3)}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수입보험료 ²⁾	24.0	28.7	77.2	25.7	26.5	25.6	32.8	110.6	27.3
	(-14.7)	(-8.3)	(-8.0)	(-17.8)	(8.1)	(6.5)	(14.1)	(1.9)	(6.2)
총자산	584.1	597.5	597.5	609.2	625.0	640.4	662.1	662.1	685.7
	(2.6)	(2.3)	(2.3)	(2.0)	(2.6)	(2.5)	(3.4)	(3.4)	(3.6)

주: 1) () 안은 수입보험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하였고,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 특별계정 보험종목인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을 포함한 실적임.

3)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2015년 1/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변액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타 금융 상품에 대한 금리경쟁력 및 비과세 혜택을 유지함에 따라 8.4% 증가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마케팅 강화의 영향으로 보장성보험 중 비중이 가장 큰 종신보험 수입보험료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9.5% 늘어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2.4%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분기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되었음.
 - 변액보험의 경우 변액유니버설 및 변액종신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함.
- 2015년 1/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생존	보험료	53,996	55,496	162,636	58,006	60,647	58,776	62,910	240,340	62,882
	증가율	-39.6	-39.2	-32.0	-40.6	14.1	8.9	13.4	-7.6	8.4
	구성비	22.5	19.3	21.1	22.5	22.9	23.0	19.2	21.7	23.0
사망	보험료	79,458	80,289	238,660	81,286	82,133	83,131	85,238	331,788	89,041
	증가율	4.1	4.0	3.8	3.6	4.1	4.6	6.2	4.6	9.5
	구성비	33.1	27.9	30.9	31.6	31.0	32.5	26.0	30.0	32.6
생사 혼합	보험료	46,222	45,910	139,738	50,697	51,639	49,171	49,038	200,544	51,932
	증가율	-15.4	-13.2	-9.0	-25.5	8.5	6.4	6.8	-3.5	2.4
	구성비	19.3	16.0	18.1	19.7	19.5	19.2	15.0	18.1	19.0
변액 보험	보험료	51,368	51,498	155,443	51,884	51,246	51,622	51,957	206,709	51,122
	증가율	-0.8	-2.5	-0.9	-6.2	-2.5	0.5	0.9	-1.9	-1.5
	구성비	21.4	17.9	20.1	20.2	19.3	20.2	15.9	18.7	18.7
개인계	보험료	231,044	233,194	696,477	241,873	245,665	242,701	249,143	979,382	254,977
	증가율	-15.1	-15.0	-10.6	-19.2	5.8	5.0	6.8	-1.7	5.4
	구성비	96.3	81.1	90.2	93.9	92.7	95.0	76.0	88.6	93.3
단체	보험료	8,957	54,169	75,891	15,594	19,295	12,853	78,629	126,371	18,381
	증가율	-2.4	38.6	25.7	13.2	51.2	43.5	45.2	45.8	17.9
	구성비	3.7	18.9	9.8	6.1	7.3	5.0	24.0	11.4	6.7
합계	보험료	240,001	287,363	772,367	257,467	264,960	255,554	327,771	1,105,753	273,358
	증가율	-14.7	-8.3	-8.0	-17.8	8.1	6.5	14.1	1.9	6.2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FY2013은 2013년 4~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2015년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단체보험 비중이 소폭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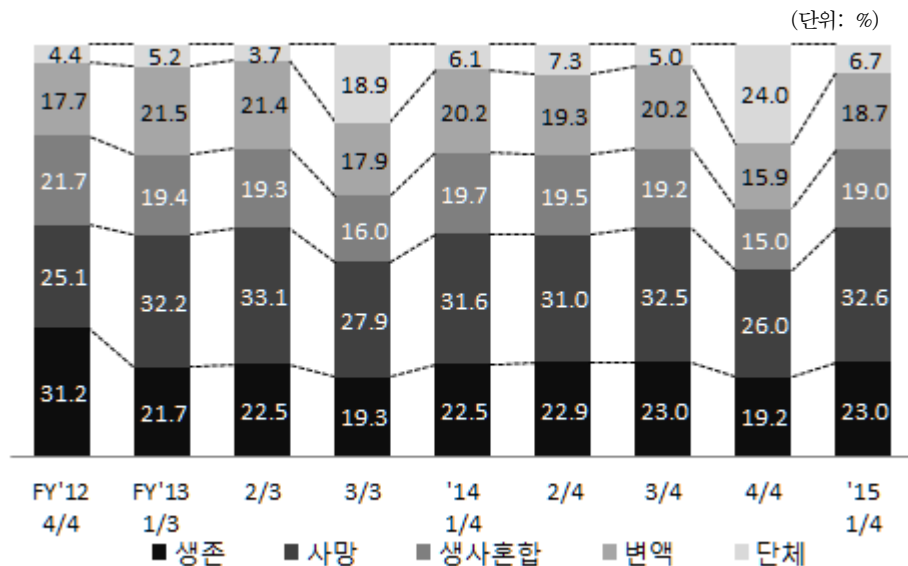
○ 생존보험, 사망보험은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라 그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5%p, 1.0%p 소폭 상승하여 각각 23.0%, 32.6%를 기록한 반면 생사혼합보험은 수입보험료 증가가 소폭에 그쳐 비중이 0.7%p 하락하여 19.0%를 나타냄.

-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마케팅 강화 영향으로 FY2013 1/4분기부터 8분기 연속 사망보험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수입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5%p 하락한 18.7%임.

○ 개인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높은 단체보험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0.6%p 소폭 상승하며 6.7%를 나타냄.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중·소형사는 상승하였고, 상위 3사와 외국사는 하락하였음.

○ 상위 3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7.1%와 13.1%로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0.4%p, 0.8%p 소폭 하락함.

○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한 39.7%를 기록함.

■ 2015년 1/4분기 허핀달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04 상승한 0.1074임.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⁵⁾	1/4	2/4	3/4	4/4	연간 ⁵⁾	1/4
상위 3사	48.1	53.2	49.6	47.5	48.2	48.0	51.7	49.0	47.1
국내 중·소형사 ²⁾	34.6	31.3	33.5	38.6	38.2	37.8	37.2	37.9	39.7
외국사 ³⁾	17.3	15.6	16.9	13.9	13.7	14.2	11.1	13.1	13.1
허핀달 지수 ⁴⁾	0.1072	0.1284	0.1140	0.1070	0.1088	0.1082	0.1315	0.1138	0.1074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국내 중·소형사(15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정의하며 2013년 말 ING생명이 국내법인에 매각되어 2014년 1/4분기부터 국내 중·소형사에 포함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2015년 3월 말 알리안츠생명 등 8개사임.

4)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5)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수치이며, 2014년은 2014년 1~12월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2015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여 전년동기대비 1.2%p 상승한 61.6%를 나타냄.

○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5.3%p, 1.8%p 하락한 50.5%, 63.0%를 기록함.

-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각각 0.9%, 0.5% 감소함.

○ 생존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율은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53.7%임.

○ 변액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9.6%p 상승한 65.1%를 나타냄.

○ 단체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보험금 지급율은 전년동기대비 15.8%p 상승한 129.5%임.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의 비율인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14.0%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2.4%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1/4
보험금 지급률 ¹⁾	54.8	52.9	54.2	60.4	58.1	59.1	49.4	56.3	61.6
개인	53.0	57.8	54.6	57.0	54.8	56.2	54.3	55.6	56.8
생존	49.0	53.8	50.7	53.1	49.5	52.8	53.3	52.2	53.7
사망	53.9	55.1	54.4	55.8	50.6	51.3	51.1	52.2	50.5
생사혼합	54.5	60.4	57.6	64.8	58.1	59.3	58.1	60.1	63.0
변액	54.6	64.1	56.1	55.5	64.4	65.1	57.0	60.5	65.1
단체	100.1	31.7	51.3	113.7	100.9	113.5	33.9	62.1	129.5
사업비율 ²⁾	15.5	14.0	14.8	14.1	15.0	14.6	12.7	14.0	14.0
해지율 ³⁾	5.0	7.2	7.2	2.6	4.9	7.0	8.9	8.9	2.4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4)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총비용〉

■ 2015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의 경우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6.2% 증가한 1조 2,814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변액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5.9% 증가하였고 투자영업이익은 9.6% 증가함.

○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법인세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0%, 82.7% 증가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 및 투자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1/4
총수익	보험영업	18,446	18,694	55,616	19,541	19,932	19,606	20,239	79,319	20,910
	투자영업	5,753	6,180	18,473	6,120	7,059	5,410	7,172	25,761	6,974
	영업외	1,012	1,079	3,102	1,031	1,027	1,159	1,098	4,315	1,109
	소 계	25,211	25,953	77,190	26,693	28,018	26,175	28,509	109,395	28,993
총비용	보험영업	13,883	14,893	42,804	15,370	14,870	14,739	15,302	60,281	15,659
	투자영업	728	1,175	3,397	900	1,461	191	1,645	4,197	1,253
	영업외	190	301	695	204	161	204	269	839	186
	소 계	14,801	16,369	46,896	16,474	16,493	15,134	17,215	65,317	17,098
수지차	보험영업	4,563	3,801	12,812	4,171	5,062	4,868	4,937	19,038	5,250
		(-46.6)	(-55.4)	(-40.7)	(-57.8)	(13.8)	(6.7)	(29.9)	(-16.2)	(25.9)
	투자영업	5,024	5,005	15,076	5,220	5,598	5,219	5,527	21,564	5,721
		(2.5)	(6.3)	(6.0)	(3.4)	(10.9)	(3.9)	(10.4)	(7.2)	(9.6)
	영업외	822	778	2,407	828	866	954	829	3,476	924
	소 계	10,410	9,584	30,294	10,218	11,526	11,041	11,293	44,079	11,896
책임준비금전입		9,207	9,112	27,461	9,096	10,194	9,697	11,047	40,034	10,282
법인세		296	135	740	182	277	258	90	807	332
당기순이익		906	337	2,093	941	1,055	1,085	156	3,237	1,281
		(-2.0)	(-52.2)	(-15.4)	(29.7)	(24.1)	(19.8)	(-53.8)	(14.8)	(36.2)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며,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부채 및 자본〉

■ 2015년 1/4분기 총부채는 계약자지분조정과 기타부채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로 25.8% 증가함.

○ 총부채 항목 중 계약자지분조정과 기타부채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51.3%, 34.7% 증가하였고, 총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77.7% 증가함.

- 계약자지분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는 시중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증가에 기인함.

〈표 9〉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1/4	2/4	3/4	4/4	1/4
책임준비금	금액	412	421	431	441	451	462	472
	증가율	12.8	11.3	9.3	9.4	9.3	9.6	9.7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7	7	7	8	8	9	11
	증가율	-15.8	-21.0	-25.6	4.6	6.1	29.5	51.3
기타부채	금액	13	13	13	13	14	15	18
	증가율	-6.3	-9.6	-11.7	-5.0	5.5	17.4	34.7
특별계정부채	금액	100	106	107	109	112	117	121
	증가율	11.5	12.6	11.0	14.3	11.3	10.3	12.5
부채총계	금액	533	547	558	571	584	603	622
	증가율	11.5	10.3	8.4	9.8	9.5	10.2	11.3
자본금	금액	10	10	10	10	10	10	10
	증가율	3.5	2.8	2.8	3.3	1.3	1.3	1.3
자본잉여금	금액	6	6	6	6	6	6	6
	증가율	9.2	2.4	1.8	1.4	1.4	2.3	2.3
이익잉여금	금액	22	23	23	24	25	25	26
	증가율	12.2	10.4	8.8	11.9	12.3	11.6	11.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14	13	14	15	17	20	24
	증가율	-16.5	-22.5	-28.9	12.1	18.7	48.7	77.7
자본총계	금액	51	50	51	54	56	59	64
	증가율	0.2	-3.1	-6.9	8.8	10.7	17.9	25.8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584	597	609	625	640	662	686
	증가율	10.4	9.1	6.9	9.7	9.6	10.8	12.6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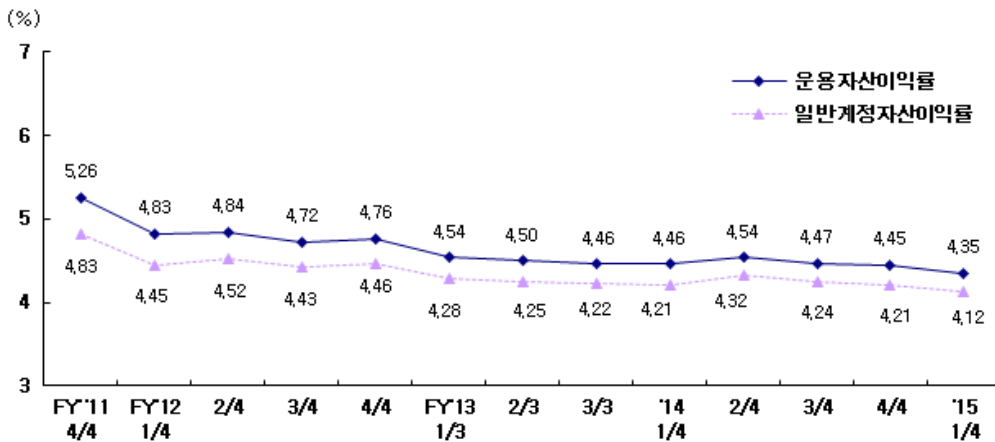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4.35%로 전년동기대비 0.11%p 하락하였고, 일반계정 자산이익률은 4.12%로 역시 전년동기보다 0.09%p 하락함.

○ 운용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매도가능증권은 비중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익률이 전년 동기대비 0.1%p 하락한 4.16%로 나타남.

○ 2015년 1/4분기 기준금리는 1.75%로 2014년 1/4분기 기준금리 2.50%보다 0.75%p 하락함.

■ 2015년 1/4분기 일반계정 중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72.6%, 대출채권 17.5%, 부동산 2.6%, 현금과 예금 2.3%임.

○ 2014년 1/4분기와 비교해서 유가증권 비중은 1.7%p 상승, 대출채권, 부동산, 현금과 예금의 비중은 각각 0.3%p, 0.4%p, 0.4%p 하락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1),2),3)} 추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21	100.0	4.32	100.0	4.24	100.0	4.21	100.0	4.12
운용자산 계	94.4	4.46	94.5	4.54	94.8	4.47	95.0	4.45	95.0	4.35
현금과 예금	2.7	3.11	2.9	2.98	2.8	3.26	3.0	3.24	2.3	2.94
유가증권	70.9	4.21	71.0	4.29	71.4	4.18	71.7	4.15	72.6	4.15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2.6	2.98	2.5	3.48	2.9	3.43	3.1	2.95	3.1	4.15
- 주식	0.1	-0.78	0.1	0.41	0.1	5.82	0.1	-1.07	0.1	24.56
- 채권 등	0.7	4.32	0.7	4.20	0.8	4.61	0.8	4.34	0.7	6.63
- 수익증권	1.8	2.63	1.7	3.34	2.0	2.82	2.2	2.58	2.3	2.50
○ 매도가능증권	48.9	4.28	49.1	4.35	49.3	4.17	52.5	4.04	52.0	4.16
- 주식	4.3	4.38	4.1	6.75	3.8	4.89	3.9	3.44	4.0	5.04
- 채권 등	41.5	4.22	41.8	4.07	42.2	4.05	45.2	4.06	44.4	4.06
- 수익증권	3.2	4.99	3.2	4.86	3.2	4.90	3.4	4.63	3.5	4.42
○ 만기보유증권	17.8	4.35	17.8	4.42	17.6	4.47	14.5	4.84	15.9	4.27
- 채권 등	17.8	4.35	17.8	4.42	17.6	4.47	14.5	4.84	15.9	4.27
- 수익증권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6	2.45	1.6	2.47	1.7	2.43	1.7	2.65	1.6	2.83
대출채권	17.8	5.89	17.8	5.93	17.8	5.94	17.7	5.94	17.5	5.55
부동산	3.0	3.25	2.9	3.41	2.8	3.56	2.7	4.15	2.6	3.36
비운용자산	5.6	-0.07	5.5	0.73	5.2	0.43	5.0	0.05	5.0	-0.22
총자산	100.0	3.53	100.0	3.90	100.0	4.00	100.0	3.81	100.0	4.93
일반계정	82.6	4.21	82.7	4.32	82.7	4.24	83.1	4.21	82.5	4.12
특별계정	17.4	0.30	17.3	1.85	17.3	2.87	16.9	1.84	17.5	8.83
총자산 규모	6,092,048		6,250,250		6,403,859		6,620,752		6,856,606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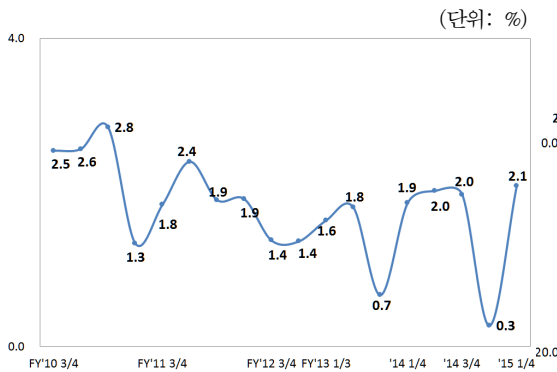
〈자본이익률¹⁾〉

■ 2015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²⁾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인 2014 1/4분기 대비 0.22%p 상승한 2.08%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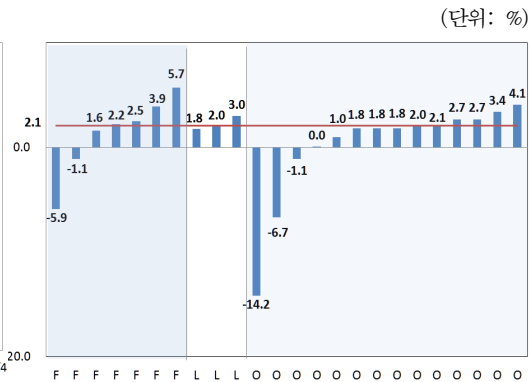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6.2% 증가하고 총자본(자본총계)은 전년 동기대비 25.8% 증가하면서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 2개의 외국사, 3개의 중·소형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주: 1) F, L, O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생명보험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5년 1/4분기 자본이익률은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모두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며 전년동기에 비하여 0.02%p 상승한 2.10%를 나타냄.

○ 중·소형사는 3개의 회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그 외의 회사는 모두 당기순 이익을 기록하며, 중·소형사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69%p 상승한 1.70%를 기록함.

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 대상은 FY2012 1/4분기 농협생명보험, FY2013 3/3분기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포함되어 25개 생명보험회사임.

2) 2015년 회계연도부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로 분류되었던 회사 분류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거 통계치도 동일하게 수정함.

- 외국사의 경우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총자본 증가율을 상회하며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8%p 상승한 2.15%임.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1/4
대형사	1.79	0.60	3.49	2.08	2.08	1.75	0.27	5.93	2.10
중·소형사	1.27	0.64	2.97	1.01	1.35	2.05	0.33	4.66	1.70
외국사	3.02	1.02	6.36	1.47	2.82	3.30	-0.32	6.32	2.15
전체	1.81	0.67	4.00	1.86	2.02	1.97	0.27	5.92	2.08

주: 1)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2) FY2013는 2013년 4~12월 말, 2014는 2014 1~12월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2015년 1/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임직원 및 방카슈랑스 채널이 하락하고, 설계사, 대리점 채널이 상승함.

- 2015년 1/4분기 임직원 판매비중은 임직원 판매채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연금 초회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14.8%를 나타냄.
- 방카슈랑스 비중은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2%p 하락한 58.3%를 기록함.
- 설계사와 대리점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1%p, 0.7%p 상승한 20.1%와 6.4%를 기록함.

〈표 12〉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1/4
임직원	9.6	27.8	17.3	15.5	17.0	13.4	50.8	28.2	14.8
설계사	22.2	18.9	20.3	18.0	16.8	20.9	12.7	16.4	20.1
대리점	7.2	7.2	6.7	5.7	6.0	7.4	4.5	5.7	6.4
중개사	0.0	0.0	0.0	0.0	0.0	0.1	0.0	0.0	0.1
방카슈랑스	60.8	45.8	55.4	60.5	60.0	58.0	31.8	49.6	58.3
기타	0.2	0.3	0.3	0.3	0.1	0.2	0.2	0.2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9,262	38,030	100,570	39,751	42,865	35,463	66,558	184,637	44,865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2015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전분기대비 모든 조직 규모가 축소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590명이 감소한 2만 7,521명임.
- 설계사의 경우 교차설계사는 증가하고 전속설계사가 감소하면서 전체설계사 수는 1,031명 감소한 12만 9,335명으로 나타남.
- 대리점 수는 법인대리점과 개인대리점이 모두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468개 감소한 6,399개임.

〈표 13〉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1/4	2/4	3/4	4/4	1/4
임직원	30,744	30,380	30,453	28,532	27,288	28,111	27,521
설계사	149,083	143,075	139,161	136,028	132,900	130,366	129,335
- 전속	140,943	135,729	131,899	128,866	125,309	122,965	120,949
- 교차	8,140	7,346	7,262	7,162	7,591	7,401	8,386
대리점	7,335	7,035	7,062	7,187	7,113	6,867	6,399
- 개인	4,023	3,855	3,820	3,876	3,768	3,616	3,171
- 법인	3,312	3,180	3,242	3,311	3,345	3,251	3,228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2015년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5% 늘어난 19조 3,204억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상해보험, 장기질병보험, 장기운전자보험이 양호한 증가율을 나타내어 5.1% 늘어난 11조 6,499억 원을 나타냄.
- 개인연금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퇴직연금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4.0% 증가한 2조 336억 원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과 대물·자차담보 가입금액 확대 추세로 9.0% 증가한 3조 5,298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3.9% 증가한 2조 1,071억 원을 기록하여 2013년 이후 계속된 저성장에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2015년 1/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특별계정 자산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3.8% 늘어난 207조 8,896억 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 자산은 단기매매 금융자산과 매도가능 금융자산이 늘어나 전분기대비 2.7% 증가하였으며, 특별계정 자산이 퇴직연금 호조세로 인한 퇴직연금 관련 자산 증가로 26.9% 증가함.

〈표 1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원수보험료	19.3	53.8	18.3	18.0	17.9	22.3	76.6	19.3
	(6.8)	(4.2)	(8.0)	(3.8)	(4.6)	(15.9)	(8.3)	(5.5)
장기손보	10.6	31.5	11.1	11.0	11.1	11.2	44.4	11.6
	(6.4)	(5.6)	(7.5)	(6.1)	(4.9)	(5.9)	(6.1)	(5.1)
연금부문 ²⁾	3.3	6.3	2.0	1.6	1.4	5.5	10.5	2.0
	(17.2)	(6.3)	(29.5)	(-4.3)	(9.9)	(65.7)	(34.2)	(4.0)
자동차	3.3	9.7	3.2	3.4	3.4	3.5	13.5	3.5
	(2.0)	(0.4)	(3.2)	(4.1)	(6.4)	(6.9)	(5.2)	(9.0)
일반손해	2.1	6.2	2.0	2.1	1.9	2.1	8.1	2.1
	(1.6)	(1.5)	(1.5)	(-1.2)	(-3.5)	(1.9)	(-0.3)	(3.9)
총자산 ³⁾	170.6	170.6	176.9	185.1	191.4	200.3	200.3	207.9
	(3.3)	(12.4)	(3.7)	(4.6)	(3.4)	(4.7)	(17.4)	(3.8)
일반계정	164.0	164.0	169.3	177.4	183.7	191.1	191.1	196.2
	(3.2)	(12.3)	(3.3)	(4.8)	(3.5)	(4.0)	(16.6)	(2.7)
특별계정	6.6	6.6	7.6	7.7	7.7	9.2	9.2	11.7
	(7.3)	(14.4)	(14.7)	(1.3)	(0.3)	(19.6)	(39.4)	(26.9)

주: 1) () 안의 경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고,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2015년 1/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상해보험, 장기질병보험, 장기운전자보험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 전년동기대비 5.1% 늘어난 11조 6,499억 원을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증가세에 힘입어 12.7% 늘어난 3조 1,889억 원을 시현하였으며, 장기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두 자릿수의 계속보험료 증가율이

유지되어 16.4% 증가한 2조 6,055억 원을 나타냄.

- 장기운전자보험 원수보험료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 확대로 8.3% 증가한 6,919억 원을 기록함.
- 그러나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8.5% 감소한 2조 9,513억 원을 기록하여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 계속됨.

■ 2015년 1/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감소하여 전체 전년동기대비 12.4% 줄어든 6,654억 원을 기록함.

-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17.9% 감소한 4,883억 원을 나타냈는데, 2014년 분기별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5년 1/4분기 다시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됨.
- 장기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13.9% 증가한 683억 원을 나타냈으며, 2013년 이후 완만한 초회보험료 회복세를 보임.
- 자동차 사고 관련 행정 및 법률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장기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2015년 1/4분기 장기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16.6% 증가한 134억 원을 나타냄.

〈표 15〉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³⁾	1/4
원수 보험료	상해	보험료	27,604	81,024	28,306	29,114	29,999	30,946	118,365	31,889
		증가율	11.9	13.3	9.8	9.9	11.4	12.1	10.8	12.7
	운전자	보험료	6,305	18,694	6,386	6,438	6,624	6,787	26,235	6,919
		증가율	2.5	1.4	4.2	4.6	6.3	7.6	5.7	8.3
	재물	보험료	9,330	28,198	9,258	9,344	9,380	9,494	37,476	9,692
		증가율	-1.3	0.1	-0.1	-1.1	-0.4	1.8	0.0	4.7
	질병	보험료	21,418	61,290	22,382	23,243	24,181	25,062	94,868	26,055
		증가율	21.2	20.1	21.2	19.9	18.1	17.0	18.9	16.4
	저축성	보험료	29,267	89,300	32,267	28,991	28,642	27,718	117,617	29,513
		증가율	-1.4	-4.3	3.3	-1.2	-6.6	-5.3	-2.4	-8.5
	통합형	보험료	12,219	36,821	12,216	12,358	12,378	12,370	49,321	12,410
		증가율	1.4	2.2	0.5	0.2	0.9	1.2	0.7	1.6
	자산 연계형	보험료	45	151	42	39	37	35	154	22
		증가율	-53.3	-49.1	-42.5	-30.4	-26.5	-20.8	-31.6	-47.8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³⁾	1/4
	소계	보험료	106,187	315,478	110,858	109,526	111,241	112,412	444,037	116,499
		증가율	6.4	5.6	7.5	6.1	4.9	5.9	6.1	5.1
초회 보험료	상해	보험료	574	1,503	600	628	638	724	2,589	683
		증가율	-15.9	-17.6	-34.2	40.6	32.4	26.1	7.3	13.9
	운전자	보험료	124	378	115	121	188	155	579	134
		증가율	19.3	20.1	10.1	4.4	36.0	24.6	19.9	16.6
	재물	보험료	232	836	225	256	254	273	1,008	318
		증가율	-18.4	-15.6	-13.0	-27.5	1.4	17.6	-7.9	41.1
	질병	보험료	584	1,651	620	523	557	617	2,318	607
		증가율	17.3	40.2	-4.6	9.2	-5.1	5.6	0.7	-2.1
	저축성	보험료	3,036	10,989	5,946	4,311	4,251	3,870	18,379	4,883
		증가율	-45.7	-56.2	8.9	10.0	5.4	27.5	11.7	-17.9
	통합형	보험료	75	217	86	57	59	74	275	30
		증가율	-42.0	-48.8	-62.6	-15.1	-22.1	-2.4	-38.5	-65.3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0	0	0	0	0	0	0
		증가율	-	-	-	-	-	-	-	-
	소계	보험료	4,626	15,574	7,592	5,895	5,948	5,713	25,148	6,654
		증가율	-36.6	-47.8	-0.3	9.6	6.8	23.5	8.4	-12.4
계속 보험료	상해	보험료	27,030	79,521	27,707	28,486	29,360	30,223	115,776	31,206
		증가율	12.6	14.1	11.4	9.3	11.0	11.8	10.9	12.6
	운전자	보험료	6,181	18,315	6,271	6,317	6,436	6,632	25,656	6,784
		증가율	2.2	1.1	4.1	4.6	5.6	7.3	5.4	8.2
	재물	보험료	9,098	27,362	9,033	9,088	9,126	9,221	36,468	9,374
		증가율	-0.8	0.7	0.3	-0.1	-0.4	1.4	0.3	3.8
	질병	보험료	20,834	59,639	21,762	22,720	23,624	24,445	92,550	25,448
		증가율	21.4	19.7	22.1	20.1	18.7	17.3	19.5	16.9
	저축성	보험료	26,231	78,311	26,321	24,679	24,391	23,847	99,238	24,630
		증가율	8.9	14.8	2.1	-3.0	-8.5	-9.1	-4.7	-6.4
	통합형	보험료	12,143	36,604	12,130	12,302	12,319	12,296	49,047	12,380
		증가율	1.9	2.8	1.8	0.3	1.1	1.3	1.1	2.1
	자산 연계형	보험료	45	151	42	39	37	35	154	22
		증가율	-53.3	-49.1	-42.5	-30.4	-26.6	-20.8	-31.6	-47.8
	소계	보험료	101,562	299,904	103,266	103,631	105,293	106,699	418,889	109,845
		증가율	9.8	11.5	8.1	5.9	4.8	5.1	5.9	6.4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3)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1/4분기 장기손해보험 누적 해지율의 경우 장기상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해지율이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0.1%p 낮아진 3.0%를 기록함.

- 장기운전자보험, 장기재물보험, 장기질병보험 해지율은 보유계약액 증가율이 효력상 실액 및 해지액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나 각각 0.1%p, 0.2%p, 0.1%p 하락함.
- 장기저축성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줄어들어 0.4%p 하락함.
- 그러나 장기상해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과 보유계약액이 동일한 증가율을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기와 같은 3.3%를 유지함.

〈표 16〉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3/3	2013 ³⁾	1/4	2/4	3/4	4/4	1/4
상해	9.2	12.1	3.3	6.0	8.5	10.5	3.3
운전자	8.8	10.9	3.2	5.9	8.1	9.6	3.1
재물	11.6	12.9	4.1	7.4	10.3	12.6	3.9
질병	7.5	10.7	2.6	4.9	6.9	8.1	2.5
저축성	8.9	11.0	3.0	5.3	7.7	9.6	2.6
통합형	7.0	9.4	2.4	4.5	6.5	8.0	2.0
계	8.9	11.5	3.1	5.7	8.1	9.9	3.0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3) 2014년과의 비교를 위하여 2013년 1~12월까지의 누적 해지율을 계산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2015년 1/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원수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가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4.0% 늘어난 2조 336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2.7% 감소한 1조 66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속된 초회보험료 감소세와 수수료 인하³⁾로 인한 대면채널의 판매유인 감소 효과 때문임.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되어 IRP 시장을

3) 금감원(2013. 1. 10),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 계획 안내” 참조.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1/4분기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11.5% 늘어난 1조 270억 원을 나타냄.

〈표 17〉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1/4
개인 연금	보험료	10,633	31,829	10,349	10,247	10,200	10,295	41,090	10,066
	증가율	-0.7	3.1	-2.6	-3.5	-3.5	-3.2	-3.2	-2.7
	구성비	32.2	50.5	52.9	63.4	70.9	18.8	39.2	49.5
퇴직 연금	보험료	22,374	31,152	9,209	5,905	4,195	44,408	63,718	10,270
	증가율	28.1	9.8	106.1	-5.5	66.0	98.5	78.9	11.5
	구성비	67.8	49.5	47.1	36.6	29.1	81.2	60.8	50.5
합계	보험료	33,014	62,991	19,558	16,153	14,395	54,703	104,809	20,336
	증가율	17.2	6.3	29.5	-4.3	9.9	65.7	34.2	4.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2015년 1/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과 대물·자차담보 가입 금액 확대 추세로 전년동기대비 9.0% 증가한 3조 5,298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의 경우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중 확대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판매 증가세 등으로 1.5% 감소한 7,495억 원을 나타냄.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분 반영⁴⁾과 고가자동차 판매 확대에 따른 대물·자차담보 가입금액 증가로 12.1% 늘어난 2조 6,037억 원을 나타냄.

4) 2014년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기 시작하였으며, 갱신 시기가 도래한 가입자에게는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음.

〈표 18〉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대인 I		7,918 (-1.6)	23,759 (-1.6)	7,606 (-2.1)	7,849 (-1.8)	7,896 (0.6)	7,798 (-1.5)	31,149 (-1.2)	7,495 (-1.5)
종합 보험	대인 II	3,393 (2.5)	9,960 (0.9)	3,270 (2.2)	3,366 (2.1)	3,431 (4.9)	3,614 (6.5)	13,681 (4.0)	3,630 (11.0)
	대물	11,348 (8.6)	33,227 (7.2)	11,011 (6.5)	11,583 (6.0)	11,869 (8.3)	12,414 (9.4)	46,877 (7.6)	12,314 (11.8)
	자차	7,211 (-5.4)	21,523 (-7.8)	7,505 (2.7)	7,630 (6.8)	7,749 (8.1)	7,973 (10.6)	30,857 (7.0)	8,479 (13.0)
	자손	1,277 (9.2)	3,635 (5.6)	1,220 (8.9)	1,275 (9.3)	1,345 (12.9)	1,407 (10.2)	5,248 (10.3)	1,383 (13.4)
	무보험	232 (-7.3)	695 (-7.8)	220 (-3.3)	225 (-2.7)	233 (0.0)	235 (1.3)	912 (-1.2)	231 (5.3)
	소계	23,461 (2.9)	69,041 (0.9)	23,225 (4.7)	24,079 (5.8)	24,627 (7.9)	25,644 (9.3)	97,575 (6.9)	26,037 (12.1)
외화표시		34 (1.1)	91 (5.3)	20 (-17.2)	29 (-14.8)	23 (-0.6)	42 (23.7)	114 (-1.2)	33 (61.1)
이륜자동차 ⁽²⁾		173 (7.2)	635 (-0.8)	167 (9.8)	257 (3.1)	240 (12.8)	189 (9.2)	853 (8.3)	190 (13.6)
기타 ⁽³⁾		1,321 (7.9)	3,909 (3.8)	1,358 (9.4)	1,452 (11.4)	1,473 (14.7)	1,511 (14.3)	5,794 (12.5)	1,543 (13.6)
합계		32,907 (2.0)	97,435 (0.4)	32,377 (3.2)	33,665 (4.1)	34,259 (6.4)	35,183 (6.9)	135,484 (5.2)	35,298 (9.0)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1/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종합보험 손해율 증가로 전년동기에 비해 1.6%p 상승한 85.6%를 나타냄.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⁵⁾ 시행으로 발생손해액이 경과 보험료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3.9%p 하락한 65.9%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유가 하락 및 설 연휴에 따른 자동차 운행 증가 등으로 3.1%p 상승한 92.7%를 나타냄.

5) 대인 I 에서 지급하는 상해 항목인 척추 염좌가 8등급(최대 보상금 240만 원)에서 12등급(최대 보상금 8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인 I 발생손해액은 감소하고 대인 II 발생손해액은 증가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년 2월 7일 시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해 항목이 변동함에 따라 대인Ⅱ 손해율은 30.6%p 상승한 144.2%를 기록함.
- 대물담보 손해율은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1.2%p 상승한 86.4%를 나타냄.

〈표 19〉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대인 I		91.7	88.5	69.8	65.5	68.6	77.3	70.3	65.9
종합보험	대인 II	79.5	91.3	113.6	135.8	137.4	146.6	133.7	144.2
	대물	95.6	92.4	85.2	87.8	92.3	97.3	90.8	86.4
	자차	88.7	82.1	86.5	80.7	89.1	92.2	87.2	82.3
	자손	79.2	82.6	77.5	64.2	69.5	78.7	72.5	72.5
	무보험	54.4	63.3	115.7	91.5	77.8	69.0	88.4	104.1
	소계	89.8	88.1	89.6	91.3	96.4	101.5	94.8	92.7
외화표시		71.5	66.1	77.9	83.3	72.3	70.5	76.0	74.8
이륜자동차 ²⁾		94.9	93.3	79.4	104.3	107.8	111.1	101.0	91.7
기타 ³⁾		88.4	81.5	72.8	70.3	80.3	90.6	78.8	72.1
합계		90.3	87.9	84.0	84.4	89.3	95.5	88.5	85.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Ⅰ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2015년 1/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해상보험과 특종보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전년동기대비 3.9% 늘어난 2조 1,071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특별한 시장 확대 요인이 없는 가운데 공장물건 감소와 요율 조정 등으로 4.0% 줄어든 728억 원을 나타냄.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적하보험이 증가로 전환한 데다 해상종합보험이 큰 폭으로 늘어나 7.6% 증가한 1,880억 원을 기록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⁶⁾에 따른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실적 부진 등으로 1.5% 증가에 그친 3,898억 원을 나타냄.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상해보험과 책임보험 증가세로 전체 6.2% 늘어난 1조 3,347억 원을 나타냄.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단체상해보험과 여행보험의 양호한 증가세에 힘입어 12.0% 증가하였으며, 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영업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전체 8.5% 늘어남.
 - 그러나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업성 물건 감소로 1.0% 줄어듦.

〈표 20〉 일반손해보험¹⁾ 종목별 원수보험료²⁾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1/4
화재	보험료	923	2,413	759	739	703	905	3,106	728
	증가율	-2.4	-2.9	-6.1	-2.1	-4.3	-1.9	-3.6	-4.0
	구성비	4.5	3.9	3.7	3.5	3.7	4.3	3.8	3.5
해상	보험료	1,638	6,016	1,747	1,927	1,839	1,830	7,343	1,880
	증가율	-24.3	-10.7	17.0	-9.2	-18.5	11.7	-2.2	7.6
	구성비	7.9	9.8	8.6	9.2	9.6	8.7	9.0	8.9
보증	보험료	3,976	11,238	3,842	3,651	3,611	4,048	15,152	3,898
	증가율	1.6	-4.8	-4.3	-3.9	4.3	1.8	-0.6	1.5
	구성비	19.2	18.2	18.9	17.5	18.9	19.2	18.6	18.5
특종	보험료	12,435	37,172	12,566	13,099	11,533	12,793	49,991	13,347
	증가율	3.1	2.4	2.6	0.3	-1.2	2.9	1.2	6.2
	구성비	60.0	60.3	61.9	62.8	60.3	60.5	61.4	63.3
해외 원보험	보험료	1,762	4,840	1,376	1,455	1,442	1,559	5,832	1,217
	증가율	34.0	40.0	-3.0	4.7	-14.6	-11.5	-6.8	-11.5
	구성비	8.5	7.8	6.8	7.0	7.5	7.4	7.2	5.8
합계	보험료	20,733	61,679	20,289	20,873	19,128	21,135	81,424	21,071
	증가율	1.6	1.5	1.5	-1.2	-3.5	1.9	-0.3	3.9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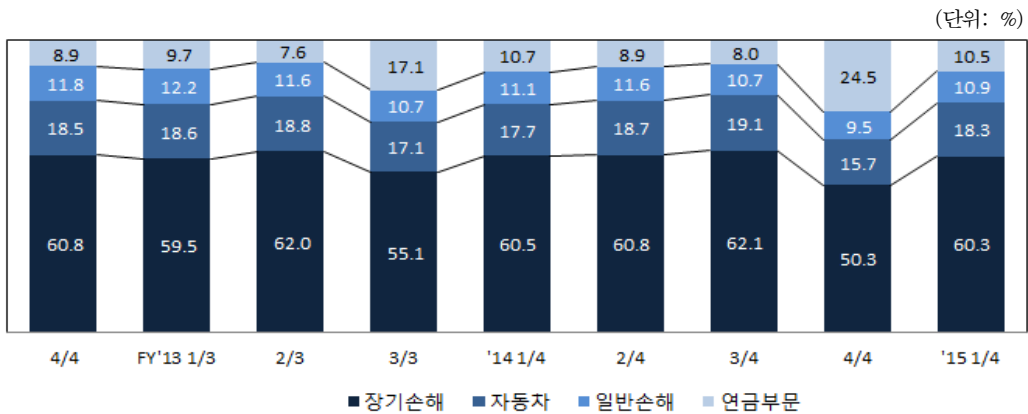
6)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가 줄어들었음(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4. 10. 30)).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2015년 1/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장기손해보험, 연금부문,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축소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 반영과 대물담보 가입금액 확대 추세로 원수보험료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6%p 확대됨.
-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각각 0.2%p씩 감소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비중은 개인연금 실적 부진으로 0.2%p 축소됨.

〈그림 5〉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1/4분기 상위 4사⁷⁾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 보다 상승하였으나 국내 중·소형사, 전업사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고, 허핀달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08 감소한 0.1378을 기록함.

- 상위 4사 시장점유율의 경우 자동차보험 증가세에 힘입어 일부 대형사가 고성장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3%p 확대된 67.7%를 나타냄.

7)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 국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일부 회사의 원수보험료 실적 부진으로 0.2%p 축소된 28.2%를 기록함.
- 전업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하였고,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와 같았음.

〈표 21〉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⁶⁾	1/4	2/4	3/4	4/4	연간 ⁶⁾	1/4
상위 4사 ²⁾	70.2	70.1	67.4	69.4	69.4	71.2	69.4	67.7
국내 중·소형사 ²⁾	25.8	25.7	28.4	26.4	26.3	25.2	26.5	28.2
전업사 ³⁾	2.1	2.1	2.1	2.0	2.0	1.8	2.0	2.0
외국사 ³⁾	2.0	2.1	2.1	2.2	2.3	1.8	2.1	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⁴⁾	1.9	2.0	2.1	2.1	2.2	1.8	2.0	2.3
허핀달 지수 ⁵⁾	0.1448	0.1453	0.1386	0.1424	0.1435	0.1541	0.1446	0.1378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하며, 외국사는 외국계 온라인사를 포함함.

4)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5)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이면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6)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2015년 1/4분기 전체 손해보험 손해율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한 83.6%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의 경우 장기질병보험, 장기운전자보험, 장기재물보험 발생손해액이 늘어나 0.9%p 상승한 86.0%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발생 건수 증가세가 2014년 1/4분기보다 확대⁸⁾되었고 대물담보 발생손해액이 늘어나 1.6%p 상승한 85.6%를 기록함.

8) 1/4분기 교통사고 발생 건수(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추이: 2013년 47,668건(-7.9%) → 2014년 48,386건(+1.5%) → 2015년 50,626건(+4.6%)

■ 2015년 1/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 악화로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한 19.6%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장기상해보험, 장기운전자보험, 장기재물보험 사업비 증가로 0.2%p 상승한 18.2%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의 경우 보증보험과 특종보험 사업비가 늘어나 5.4%p 상승한 28.0%를 나타냄.

○ 그러나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보험료 인상 등으로 보유보험료 증가율이 사업비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나 1.0%p 개선된 19.7%를 기록함.

■ 2015년 1/4분기 합산비율은 손해율 악화와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9%p 높아진 103.2%를 기록함.

〈표 22〉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⁴⁾	1/4
손 해 율	장기손해보험 ²⁾	84.0	83.8	85.1	84.4	85.2	86.1	85.2	86.0
	자동차보험	90.3	87.9	84.0	84.4	89.3	95.5	88.5	85.6
	화재보험	44.0	33.8	73.2	50.2	53.4	45.4	55.4	66.6
	해상보험	67.5	57.7	89.5	18.5	44.3	85.4	59.8	55.1
	보증보험	45.8	76.5	72.5	7.4	70.8	41.6	47.9	81.5
	특종보험	66.1	65.8	69.2	71.0	67.7	66.5	68.5	65.1
	해외원보험	116.9	79.1	64.6	89.4	98.1	124.7	94.8	84.2
	해외수재보험	52.8	57.6	72.9	45.1	67.1	83.2	66.3	50.2
	전체	82.5	82.3	83.3	80.6	83.9	85.6	83.4	83.6
사업비율		20.4	19.7	19.1	18.7	18.8	19.4	19.0	19.6
합산비율		103.0	102.0	102.3	99.3	102.7	105.1	102.4	103.2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총비용〉

■ 2015년 1/4분기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투자영업이익과 기타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한 8,219억 원 흑자를 나타냄.

○ 보험영업이익은 7,793억 원 적자를 시현하였고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993억 원 확대되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장기손해보험 발생 손해액도 늘어났기 때문임.

〈표 23〉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총수익	보험영업	16,698	49,484	16,835	16,921	17,150	17,489	68,397	17,579
	투자영업	1,805	5,276	1,780	1,979	1,523	2,251	7,532	2,174
	기타	949	1,419	245	361	161	1,247	2,015	516
	소계	19,451	56,179	18,860	19,261	18,835	20,988	77,944	20,270
총비용	보험영업	17,398	51,062	17,415	17,060	17,831	18,602	70,908	18,359
	투자영업	493	1,524	394	634	39	724	1,790	449
	기타	1,024	1,587	286	422	202	1,270	2,180	395
	소계	18,915	54,172	18,095	18,117	18,071	20,595	74,878	19,203
수지차	보험영업	-701	-1,578	-580	-139	-680	-1,113	-2,512	-779
	투자영업	1,312	3,752	1,386	1,345	1,484	1,527	5,742	1,725
	기타	-75	-167	-40	-61	-40	-22	-164	121
	소계	536	2,007	765	1,145	764	392	3,066	1,067
법인세		163	515	194	282	176	83	735	245
당기순이익(A) ²⁾		374	1,492	571	863	587	309	2,330	822
		(-14.8)	(-23.2)	(31.2)	(96.7)	(-13.6)	(-17.2)	(20.2)	(43.9)
당기순이익(B) ³⁾		270	1,212	460	558	439	185	1,661	611
		(-13.9)	(-19.8)	(31.5)	(8.1)	(3.2)	(-31.5)	(6.4)	(30.5)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2)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투자영업이익은 만기보유증권과 대출채권 이자수익 증가로 3,397억 원 늘어난 1조 7,253억 원 흑자를 기록함.
- 기타이익의 경우 1,210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전자와의 위약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영업외이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5년 1/4분기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⁹⁾의 당기순이익(B)은 투자영업이익이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30.5% 증가한 6,106억 원 흑자를 기록함.
- 보험영업 적자규모가 자동차 손해율 악화 등으로 늘어났으나, 투자영업 흑자규모도 이자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크게 확대됨.

〈총부채·총자본〉

- 2015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총계는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한 207조 8,896억 원을 나타냄.
- 총부채의 경우 보험료적립금 증가로 책임준비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함.
- 총자본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증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익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5% 증가함.

9)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석대상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회사임.

〈표 24〉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1/4	2/4	3/4	4/4	1/4	
책임준비금	금액	130.4	135.8	141.1	145.8	150.2		154.6
	증가율	16.5	17.5	16.7	15.8	15.2		13.8
기타부채	금액	10.4	10.7	11.4	11.9	12.0		13.3
	증가율	-7.4	-3.0	0.1	13.4	15.3		24.3
특별계정부채	금액	7.4	7.6	7.6	7.6	9.3		9.2
	증가율	17.5	21.5	24.6	23.4	25.3		20.9
부채총계	금액	148.2	154.2	160.2	165.3	173.4		179.3
	증가율	14.5	16.0	15.7	16.0	17.1		16.3
자본금	금액	2.3	2.3	2.3	2.3	2.4		2.4
	증가율	7.4	7.5	12.8	12.6	3.3		6.1
자본잉여금	금액	2.1	2.1	2.3	2.3	2.4		2.3
	증가율	9.7	9.7	10.4	9.3	13.7		9.5
이익잉여금	금액	15.6	15.8	16.7	17.2	17.6		17.7
	증가율	11.1	9.9	13.7	12.7	12.3		12.0
자본조정	금액	-1.0	-1.0	-0.7	-0.8	-0.9		-0.9
	증가율	72.4	72.4	33.1	26.9	-2.1		-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3.3	3.5	4.4	5.0	5.5		7.1
	증가율	-31.3	-38.0	21.6	35.2	65.2		99.9
자본총계	금액	22.4	22.8	24.9	26.1	26.9		28.6
	증가율	-0.1	-3.4	14.1	15.7	20.0		25.5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170.6	176.9	185.1	191.4	200.3		207.9
	증가율	12.4	13.1	15.5	15.9	17.4		17.5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2015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8%p 상승한 4.24%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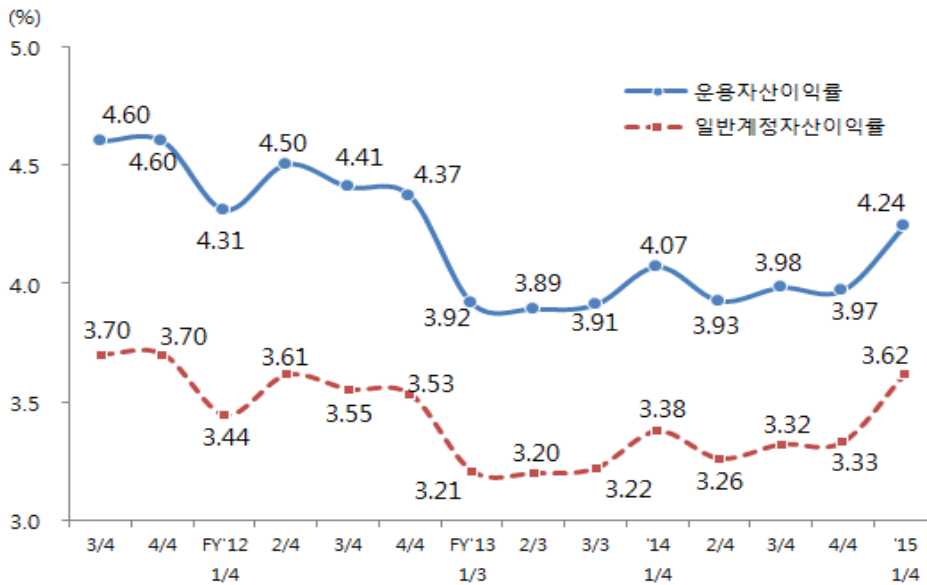
○ 현금과 예금 이익률은 1.65%p 하락한 2.23%를 기록한 반면, 유가증권 이익률은 0.49%p 상승한 4.56%를 나타냄.

○ 대출채권 이익률은 0.34%p 하락한 4.29%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0.06%p 상승한 1.19%를 기록함.

■ 2015년 1/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6.3%, 대출채권 21.6%, 현금과 예금 3.9%, 부동산 3.3% 순으로 나타남.¹⁰⁾

○ 현금, 예금, 부동산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4%p, 0.5%p 하락하였으나,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비중은 각각 2.0%p, 0.9%p 증가함.

〈그림 6〉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0)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4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3.6
운용자산 계	83.1	4.1	82.9	3.9	83.9	4.0	84.8	4.0	85.1	4.2
현금과 예금	4.3	3.9	4.1	2.0	4.3	2.7	4.7	3.0	3.9	2.2
유가증권	54.3	4.1	54.6	4.0	55.2	4.0	54.8	4.0	56.3	4.6
○ 당기손익인식증권	4.6	2.7	4.2	3.3	4.4	3.6	3.8	3.6	4.2	4.5
- 주식	0.1	9.7	0.1	9.1	0.1	14.9	0.1	4.0	0.1	26.4
- 채권 등	2.3	3.1	2.3	4.1	2.1	4.6	2.1	4.3	1.9	5.6
- 수익증권	2.2	1.5	1.8	1.8	2.2	1.7	1.6	2.2	2.2	2.1
○ 매도가능증권	41.2	4.3	42.0	4.1	42.4	4.1	42.5	4.2	44.5	4.7
- 주식	3.2	5.0	3.4	2.4	3.2	2.4	3.2	1.6	3.2	5.9
- 채권 등	33.9	4.3	34.3	4.3	34.5	4.3	34.2	4.4	36.0	4.3
- 수익증권	4.1	3.5	4.4	4.0	4.6	4.3	5.1	4.2	5.3	6.4
○ 만기보유증권	6.9	4.0	6.7	3.7	6.7	3.8	6.7	3.9	5.9	3.9
- 채권 등	6.9	4.0	6.7	3.7	6.7	3.8	6.7	3.9	5.9	3.9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7	1.6	1.7	1.8	1.7	1.6	1.8	1.1	1.8	3.6
대출채권	20.7	4.6	20.6	4.8	20.9	4.7	21.9	4.6	21.6	4.3
부동산	3.8	1.1	3.6	1.2	3.5	1.2	3.4	1.1	3.3	1.2
비운용자산	16.9	0.0	17.1	0.1	16.1	0.0	15.2	0.0	14.9	0.1
총자산	100.0	3.2	100.0	3.1	104.2	3.2	104.8	3.1	106.0	3.4
일반계정	95.7	3.4	95.9	3.3	96.0	3.3	95.4	3.3	94.4	3.6
특별계정	4.3	0.0	4.1	0.0	4.0	0.0	4.6	0.0	5.6	0.0
총자산 규모	1,769,154		1,851,278		1,913,805		2,003,076		2,078,896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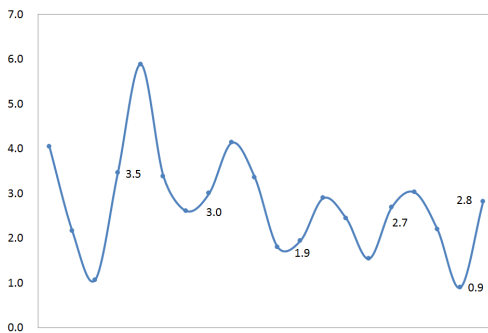
〈자본이익률¹¹⁾〉

■ 2015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투자영업이익이 늘어나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2.8%를 나타냄.

○ 대부분 대형사¹²⁾와 외국사 자본이익률은 전체 손해보험 평균(2.8%)보다 높았으나, 중·소형사와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대부분 평균보다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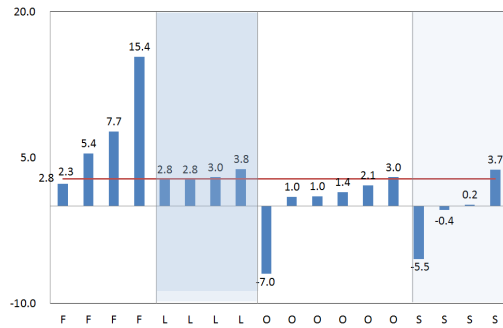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8〉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5년 1/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상승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기중자본 증가율이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상회하여 전년동기 대비 0.2%p 하락한 3.0%를 나타냄.

○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0.9%p, 8.0%p, 2.7%p 상승한 1.5%, 7.3%, 1.5%를 기록함.

1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FY2012 1/4분기부터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 회사임.

12)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표 26〉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추이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1/4
대형사	1.9	7.7	3.2	3.2	2.5	1.4	10.2	3.0
중·소형사	1.6	4.3	0.6	2.3	1.0	-0.2	3.5	1.5
외국사	0.1	10.1	-0.7	2.1	6.7	3.1	16.4	7.3
전업사	-14.2	-17.3	-1.2	0.1	-8.2	-18.0	-27.4	1.5
전체	1.5	6.7	2.6	3.0	2.2	0.9	8.7	2.8

주: 1)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2) FY2013 연간수치는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2014 연간수치는 2014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2015년 1/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임직원과 대리점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축소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상품인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 증가세로 전년동기대비 1.0%p 확대된 15.9%를 기록함.
- 대리점 채널 비중은 자동차보험 증가에 힘입어 1.6%p 확대된 42.6%를 나타냄.
- 설계사 채널과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장기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실적 부진으로 각각 1.7%p, 1.0%p 축소된 27.7%, 13.0%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³⁾	1/4
임직원	39,003	83,888	27,340	24,779	24,529	63,198	139,845	30,640
	20.2	15.6	14.9	13.7	13.7	28.3	18.3	15.9
설계사 ²⁾	53,038	159,889	53,797	57,315	48,191	54,038	213,341	53,503
	27.5	29.7	29.4	31.8	26.9	24.2	27.9	27.7
대리점	78,012	226,884	74,999	74,286	83,329	82,712	315,326	82,251
	40.5	42.2	41.0	41.2	46.5	37.0	41.2	42.6
중개사	1,795	4,377	1,206	1,614	1,590	1,765	6,176	1,397
	0.9	0.8	0.7	0.9	0.9	0.8	0.8	0.7
방카슈랑스	20,710	61,941	25,602	21,967	21,148	21,313	90,030	25,096
	10.7	11.5	14.0	12.2	11.8	9.5	11.8	13.0
공동인수	284	602	138	256	236	407	1,036	316
	0.1	0.1	0.1	0.1	0.1	0.2	0.1	0.2
전체	192,842	537,58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765,754	193,2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 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며, 2014는 2014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2015년 1/4분기 말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설계사 수와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연초 신입사원 채용으로 정규직 직원 수가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251명 늘어난 3만 3,298명을 나타냄.
- 설계사 수의 경우 전속설계사 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분기대비 610명 줄어든 15만 6,052명을 기록함.
-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520개 줄어든 3만 2,475개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개인대리점 수의 경우 2008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표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1/4	2/4	3/4	4/4	1/4
임직원	33,570	33,479	33,320	33,286	33,256	33,047	33,298
설계사	166,915	164,253	161,131	157,335	156,958	156,662	156,052
- 전속	92,952	90,167	86,988	83,630	82,504	82,299	81,073
- 교차	73,963	74,086	74,143	73,705	74,454	74,363	74,979
대리점	37,268	36,952	36,559	33,586	33,170	32,995	32,475
- 개인	23,666	23,244	22,702	22,632	22,349	22,057	21,717
- 법인	13,602	13,708	13,857	10,954	10,821	10,938	10,758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은 영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중국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임. 미국과 일본의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9.0%, 0.1% 증가하였으며, 영국은 전년동기대비 19.7% 감소함. 중국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2.9%,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2.3% 증가함. 글로벌 손해보험시장은 전년동기대비 일본과 중국은 2.8%, 12.6% 성장하였으나 미국은 당기순이익이 13.8% 감소함. 미국 손해보험은 총투자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함. 일본은 운송보험과 상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신규보험료가 증가함.¹⁾

1. 미국 동향²⁾

가. 생명보험

■ 2014년 4/4분기 미국 생명보험시장 신규보험료는 신규 연납화 보험료³⁾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하였고, 2014년 누적 신규보험료 증가율은 전년대비 1% 성장함.

- 2014년 4/4분기 생명보험은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 변액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의 영향으로 성장함.
- 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lifetime guarantee UL) 판매 감소세 둔화와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으며, 2014년 누적기준으로 1% 감소함.

1) 미국은 2014년 4/4분기, 영국은 2015년 1/4분기, 중국은 2015년 1/4분기, 일본은 FY2014 4/4분기 기준임.

2)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3)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 및 낮은 투자수익으로 인해 2014년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약 6% 감소하였으며, 2014년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약 26% 감소함.
- 반면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 신규보험료는 4년째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신규보험료는 2014년 4/4분기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6% 성장하였고, 2014년 누적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3% 늘어남.
- 변액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며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하였으며, 2014년 연간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늘어남.
- 변액유니버설보험 판매회사 중 65%의 실적이 증가함.
- 정기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 증가하였으며, 종신보험 신규보험료는 5% 증가함.
- 2014년 연간 기준 신규보험료는 정기보험은 전년대비 1% 감소하였고, 종신보험은 3% 늘어남.

■ 2014년 4/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전분기대비 유니버설보험은 소폭 상승하고, 정기보험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종신보험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4/4분기 유니버설보험 비중은 38%로 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전년대비 2%p 감소한 수치임.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신규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전년과 비교해보면 1%p 상승한 7%임.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신규보험료의 비중은 각각 22%, 33%임.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8	-23	-7	40	-15	-8	2	18	-1	38
기타변액	0	0	0	0	11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33	36	24	6	20	42	22	7	17	7
정기	5	-1	3	22	-4	-2	0	1	-1	22
종신	2	3	4	32	-3	5	6	5	3	33
계	0	-8	0	100	-7	1	4	9	1	100
연납화 보험료	2,332	2,667	10,010		2,260	2,243	2,427	2,940	10,205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5. 3),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4년 4/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과 정액연금의 신규보험료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하였음.

○ 변액연금과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6.0%, 4.8% 감소하여 각각 342억 달러와 239억 달러를 기록함.

■ 2014년 연간기준으로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의 경우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정액연금 신규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7% 성장함.

○ 2014년 누적 변액연금과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각각 전년대비 3.6% 감소, 13.5% 증가하며, 각각 1,401억 달러와 958억 달러를 나타냄.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3			201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변액연금	보험료	35.7	36.4	145.4	34.2	36.2	35.5	34.2	140.1
	증가율	-3.0	4.0	-1.4	-3.1	-4.7	-0.6	-6.0	-3.6%
	비중	59.9	59.2	63.3	58.8	59.0	61.0	58.9	59.4%
정액연금	보험료	23.9	25.1	84.4	24.0	25.2	22.7	23.9	95.8
	증가율	33.5	41.8	16.7	4.5	34.0	-5.0	-4.8	13.5%
	비중	40.1	40.8	36.7	41.2	41.0	39.0	41.1	40.6%
합계	보험료	59.6	61.5	229.7	58.2	61.4	58.2	58.1	235.9
	증가율	9.0	16.7	4.6	12.4	8.1	-2.3	-5.5	2.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5. 3), U.S. Individual Annuities.

■ 2014년 4/4분기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의 경우 독립중개인이 2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속설계사가 20.6%, 독립설계사가 16.8%,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가 각각 14.9%, 13.2%, 7.2%의 비중을 차지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3		2014			
	3/4	4/4	1/4	2/4	3/4	4/4
은행	17.3	16.0	16.3	16.6	16.0	14.9
전속설계사	20.7	20.5	20.5	19.9	19.8	20.6
직접판매	7.4	8.5	7.3	7.0	7.0	7.2
독립중개인	23.2	22.6	23.9	25.7	26.1	24.7
독립설계사	15.5	17.6	16.6	16.3	15.6	16.8
증권중개인	13.6	12.5	13.5	12.1	13.1	13.2
기타	2.4	2.3	1.9	2.4	2.4	2.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5. 3),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4년 4/4분기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는 Non-cancellable⁴⁾ 신규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Guaranteed Renewable⁵⁾ 판매부진의 영향을 받아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한 약 1억 3,320만 달러를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는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14년 4/4분기에는 4,39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9% 감소하였음.

○ Non-cancellable 신규보험료는 8,940만 달러로 Multilife⁶⁾ 보험 판매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함.

○ 2014년 소득보상보험 연간 신규보험료는 Multilife 보험 판매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Nonmultilife 보험 판매가 감소하며 전년대비 2.6% 감소한 약 5억 580만 달러임.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75.3	73.6	310.6	101.8	62.8	67.4	66.6	298.7
		증가율	0.4	-5.5	-5.3	5.7	-3.8	-10.5	-9.5	-3.8
		구성비	65.0	63.1	66.8	75.8	64.0	60.8	60.3	65.8
	Non-cancellable	건수	40.3	43.0	154.3	32.5	35.3	43.5	43.9	155.1
		증가율	0.8	0.5	1.0	-6.4	-2.6	7.8	1.9	0.5
		구성비	34.8	36.9	33.2	24.2	36.0	39.2	39.7	34.2
	전체	건수	115.8	116.7	464.9	134.3	98.1	110.9	110.5	453.9
		증가율	0.7	-3.3	-3.3	2.5	-3.2	-4.3	-5.3	-2.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48.7	49.8	201.3	60.3	41.3	44.5	43.9	190.0
		증가율	-1.7	-2.9	-5.0	4.1	-8.1	-8.6	-11.9	-5.6
		구성비	36.5	36.6	38.8	47.7	35.8	34.1	32.9	37.6
	Non-cancellable	보험료	84.6	86.1	318.1	66.1	74.3	86.1	89.4	315.8
		증가율	0.9	4.2	1.0	-4.5	-5.0	1.7	3.8	-0.7
		구성비	63.5	63.4	61.2	52.3	64.2	65.9	67.1	62.4
	전체	보험료	133.2	135.9	519.4	126.4	115.6	130.6	133.2	505.8
		증가율	0.0	1.5	-1.4	-0.5	-6.1	-2.0	-2.0	-2.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5.3),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ales.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5)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6) Multilife 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부부 둘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임.

라. 손해보험

■ 2014년 4/4분기 미국 손해보험 총보험영업이익은 원수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지급보험금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약 62% 증가한 80억 달러를 시현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1,196억 달러를 기록함.

○ 지급보험금은 81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은 각각 4.9%, 3.6% 성장함.

■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이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28.6% 줄어든 132억 달러임.

○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은 각각 119억 달러, 1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9.2%, 75.7% 감소함.

■ 손해보험산업의 2014년 4/4분기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투자영업이익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3.8% 감소한 17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3.0%에서 2.4%p 하락한 10.6%를 나타냄.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 당기순이익 199억 달러에 비하여 27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10.5%로 전년동기 12.8%에 비해 2.3%p 하락함.

■ 2013년 4/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7.2%에서 약 2.3%p 하락한 94.9%로 개선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은 95.2%로 전년동기 97.4%와 비교했을 때 2.2%p 하락함.

■ 2014년 미국 손해보험 연간 당기순이익은 총보험영업이익과 총투자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2.7% 감소한 554억 달러를 기록함.

○ 2014년 연간 총보험영업이익은 122억 달러로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여 전년대비 20.2% 감소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4.1% 증가하였고, 지급보험금은 6.3% 증가함.
- ISO(Insurance Service Office)에 따르면 2014년 대재해 손실규모는 약 155억 달러로 2013년 129억 달러보다 약 26억 달러 늘어남.
- 2014년 연간 총투자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2% 감소하여 562억 달러임.
- 이에 따라 2014년 당기순이익은 554억 달러로 전년대비 12.7% 감소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8.4%로 전년대비 1.8%p 하락함.
- 2014년 미국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97.0%로 2013년 96.2%에 비해 악화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3			201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금액	126,018	114,090	477,042	121,421	124,983	130,567	119,603	496,574
	증가율	3.6	5.6	4.5	3.6	4.2	3.6	4.8	4.1
지급보험금	금액	77,601	79,475	315,053	80,789	87,605	84,982	81,628	335,004
	증가율	-6.1	-12.0	-5.5	8.6	4.8	9.5	2.7	6.3
보험영업이익	금액	8,388	6,212	17,761	2,908	-1,801	4,232	9,294	14,633
	증가율	1419.6	-175.9	-233.5	-42.7	-2.5	-49.5	49.6	-17.6
계약자 배당금	금액	261	1,252	2,514	673	270	261	1,264	2,468
	증가율	-17.4	25.1	18.4	21.3	-40.0	0.0	1.0	-1.8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8,127	4,960	15,247	2,235	-2,071	3,971	8,030	12,165
	증가율	3343.6	-154.0	-198.9	-50.6	-9.9	-51.1	61.9	-20.2
투자영업이익	금액	11,002	13,060	47,342	11,180	11,793	11,331	11,861	46,165
	증가율	-4.1	3.2	-1.2	-2.0	-0.3	3.0	-9.2	-2.5
실현자본이익	금액	2,139	5,363	11,369	2,933	4,234	1,593	1,301	10,061
	증가율	73.1	65.9	83.9	111.5	70.2	-25.5	-75.7	-11.5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3,141	18,423	58,711	14,113	16,027	12,923	13,162	56,225
	증가율	3.4	16.0	8.5	10.3	12.0	-1.7	-28.6	-4.2
세전영업이익 ²⁾	금액	19,692	18,599	64,076	13,654	10,133	12,714	19,017	55,518
	증가율	61.8	411.9	83.7	-13.5	1.2	-35.4	2.2	-13.4
당기순이익	금액	18,295	20,704	63,427	13,754	12,124	11,672	17,849	55,399
	증가율	72.4	185.5	80.8	-4.0	19.6	-36.2	-13.8	-12.7
자기자본(Surplus)	금액	623,884	653,380	653,380	662,013	671,575	673,929	674,714	674,714
	증가율	6.8	11.3	11.3	8.6	9.5	8.0	3.3	3.3
지급준비금	금액	573,230	573,406	573,406	574,648	578,342	579,056	575,607	575,607
	증가율	-0.4	-0.6	-0.6	-0.3	0.2	1.0	0.4	0.4
자기자본이익률		11.8	13.0	10.2	8.4	7.3	6.9	10.6	8.4
합산비율		91.8	97.2	96.2	97.3	100.6	95.5	94.9	97.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SO(2015.5),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2014.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 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 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5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0개사	96%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⁷⁾

〈생명보험 전체〉

■ 2015년 1/4분기 영국 생명보험 보험료 규모는 신규보험료⁸⁾ 기준으로 전년동기보다 19.7% 감소한 143억 2,974만 파운드였음.

○ 신규보험료 중 비중이 가장 큰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40.4% 감소하면서 생명보험 전체 신규보험료도 큰 폭으로 감소함.

■ 2015년 1/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는 17억 4,937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함.

○ 정기납 보험료 중 비중이 가장 큰 Work-based Pensions 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s) 등의 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정기납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2015년 1/4분기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125억 8,037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22.2% 감소함.

○ 일시납 보험료 비중이 큰 Individual Pension 보험료가 65.4% 증가하였으나 일시납 비중이 가장 큰 퇴직연금 보험료가 40.4% 감소하면서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전체적으로 감소함.

7)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1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8)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표 6>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정기납 신규보험료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7.9	8.8	8.9	6.9	32.6	8.4
	증가율	-8.3	-12.4	-34.1	-5.4	-19.1	5.5
	구성비	0.5	0.5	0.5	0.4	0.5	0.5
퇴직연금계좌	금액	1,169.5	1,242.3	1,127.9	1,009.2	4,549.2	1,044.6
	증가율	1.2	6.5	13.1	-16.2	0.6	-10.7
	구성비	70.0	69.1	67.5	59.0	66.4	59.7
Individual Pension	금액	68.0	78.1	73.5	72.9	292.6	80.7
	증가율	-16.4	-9.5	1.3	-5.6	-7.8	18.7
Personal Pension	금액	39.3	46.2	44.1	45.1	174.7	48.6
	증가율	-9.0	-15.3	8.3	11.0	-2.4	23.9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금액	11.9	13.3	12.2	12.1	49.6	12.8
	증가율	-21.8	-3.6	-7.8	3.0	-8.3	7.5
Work-based Pensions	금액	1,101.6	1,164.2	1,054.4	936.4	4,256.5	964.0
	증가율	2.6	7.8	14.0	-16.9	1.2	-12.5
Group Personal Pension	금액	929.8	1,024.1	921.6	827.2	3,702.7	853.0
	증가율	-1.4	13.1	15.1	-17.0	1.6	-8.3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금액	171.7	140.2	132.8	109.2	553.8	111.0
	증가율	31.5	-20.0	7.3	-16.8	-1.2	-35.4
퇴직연금	금액	223.9	287.2	277.1	446.8	1,235.0	438.0
	증가율	-33.4	-57.1	13.9	89.3	-16.9	95.7
	구성비	13.4	16.0	16.6	26.1	18.0	25.0
Defined Contributions(DC)	금액	105.0	150.1	87.4	83.9	426.3	84.5
	증가율	n.a	-41.8	7.0	-26.3	-48.6	-19.5
보장성보험	금액	270.4	260.7	257.4	246.4	1,035.3	258.4
	증가율	9.6	-6.1	0.3	-1.7	0.3	-4.5
	구성비	16.2	14.5	15.4	14.4	15.1	14.8
소계(A)	금액	1,671.8	1,799.0	1,671.7	1,703.4	6,846.1	1,749.4
	증가율	-4.3	-15.3	10.6	0.6	-3.3	4.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1,960.5	1,941.9	2,287.4	1,960.6	8,150.3	1,967.3
	증가율	-13.8	-3.0	9.9	-11.0	-4.8	0.3
	구성비	12.2	12.2	17.9	11.8	13.2	15.6
역외영업	금액	880.5	868.1	1,116.5	710.1	3,575.2	815.2
	증가율	-13.5	-16.9	7.4	-31.3	-13.6	-7.4
변액연동채권	금액	549.4	506.9	506.4	475.0	2,037.6	435.6
	증가율	-25.8	-8.0	-10.2	-20.0	-15.2	-20.7
보증/배당채권	금액	6.5	10.4	9.4	768.7	794.9	712.8
	증가율	-98.7	-97.4	-98.0	39.4	-58.7	10837.0
퇴직연금계좌	금액	3,323.0	3,428.3	2,927.7	3,373.6	13,052.6	4,164.1
	증가율	-14.5	-12.9	-9.2	4.5	-8.6	25.3
	구성비	20.7	21.6	22.9	18.7	20.8	33.1
Individual Pension	금액	1,919.7	1,982.1	1,954.6	2,016.3	7,892.7	3,175.5
	증가율	9.2	9.7	27.4	17.9	15.6	65.4
Personal Pension	금액	1,098.3	1,146.5	1,113.7	1,241.3	4,599.9	1,533.5
	증가율	2.0	-5.6	8.0	22.7	6.1	39.8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금액	105.2	113.7	77.7	79.9	376.5	128.4
	증가율	-21.6	3.1	32.9	26.7	2.9	22.0
SIPP	금액	696.1	708.1	750.3	683.1	2,837.6	1,497.7
	증가율	34.6	52.1	75.1	10.3	39.7	115.1
Work-based Pensions	금액	1,403.2	1,446.3	973.1	1,357.3	5,179.6	988.6
	증가율	-34.1	-32.2	-42.4	-10.6	-30.6	-29.5
Group Personal Pension	금액	1,312.4	1,361.9	921.0	1,306.0	4,901.3	918.2
	증가율	-30.5	-33.8	-43.6	-10.3	-30.3	-30.0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금액	90.8	84.4	52.2	51.3	278.7	70.4
	증가율	-18.6	14.6	-11.5	-16.0	-8.7	-22.5
퇴직연금	금액	7,790.4	8,028.0	5,288.5	10,661.4	31,756.7	4,646.0
	증가율	37.7	99.2	-38.6	93.0	33.4	-40.4
	구성비	48.5	50.5	41.4	59.0	50.6	36.9
Trustee Investment Plans	금액	2,385.7	4,884.5	2,095.3	5,636.1	15,001.6	3,053.2
	증가율	-42.0	87.4	-25.6	107.0	22.4	28.0
Bulk Buyouts	금액	4,315.9	2,882.2	1,732.4	4,742.8	13,904.8	982.9
	증가율	327.4	151.9	-67.7	148.0	47.4	-78.4
보장성보험	금액	43.3	29.6	36.6	40.1	149.5	34.2
	증가율	-11.5	-32.9	-33.1	-19.6	-24.3	-20.9
	구성비	0.3	0.2	0.3	0.2	0.2	0.3
퇴직소득보험	금액	3,050.5	2,562.2	2,330.8	1,954.4	9,897.8	1,768.8
	증가율	-15.4	-27.3	-31.0	-38.1	-27.6	-42.0
	구성비	18.4	15.5	17.5	10.3	15.2	14.1
소계(B)	금액	16,167.6	15,989.9	12,871.0	19,990.0	63,018.6	12,580.4
	증가율	4.5	18.1	-25.8	27.0	4.1	-22.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총계(A+B)	금액	17,839.4	17,789.2	14,542.7	19,693.4	69,864.7	14,329.7
	증가율	3.6	13.6	-22.9	24.1	3.3	-19.7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n.a.는 통계집계방식 변경에 의해 자료가 없는 경우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투자 및 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5년 1/4분기 투자 및 저축 신규보험료는 역외영업 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투자 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함.
 - 일시납 투자 및 저축 보험종목은 역외영업 신규보험료가 7.4% 감소하였으나 보증/배당채권 신규보험료가 10837.0%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 보험료가 0.3% 확대됨.
 - 정기납 투자 및 저축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하면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5년 1/4분기 퇴직연금계좌⁹⁾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정기납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가 10.7% 감소하였으나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가 25.3%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5.9% 늘어남.
- 2015년 1/4분기 정기납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함.
 - 정기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Personal Pension이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하고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도 7.5%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8.7% 확대됨.
 -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s) 보험료는 Group Personal Pension의 판매가 8.3% 감소하고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도 35.4%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12.5% 축소됨.
- 2015년 1/4분기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단체개인연금계좌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개인연금계좌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5.3% 확대됨.

9) 퇴직연금계좌는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등)와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s, Group SIPP 등)로 구분됨.

- 일시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큰 Personal Pension 보험료가 전년 동기대비 35.4% 늘어나고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22.0%, 115.1%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65.4% 확대됨.
- 일시납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9.5% 축소되었는데, 이는 규모가 가장 큰 Group Personal Pension 보험료가 30.0% 감소하고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보험료도 22.5% 줄어들었기 때문임.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5년 1/4분기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¹⁰⁾ 전체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6.6% 감소한 50억 8,400만 파운드¹¹⁾로 집계됨.
- 2015년 1/4분기 정기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5.7% 증가한 4억 3,798만 파운드로 증가세로 전환됨.
 - 이는 정기납 퇴직연금에서 가장 비중이 큰 DC형 퇴직연금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9.5% 감소하였으나 기타 종목의 보험료가 증가한 데 기인함.
- 한편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비중이 큰 종목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타 종목들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0.4% 축소된 46억 4,602만 파운드¹¹⁾로 집계됨.
 - TIPs가 28.0% 증가하였으나 Bulk Buyouts¹¹⁾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8.4% 감소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2015년 1/4분기 보장성보험 전체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2억 9,261만 파운드로 집계됨.

10) 퇴직연금은 Defined Benefits, Defined Contributions, Group AVCS, TIPs(Trustee Investment Plans), Buyouts 등으로 구분함.

11) DB형 퇴직연금 관리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임.

■ 정기납 보장성보험료¹²⁾는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한 2억 5,838만 파운드임.

- 모기지관련 정기보험이 14.2% 감소하면서 개인 보장성보험은 3.8% 줄어들었으며, 단체 보장성 신규보험료도 5.6%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축소됨.

■ 일시납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0.9% 감소한 3,423만 파운드였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감.

〈퇴직소득보험 신규보험료〉

■ 2015년 1/4분기 일시납 퇴직소득보험¹³⁾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2.0% 감소한 17억 6,875만 파운드임.

- 소득인출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6.0% 증가하였으나, 가장 규모가 큰 종신연금 신규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60.1%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5년 1/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독립 자문의 비중이 가장 크고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이었으며, 전년동기대비 독립 자문 비중이 축소되고 無자문 비중이 확대됨.

- 전체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보다 9%p 감소한 68.5%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계좌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이 82.5%로 가장 컸음.
- 無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8.9%p 증가한 20.4%였으며,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 중 無자문 채널 비중이 70.1%로 가장 컸음.
- 제한적 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보다 0.1%p 증가한 11.1%를 차지했으며,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 중 비중이 15.4%로 가장 컸음.

12) 정기납 보장성보험(Protection Products)은 개인보험인 정기생명보험(Term Life), 종신보험(Whole Life), CI(Critical Illness),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과 단체보험인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CI(Group Critical Illness), 단체소득보장(Group Income Protection)보험으로 구분함.

13)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납 수령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ies),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나뉨.

■ 2015년 1/4분기 일시납 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크기는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동기대비 독립 자문 비중만 감소함.

- 일시납 전체 판매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5.5%p 줄어든 56.9%였으며, 종목별로 살펴보면 퇴직연금계좌 82.5%, 보장성보험 69.6%로 비중이 크고, 투자 및 저축 보험의 비중이 20.3%로 가장 작았음.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26.0%로 전년동기대비 7.5%p 증가하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소득보험 중 동 채널의 비중이 43.6%, 퇴직연금의 경우 32.3%를 차지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채널의 판매비중은 17.1%로 전년동기보다 8.0%p 증가했고, 종목별로는 퇴직연금 중 동 채널의 비중은 20.2%로 비교적 컸고 퇴직연금계좌의 경우에는 5.0%로 가장 작았음.

〈표 7〉 2015년 1/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20.3	79.0	9.6	19.2	70.1	1.7
퇴직연금계좌	82.5	71.9	12.0	5.0	5.4	23.1
퇴직연금	35.1	37.5	6.4	30.2	58.4	32.3
보장성보험	69.6	88.2	15.4	8.5	15.0	3.3
퇴직소득보험	-	47.4	-	9.0	-	43.6
전체 ³⁾	68.5	56.9	11.1	17.1	20.4	26.0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비중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채널 파악이 안 된 경우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5년 1/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보험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한 2억 3,051만 파운드였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7.7% 축소된 2,049만 파운드였는데, 이는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40.0% 감소하고 퇴직연금계좌 보험료도 68.0% 줄어든데 기인함.

○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 중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한 2억 1,003만 파운드였으며,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의 경우 2815.4% 증가¹⁴⁾하였으나 나머지 전 종목들이 모두 감소함.

〈표 8〉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4					2015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0.3 (217.6)	0.0 (6.1)	0.0 (109.1)	0.1 (11.4)	0.6 (-7.3)	0.1 (-55.7)	4.0 (-98.6)	4.3 (-96.3)	5.3 (-95.7)	124.7 (-2.8)	138.4 (-79.1)	117.9 (2815.4)
퇴직연금계좌	12.0 (23.0)	7.9 (-28.2)	6.2 (-70.4)	6.8 (-31.1)	32.8 (-36.1)	3.3 (-68.0)	28.2 (-34.5)	32.2 (2.0)	18.4 (-35.9)	17.1 (-46.2)	95.9 (-29.1)	16.8 (-40.7)
퇴직연금	0.0 (n.a)	0.0 (n.a)	0.0 (0.0)	0.0 (0.0)	0.0 (116.7)	0.4 (-)	54.9 (-3.9)	40.5 (4.3)	5.5 (-89.6)	3.7 (92.9)	104.5 (-48.0)	0.0 (-100.0)
역외영업	0.0 (15.4)	0.0 (1.8)	0.1 (28.9)	0.0 (15.2)	0.2 (14.5)	0.0 (-11.1)	94.3 (9.3)	76.6 (-15.3)	70.5 (-17.5)	72.1 (-40.4)	313.6 (-18.2)	62.6 (-33.6)
보장성보험	26.9 (-20.4)	23.7 (-20.4)	22.3 (-19.1)	17.0 (-38.2)	89.8 (-25.5)	16.1 (-40.0)	4.4 (10.7)	5.9 (35.8)	4.0 (-32.7)	3.5 (-42.0)	17.8 (-17.5)	3.8 (-13.9)
퇴직소득보험 ¹⁾	-	-	-	-	-	-	32.2 (-49.9)	20.7 (-53.5)	22.2 (-55.2)	15.7 (-64.5)	90.9 (-55.2)	8.9 (-72.2)
전체	39.2 (-6.9)	31.8 (-22.9)	28.5 (-41.5)	23.9 (-36.2)	123.4 (-28.5)	20.5 (-47.7)	218.0 (-60.3)	180.1 (-44.6)	126.0 (-63.7)	236.8 (-38.4)	760.9 (-52.6)	210.0 (-3.6)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합침.

2) () 안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통계집계변경으로 인해 2014년 1/4분기부터 표시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14) 투자 및 저축보험 종목의 경우 2014년 1/4 ~ 3/4분기 통계치가 대폭 수정됨.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¹⁵⁾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4 4/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개인연금 및 단체보험 신규계약의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0.1% 성장에 그치며 21조 3,977억 엔을 나타냄.

○ 4/4분기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생사혼합보험이 줄어들었지만,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함.

- 사망보험의 경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신규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8.8%, 15.8% 증가하며 성장세가 가속화됨.

- 반면,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과 기타 생사혼합보험의 신규계약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0.1%, 7.5% 감소함.

○ 4/4분기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변액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액연금보험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9.0%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됨.

- 4/4분기 변액연금보험 계약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정액연금보험 계약은 전년 동기대비 29.2% 감소함.

○ 한편, 4/4분기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은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¹⁶⁾ 포함)과 단체신용생명보험 계약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49.2% 감소한 1조 324억 엔을 기록함.

- 4/4분기 단체정기보험과 단체신용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8.4%, 75.1% 감소함.

15)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부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6)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3	FY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 인	금액	677,145	165,379	173,735	177,931	181,996	699,041
	증가율	-7.5	4.8	-0.2	-0.3	9.1	3.2
	구성비	84.5	83.9	86.5	87.1	85.1	85.6
사 망	금액	561,456	139,541	147,363	152,700	156,296	595,900
	증가율	-8.5	7.1	2.2	5.3	10.1	6.1
	구성비	70.0	70.8	73.4	74.7	73.0	73.0
정기보험	금액	290,916	71,808	78,434	80,119	80,630	310,991
	증가율	-7.4	8.0	5.8	5.2	8.8	6.9
종신보험	금액	145,252	33,940	36,711	39,048	42,385	152,084
	증가율	-17.0	5.2	-8.1	7.1	15.8	4.7
생사 혼합	금액	109,217	20,790	21,617	21,006	21,284	84,697
	증가율	-3.4	-20.6	-24.2	-33.7	-6.8	-22.5
	구성비	13.6	10.5	10.8	10.3	9.9	10.4
양로보험 ²⁾	금액	54,467	11,691	12,518	11,138	11,442	46,789
	증가율	-5.0	-14.6	-15.2	-16.2	-10.1	-14.1
기 타	금 액	51,114	8,063	8,041	8,625	8,450	33,179
	증가율	-3.4	-31.0	-37.5	-50.5	-7.5	-35.1
생 존	금액	6,473	5,048	4,755	4,225	4,416	18,444
	증가율	29.1	260.6	230.2	159.4	120.4	184.9
	구성비	0.8	2.6	2.4	2.1	2.1	2.3
개인연금	금액	79,734	21,340	21,640	21,917	21,656	86,553
	증가율	-6.8	34.0	21.1	14.2	-19.0	8.6
	구성비	9.9	10.8	10.8	10.7	10.1	10.6
정액연금	금액	70,542	18,011	17,075	17,782	17,151	70,019
	증가율	-12.1	35.3	6.9	4.4	-29.2	-0.7
변액연금	금액	9,192	3,329	4,565	4,134	4,505	16,534
	증가율	74.5	27.2	139.6	92.5	78.6	79.9
단체보험	금액	44,794	10,376	5,380	4,529	10,324	30,609
	증가율	47.3	-0.5	32.6	-54.7	-49.2	-31.7
	구성비	5.6	5.3	2.7	2.2	4.8	3.8
단체정기 ³⁾	금액	35,141	4,358	4,360	3,326	8,843	20,888
	증가율	50.6	-56.4	26.8	-54.8	-38.4	-40.6
단체신용생명	금액	9,653	6,018	1,020	1,203	1,481	9,722
	증가율	36.3	1,312.7	65.0	-54.6	-75.1	0.7
합계	금액	801,673	197,095	200,755	204,377	213,977	816,204
	증가율	-5.5	7.0	2.4	-1.5	0.1	1.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4 4/4분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규모는 부동산과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금전신탁, 유가증권 등 주요 자산 규모 증가로 인해 전분기대비 0.3% 증가한 367조 2,552억 엔을 기록함.

〈표 10〉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엔, %)

구분 ^{1),2)}	FY2013		FY2014							
	4/4		1/4		2/4		3/4		4/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44,168	21.8	41,816	-5.3	47,833	14.4	47,921	0.2	56,080	17.0
단기자금	26,697	43.1	26,923	0.8	26,645	-1.0	31,163	17.0	36,730	17.9
매입금전채권	25,859	-2.5	26,559	2.7	26,923	1.4	27,738	3.0	27,908	0.6
금전신탁	24,592	6.3	28,909	17.6	29,906	3.4	33,016	10.4	33,326	0.9
유가증권	2,850,318	-0.9	2,864,775	0.5	2,928,616	2.2	2,990,051	2.1	2,994,295	0.1
- 국채	1,498,157	-0.1	1,489,079	-0.6	1,495,263	0.4	1,490,328	-0.3	1,487,617	-0.2
- 지방채	140,089	-2.2	140,116	0.0	139,861	-0.2	140,332	0.3	138,686	-1.2
- 회사채	248,959	-1.5	246,686	-0.9	247,828	0.5	249,524	0.7	248,553	-0.4
- 주식	180,299	-5.3	182,800	1.4	192,412	5.3	208,477	8.3	226,979	8.9
- 외화증권	614,509	0.2	638,222	3.9	688,462	7.9	737,440	7.1	732,805	-0.6
대출금	380,992	-1.4	378,104	-0.8	373,651	-1.2	374,598	0.3	368,103	-1.7
부동산	62,372	-1.1	62,560	0.3	63,141	0.9	62,777	-0.6	62,410	-0.6
운용자산 ³⁾	3,448,009	-0.2	3,457,515	0.3	3,525,635	2.0	3,597,370	2.0	3,609,993	0.4
비운용자산	57,817	-3.3	62,650	8.4	60,185	-3.9	63,332	5.2	62,559	-1.2
총자산 ⁴⁾	3,505,826	-0.3	3,520,165	0.4	3,585,820	1.9	3,660,702	2.1	3,672,552	0.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4/4분기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등의 자산 규모는 각각 전분기보다 17.0%, 17.9%, 0.6% 증가함.
- 또한, 3/4분기 금전신탁은 전분기대비 0.9% 성장하였으며, 운용자산도 전분기대비 0.4% 증가함.
- 4/4분기 유가증권은 주식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의 소폭 감소로 전분기대비 0.1% 성장에 그치며 299조 4,295억 엔을 나타냄.
 - 4/4분기 주식 규모의 경우 미국 주식시장 호조 및 엔화 약세로 인해 8.9% 증가함.
 - 반면, 국채를 비롯하여 지방채와 회사채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0.2%, 1.2%, 0.4% 감소함.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4 4/4분기 손해보험의 경우 운송보험과 상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한 2조 1,963억 엔으로 집계됨.
 - 4/4분기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하였고,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1% 성장하며 증가폭이 커짐.
 - 동 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9,768억 엔으로 집계되었고,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한 2,671억 엔으로 집계됨.
 - 4/4분기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보험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한 2,267억 엔이었음.
 - 특종보험 중 비중이 큰 배상책임보험(43.1%)의 원수보험료가 5.6% 감소하며,¹⁷⁾ 특종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 성장에 그친 2,622억 엔으로 집계됨.

17) 일본손해보험협회 자료.

〈표 11〉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2),3)}		FY2013	FY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14,523	3,624	3,482	4,140	3,902	15,148
	증가율	2.8	5.6	-0.4	7.4	4.3	4.3
	구성비	16.9	16.1	16.2	18.6	17.8	17.2
해상	보험료	2,167	569	539	545	573	2,227
	증가율	9.5	1.2	2.1	2.6	5.1	2.8
	구성비	2.5	2.5	2.5	2.4	2.6	2.5
운송	보험료	644	172	152	157	160	642
	증가율	1.9	0.0	0.0	0.0	-1.8	-0.3
	구성비	0.8	0.8	0.7	0.7	0.7	0.7
자동차	보험료	37,505	9,740	9,417	9,714	9,768	38,639
	증가율	4.4	3.5	4.2	0.6	3.8	3.0
	구성비	43.8	43.3	43.9	43.6	44.5	43.8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10,229	2,582	2,487	2,549	2,671	10,289
	증가율	9.9	1.7	-3.8	1.2	3.4	0.6
	구성비	11.9	11.5	11.6	11.4	12.2	11.7
상해	보험료	10,134	2,824	2,643	2,639	2,267	10,373
	증가율	-1.6	1.9	1.7	8.3	-2.5	2.4
	구성비	11.8	12.5	12.3	11.8	10.3	11.8
특종	보험료	10,486	3,004	2,737	2,535	2,622	10,898
	증가율	8.7	6.2	7.4	0.9	1.0	3.9
	구성비	12.2	13.3	12.8	11.4	11.9	12.4
합계	보험료	85,688	22,517	21,458	22,279	21,963	88,217
	증가율	4.6	3.7	2.4	2.8	2.8	3.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임. 그리고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보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4 4/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환매조건부채권, 부동산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입금전채권, 유가증권, 운용자산 등의 자산 규모 증가로 전분기대비 2.2% 성장한 30조 9,605억 엔으로 집계됨.

〈표 12〉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3		FY2014							
		4/4		1/4		2/4		3/4		4/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8,612	18.4	6,734	-21.8	9,175	36.2	9,507	3.6	9,288	-2.3
단기자금		4,044	0.8	5,135	27.0	4,822	-6.1	3,363	-30.3	3,199	-4.9
환매조건부채권		2,710	-26.8	3,294	21.6	5,059	53.6	6,674	31.9	1,735	-74.0
매입금전채권		1,383	-43.4	1,617	16.9	1,800	11.3	2,137	18.7	4,453	108.4
금전신탁		1,193	0.1	985	-17.5	1,145	16.2	1,291	12.7	1,353	4.8
유가증권	국 채	66,010	2.2	67,608	2.4	66,050	-2.3	65,576	-0.7	64,809	-1.2
	지방채	3,461	-3.2	3,368	-2.7	3,270	-2.9	3,213	-1.7	3,192	-0.6
	회사채	26,193	0.6	24,688	-5.7	24,079	-2.5	24,287	0.9	24,075	-0.9
	주 식	67,307	-8.6	68,727	2.1	72,069	4.9	75,959	5.4	82,164	8.2
	외화증권	52,922	-0.5	53,696	1.5	55,551	3.5	57,514	3.5	58,968	2.5
	기타증권	2,470	3.2	2,329	-5.7	2,334	0.2	2,339	0.2	2,315	-1.0
	소 계	218,363	-2.2	220,416	0.9	223,353	1.3	228,889	2.5	235,523	2.9
대출금		16,252	-2.6	16,121	-0.8	15,743	-2.3	15,822	0.5	18,624	17.7
부동산		10,225	-0.9	10,150	-0.7	9,975	-1.7	9,895	-0.8	9,836	-0.6
운용자산		262,784	-2.3	264,453	0.6	271,072	2.5	277,578	2.4	284,011	2.3
비운용자산 ²⁾		26,514	1.7	25,736	-2.9	24,271	-5.7	25,461	4.9	25,593	0.5
총자산		289,298	-2.0	290,190	0.3	295,344	1.8	303,039	2.6	309,605	2.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4/4분기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2.3% 감소한 9,288억 엔이었으며, 단기자금도 전분기 대비 4.9% 감소한 3,199억 엔으로 집계됨.
- 환매조건부채권은 전분기대비 74.0% 감소한 반면, 매입금전채권, 금전신탁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108.4%, 4.8% 증가함.
- 유가증권의 경우 4/4분기 국채와 지방채, 회사채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지만, 주식, 외화증권 등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2.9% 늘어남.
 - 4/4분기 국채와 지방채는 전분기대비 각각 1.2%, 0.6% 줄어들며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회사채도 전분기대비 0.9% 감소함.
 - 주식의 경우 미국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에 따른 주식 호조로 전분기대비 8.2% 성장하였고, 외화증권도 전분기대비 2.5% 증가함.
- 4/4분기 대출금은 일반대출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17.7% 증가한 반면, 부동산은 전분기대비 0.6% 감소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 동향¹⁸⁾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5년 1/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8,42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0.4% 증가함.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는 고성장세를 지속함.
- 2015년 1/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4.3% 증가한 2,311억 위안, 사업비는 14.0% 증가한 699억 위안으로 집계됨.
 -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축소되었으나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상승함.

〈표 13〉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입보험료	금액	17,222	7,000	4,489	4,445	4,301	20,235	8,425
	증가율 ³⁾	11.2	35.9	2.9	13.4	13.5	17.5	20.4
인보험	금액	11,010	5,243	2,623	2,726	2,439	13,031	6,446
	증가율 ³⁾	8.4	44.1	-4.5	12.4	10.9	18.4	22.9
손해보험	금액	6,212	1,757	1,866	1,719	1,862	7,203	1,979
	증가율 ³⁾	16.5	16.1	15.6	15.0	17.0	16.0	12.6
지급보험금	금액	6,213	1,859	1,672	1,706	1,978	7,216	2,311
	증가율 ³⁾	31.7	24.9	13.4	10.3	16.1	16.1	24.3
인보험	금액	2,774	1,025	793	778	832	3,428	1,397
	증가율 ³⁾	46.0	35.2	11.7	13.0	34.8	23.6	36.3
손해보험	금액	3,439	834	879	928	1,147	3,788	915
	증가율 ³⁾	22.1	14.2	14.9	8.2	5.5	10.2	9.7
사업비	금액	2,500	613	656	671	857	2,796	699
	증가율 ³⁾	15.1	12.3	12.1	12.4	10.9	11.9	14.0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8)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자산운용〉

■ 2015년 1/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7.0% 증가한 10조 8,703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6.0% 증가한 9조 8,941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 대비 17.9% 증가한 9,762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예치금 및 투자금의 비중은 비운용자산의 비중 확대로 전분기에 비해 축소하였음.

○ 예치금은 2조 6,386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4.2% 증가하였으나 총자산대비 예치금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0.6%p 감소한 24.3%를 기록함.

○ 투자금은 7조 2,555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6.7% 증가하였으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66.9%에서 66.7%로 하락함.

○ 비운용자산은 9,762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7.9% 증가하였으며 총자산대비 비운용자산은 전분기에 비해 0.9% 증가한 9.0%로 나타남.

〈표 14〉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운용자산계	금액	76,873	82,228	85,907	87,677	93,314	93,314	98,941
	증가율 ³⁾	12.2	7.0	4.5	2.1	6.4	21.4	6.0
	구성비	92.7	91.9	91.6	91.3	91.9	91.9	91.0
예치금	금액	22,641	25,031	25,618	25,095	25,311	25,311	26,386
	증가율 ³⁾	-3.4	10.6	2.3	-2.0	0.9	11.8	4.2
	구성비	27.3	28.0	27.3	26.1	24.9	24.9	24.3
투자금	금액	54,232	57,197	60,288	62,582	68,004	68,004	72,555
	증가율 ³⁾	20.3	5.5	5.4	3.8	8.7	25.4	6.7
	구성비	65.4	63.9	64.3	65.1	66.9	66.9	66.7
비운용자산계 ⁴⁾	금액	6,014	7,231	7,831	8,399	8,277	8,277	9,762
	증가율 ³⁾	20.2	20.2	8.3	7.3	-1.5	37.6	17.9
	구성비	7.3	8.1	8.4	8.7	8.1	8.1	9.0
총자산	금액	82,887	89,459	93,737	96,076	101,591	101,591	108,703
	증가율 ³⁾	12.7	7.9	4.8	2.5	5.7	22.6	7.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분기대비.

4)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¹⁹⁾

〈수입보험료〉

- 2015년 1/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6,44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9% 증가함.
 - 상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축소되었으나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도 확대됨.
- 2015년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통형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22.3% 증가한 5,633억 위안을 기록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2013년 8월 전통형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통형 생명보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통형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음.
 - 전문가들은 이번 예정이율 상한 폐지로 전통형 생명보험 가격이 약 30~50% 정도 하락하였다고 추정함.
 - 중국 화룽증권(Huarong Securities)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전통형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3,08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8.1% 증가하였음.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중국인의 국민소득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전년동기대비 32.5% 증가한 652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한 161억 위안임.
 - 중국 국가통계국(NBSPRC)에 따르면 2014년 중국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 8,844위안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하였음.
- 2015년 1/4분기 중국 자본시장의 호황으로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모두 플러스로 나타남.

19)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음.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통칭되며 투자형 상품은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해당됨.

- 귀진증권(Sinolink Securities)에 따르면 194개 변액보험 투자계정의 평균수익률은 14.1%로 나타남.
- ICBC-AXA Life 및 MetLife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²⁰⁾의 수익률은 각각 6.2%와 4.6%였음.

〈표 15〉 인보험 수입보험료^{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료	11,010	5,243	2,623	2,726	2,439	13,031	6,446
	증가율 ⁴⁾	8.4	44.1	-4.5	12.4	10.9	18.4	22.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명보험	보험료	9,425	4,607	2,080	2,216	1,998	10,902	5,633
	증가율 ⁴⁾	5.8	42.9	-10.8	9.0	8.9	15.7	22.3
	구성비	85.6	87.9	79.3	81.3	81.9	83.7	87.4
건강보험	보험료	1,123	492	401	367	327	1,587	652
	증가율 ⁴⁾	30.2	66.8	37.3	35.6	22.9	41.3	32.5
	구성비	10.2	9.4	15.3	13.5	13.4	12.2	10.1
상해보험	보험료	461	144	142	143	114	543	161
	증가율 ⁴⁾	19.5	21.0	14.5	17.5	17.5	17.6	11.8
	구성비	4.2	2.7	5.4	5.2	4.7	4.2	2.5

주: 1) 기간별 실적치기준.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5년 1/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39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6.3%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1,195억 위안, 169억 위안, 3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8.5%, 27.1%, 13.8% 증가함.

20)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현재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ICBC-AXA Life 및 MetLife 2개사가 있음.

〈표 16〉 인보험 지급보험금^{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금	2,774	1,025	793	778	832	3,428	1,397
	증가율 ⁴⁾	46.0	35.2	11.7	13.0	34.8	23.6	36.3
생명보험	보험금	2,253	863	639	604	623	2,728	1,195
	증가율 ⁴⁾	49.7	34.0	7.6	8.1	36.4	21.1	38.5
건강보험	보험금	411	133	124	140	173	571	169
	증가율 ⁴⁾	38.0	49.4	34.8	38.3	34.9	38.9	27.1
상해보험	보험금	110	29	30	34	35	128	33
	증가율 ⁴⁾	12.9	16.0	25.0	18.2	11.9	17.3	13.8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4/4분기와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데 반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4.6%로 전분기에 비해 1.9%p 상승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7.3%에서 5.4%로 하락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AIA China, BoCommlife로 나타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²¹⁾의 시장점유율은 60.3%로 전분기에 비해 0.8%p 하락함.

21)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중국린쇼우생명, 중국핑안생명, 중국런민생명, 신화생명, 중국타이핑양 생명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4.3%, 12.8%, 9.0%, 8.2%, 6.0%임(2015년 1/4분기 기준).

〈표 17〉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69.5	65.8	58.9	60.7	61.1	62.5	60.3
		중·소형사 ³⁾	24.9	30.5	33.9	32.3	31.7	31.8	34.3
		소계	94.4	96.3	92.8	93.0	92.7	94.2	94.6
	외국계		5.6	3.7	7.2	7.0	7.3	5.8	5.4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 2015년 1/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97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함.

○ 손해보험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소폭 축소되면서 손해보험 수입보험의 증가율도 소폭 하락하였음.

- 2015년 1/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은 3.9%로 전분기 6.4%에 비해 2.5%p 하락하였음.

〈표 18〉 손해보험 수입보험료^{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료 ³⁾	6,212	1,757	1,866	1,719	1,862	7,203	1,979
	증가율 ⁴⁾	16.5	16.1	15.6	15.0	17.0	16.0	12.6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5년 1/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91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함.

- 기업재산보험, 책임보험 등 비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전체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함.

〈표 19〉 손해보험 지급보험금^{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금 ³⁾	3,439	834	879	928	1,147	3,788	915
	증가율 ⁴⁾	22.1	14.2	14.9	8.2	5.5	10.2	9.7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1.0%p 상승한 98.1%로 나타났으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2.9%에서 1.9%로 하락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²²⁾의 시장점유율은 65.0%로 전분기에 비해 2.2%p 상승함.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XA Tianping P&C, AIG, Liberty Mutual로 조사됨.

22)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중국런민재산, 중국평안재산, 중국타이핑양재산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3.5%, 19.9%, 11.6%임(2015년 1/4분기 기준).

〈표 20〉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4.8	65.5	64.8	65.8	62.8	64.7	65.0
		중·소형사 ³⁾	33.9	33.3	32.5	32.0	34.4	33.1	33.1
		소계	98.7	98.9	97.3	97.8	97.1	97.8	98.1
	외국계		1.3	1.1	2.7	2.2	2.9	2.2	1.9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3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²³⁾

■ 2015년 1/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25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4.2% 크게 증가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는 3,479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0.1% 증가함.

○ 2014년 1/4분기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는 2015년 1/4분기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 증가율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1〉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탁보험료 ²⁾	금액	589	166	141	133	168	607	256
	증가율 ²⁾	-11.1	-0.6	-3.4	0.1	17.4	3.1	54.2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2,495	2,648	2,804	2,949	3,160	3,160	3,479
	증가율 ³⁾	24.2	6.1	5.9	5.2	7.2	26.6	10.1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3)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금보험회사를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중국 내에 설립된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런쇼우, 장장, 타이강 등 5개 회사임.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투자형 상품인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형 상품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록 ▶ 2014년 세계 자연재해 및 인재 현황¹⁾

1. 2014년 세계 자연재해 및 인재 현황 개관

가. 재해 기록

■ Swiss Re의 기준²⁾으로 2014년에 전 세계에 발생한 총 재해는 336건으로 2013년 325건에 비해 증가함.

○ 2014년 발생한 자연재해는 총 189건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166건에 비해 23건 증가함.

○ 2014년 발생한 인재는 147건으로 2013년 159건에 비해 12건 감소함.

1) 본고는 Swiss Re(2015), "Natural catastrophes and man-made disasters in 2014: convective and winter storms generate most losses"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2) Swiss Re의 재해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 기준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초과하거나 총 경제 손해액 또는 사상자 수가 초과할 경우 대재해로 분류함.

〈주석 표 1〉 Swiss Re 2014년 보험액 및 사상자에 대한 기준

(단위: 만 달러, 명)

종류	기준 금액
보험 손해액(지급보험금)	
해상재난	1,960
항공	3,930
기타	4,880
총 경제 손실액	9,760
희생자 수	
사망 및 행방불명	20
상해	50
거주지 상실	2,000

나. 희생자 현황

- 2014년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2,700여 명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절반 수준이며, 단일 연도로는 가장 낮은 수준임.
-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및 행방불명자는 약 7,000명으로 지진, 홍수 등 날씨로 인한 재해가 주요 원인임.
 - 2014년 8월 중국 윈난성 대지진으로 인해 731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고, 홍수, 흑한,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도, 파키스탄, 페루, 네팔 등 각국에서 희생자가 발생함.
- 인재로 인한 사망 및 행방불명자는 약 5,700명인데 이는 2013년 수준과 비슷함.
 - 해양사고로 2,118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한국의 세월호 침몰 사고(304명 사망), 터키 광산 화재(301명 사망), 우크라이나 비행기 추락(298명 사망) 등의 사고들이 있었음.
 - 약 960명이 항공사고로 생명을 잃었으며, 이는 2013년 항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약 5배 증가한 수준임.
 -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61명으로 2013년 1,192명에 비하여 약 119명 증가함.

다. 총 경제 손실액 및 보험손해액 현황

1) 총 경제 손실액

- 자연재해 및 인재로 발생한 총 경제 손실액은 약 1,100억 달러이고, 2013년 경제 손실액 1,380억 달러에 비하여 감소함.
 - 자연재해 및 인재로 발생한 총 경제 손실액은 GDP 대비 약 0.14%이며, 이는 10년 전 GDP 대비 총 경제 손실액 비중 0.30%에 비하여 하락한 수치임.
- 자연재해로 인한 총 경제 손실액은 주로 홍수와 폭풍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약 1,010억 달러를 기록함.

■ 인재로 인한 총 경제 손실액은 약 90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2) 보험 손해액³⁾

■ 재해로 인한 총 보험 손해액은 약 350달러로 총 경제 손실액의 1/3 수준임.

■ 자연재해로 발생한 보험 손해액은 약 2,800억 달러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자연재해로 발생한 보험 손해액은 GDP 대비 0.04%이며 이는 10년 전 0.08%에 비하여 하락한 수치임.
-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와 비교하였을 때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해액은 1.8% 수준이며, 10년 전에는 3.8%였음.
- 2014년 5월 미국에서 발생한 폭풍의 보험 손해액 규모는 29억 달러로 2014년 최대 규모의 보험손실을 기록하였고, 6월 유럽에서 발생한 태풍 Ela가 프랑스, 벨기에에 우박을, 독일에 강풍을 유발하며 보험손해액 약 22억 달러를 기록함.
- 유럽에서 발생한 우박 피해는 스위스리 기록상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손실을 유발한 우박 재해로 기록됨.

〈표 1〉 2013년 및 2013년 총 경제적 손실액 및 보험 손해액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4	2013	10년 평균	연간 증가율
총 경제 손실액	1,100	1,380	2,000	-20
자연재해	1,010	1,290	1,880	-21
인재	90	90	120	-2
보험 손해액	350	440	640	-22
자연재해	280	370	5570	-24
인재	70	80	60	-11

자료: Swiss Re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및 Cat Perils.

3) 보험 손해액(insured losses): 자연재해 및 인재로 발생한 총 경제적 손실 중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보전이 가능한 손실을 의미함.

〈표 2〉 2014년 최대 보험손실 재해

(단위: 억 달러)

순위	발생시기	보험 손해액	총 경제 손실액	재해 종류	국가
1	5월	29	37	뇌우, 우박	미국
2	2월	25	50	눈보라	일본
3	6월	22	31	폭풍우 및 우박동반 폭풍(Ela)	프랑스, 독일, 벨기에
4	9월	17	33	허리케인(Odile)	멕시코
5	1월	17	25	겨울폭풍	미국
6	6월	13	17	뇌우, 토네이도	미국
7	4월	12	19	뇌우, 토네이도	미국
8	4월	11	16	뇌우, 토네이도	미국

주: 재물 손괴 및 기업휴지(배상책임 및 생명보험 제외).
 자료: 스위스리(2015, 3) 보도자료.

■ 총 경제 손실액 증가율이 보험 손해액 증가율보다 높으며, 재해로 발생한 총 경제 손실 중 보험이 보증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는 보험보호격차(Insurance protection gap)는 2014년 750억 달러를 기록함.

-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총 경제 손해액 증가율은 11.4%이며, 보험 손해액 증가율은 10.7%임.
- 경제성장, 인구 증가, 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총 경제적 손실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보험가입률이 증가하지 않아 보험보호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2. 2014년 지역별 자연재해 및 인재 현황

■ 2014년에는 일련의 대규모 대류폭풍⁴⁾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보험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아시아의 사이클론, 중국의 지진, 인도와 파키스탄의 홍수도 많은 사망자를 초래함.

〈표 3〉 2014년 지역별 재해 규모 및 손해액 현황

(단위: 건, 명, 억 달러, %)

지역	발생 건수	희생자		보험 손해액		총 경제적 손실액	
		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북아메리카	51	206	1.6	175	50.4	286	26.0
라틴아메리카	31	883	6.9	23	6.5	82	7.4
유럽	37	763	6.0	66	19.1	159	14.5
아프리카	47	2,506	19.6	8	2.3	15	1.3
아시아	130	7,093	55.5	52	15.0	517	47.0
오세아니아	7	206	1.6	10	2.9	23	2.1
해상/항공	33	1,120	8.8	13	3.8	17	1.5
세계	336	12,777	100.0	347	100.0	1,099	100.0

자료: 스위스리(2015. 3) 보도자료.

가. 북아메리카

■ 2014년 북아메리카의 보험손해액은 175억 달러로 지역별 비교 시 최고치를 기록함.

- 보험 손해액 규모가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자연재해 5건이 모두 미국에서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캐나다는 작년에 비하여 대형 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미국의 2014년 토네이도 발생 건수는 총 888건⁵⁾으로 1990년 이후 최저 발생 건수이지만, 발생한 보험 손해액은 13억 달러로 스위스리의 기존 기록 중 네 번째로 큰 손해 규모임.

4) 심각한 대류폭풍에는 토네이도, 우박, 우레, 폭우 및 갑작스러운 홍수가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한계치 즉, 일반적으로 시간당 90km의 바람, 직경 2cm 이상의 우박을 기준으로 “대규모” 폭풍으로 분류함.

5)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폭풍예측센터(The Storm Prediction Centre)의 관측치이며, 1990년 이후 연간 평균 토네이도 발생 건수는 1,235개임.

■ 미국은 대규모 대류폭풍, 폭한, 가뭄 등의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은 물론 가정 집과 사업체에 큰 손실이 발생함.

○ 2014년 겨울 미국에는 폭설 및 장기간에 걸친 폭한, 그리고 이와 함께 발생한 폭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겨울 폭풍으로 인한 보험 손해액은 약 24억 달러에 달함.

- 이는 최근 10년 평균치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임.

- 겨울 폭풍으로 인한 재해 중 최대 규모의 재해는 2014년 1월에 발생한 폭풍으로 미국 17개 주에 영향을 미쳤으며, 보험 손해액이 약 17억 달러임.

○ 5월에는 대규모 대류폭풍이 콜로라도,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약 29억 달러의 보험 손해액이 발생하였고, 6월과 7월에 네브라스카를 강타한 대규모 대류폭풍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며 약 13억 달러의 보험 손해액이 발생함.

○ 8월과 9월엔 각각 미시간, 디트로이트, 메릴랜드 등에서 홍수가 발생하였고 총 경제 손실액은 약 16억 달러이며 이중 약 1/3이 보험 손해액으로 추정됨.

○ 중부와 동부와 달리 미국 서부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총 경제 손실액은 약 22억 달러임.

- 캘리포니아의 경우 과일 및 채소 등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캘리포니아의 손실액만 15억 달러임.

○ 사우스나파에서 발생한 지진은 샌프란시스코에 영향을 미쳐 약 7억 달러 규모의 건물 및 상품 재고에 피해를 입혔는데, 이 중 보험 손해액은 1억 6천만 달러에 불과함.

-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는 지진에 대한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그 외에도 애틀란타에서는 8개의 큰 폭풍이 발생하였고, 이 중 6개가 허리케인으로 발전하였음.

- 2013년에는 총 13개의 큰 폭풍이 발생하였고 이 중 2개만이 허리케인으로 발전함.

■ 캐나다에서는 8월 중순 캘거리와 앨버타의 폭우로 약 4억 6천만 달러의 보험 손해가 발생함.

■ 인재의 경우 미국 텍사스 석유화학 공장 화재와 캐나다 노인 요양 시설 화재가 주요한 사고였음.

나. 유럽

- 유럽은 폭우와 대규모 대류폭풍이 주요 자연재해였으며, 재해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은 159억 달러이고, 보험 손해액은 66억 달러임.
- Yvette 라는 대규모 저기압(대규모 대류폭풍)은 2014년 5월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에 큰 피해를 가지고 옴.
 - 이 저기압은 강한 돌풍과 심한 폭우를 동반했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댐이 붕괴되고, 이 잔해들이 떠내려가면서 많은 주택과 인프라 및 농작물들이 파괴됨.
 - 8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2014년 유럽지역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임.
 - 총 경제 손실액은 약 30억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태풍 Ela는 6월 초 우박과 강풍을 동반하며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독일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킴.
 - Ela로 인해 60만 채 이상의 주택과 5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고, 발생한 보험손해액은 약 22억 달러로 이 피해액 규모는 2013년 Andreas 이후 최대 규모임.
- 대규모 대류폭풍은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 두 지역에는 연간 평균의 3배 수준인 약 50번의 토네이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총 경제적 손실액은 20억 달러, 보험 손해액은 5억 달러임.
- 그 외의 지역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함.
 - 영국의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대류폭풍의 영향으로 5억 달러 수준의 보험 손해액이 발생함.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은 겨울에 발생한 폭설과 우박, 폭우 등의 영향으로 숲과 길, 그리고 많은 인프라가 파괴되며 9억 달러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함.

- 유럽에서 발생한 인재로는 러시아 정유회사 폭발 사고가 2014년 최대 규모의 손실액을 기록하였으며, 301명이 사망한 터키 광산화재도 주요 인재로 꼽힘.

다. 아시아

- 아시아는 2014년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총 7천 명으로 전 세계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으며, 총 경제적 손실액과 보험 손해액은 각각 520억 달러, 50억 달러임.
- 일본의 경우 2월 중순 폭설의 영향으로 26명이 사망하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총 경제적 손실은 50억 달러, 보험 손해액은 25억 달러로 추정됨.
 - 폭설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였고, 주거지, 상업지, 농경지에 모두 손해가 발생함.
- 인도의 잠무와 카슈미르, 파키스탄 주변 지역에 몬순기후로 인한 폭우로 약 59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보험 손해액은 2억 달러에 불과함.
 - 이 폭우는 60년 이래 최악의 폭우로 기록되었으며, 최고 665채의 주택이 완전히 손실되고, 20만 채의 주택이 피해를 봄.
 - 주택과 관련한 경제적 손실만 약 44억 달러로 추정됨.
 - 이 재해로 인해 인도의 쌀과 과일 등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음.
- 중국은 8월 남서부 윈난성에서 발생한 6.1 규모의 지진으로 617명이 사망하고 114명이 행방불명이 되어 2014년 최대 희생자 수를 기록함.
 - 거주지 건물이 모두 비 강화 건물이어서 희생자가 많았으며 총 2만 5,800여 채의 주택이 완전히 손실되었고, 4만 600채의 주택이 손상됨.
 - 중국 당국은 지진으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을 50억 달러로 추정함.
- 사이클론 허드허드와 태풍 라마순도 주요 자연재해임.
 - 사이클론 허드허드로 인해 인도의 비샤카파트남에서 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총 경제적 손실 70억 달러, 보험 손해액 6억 달러를 기록함.

○ 태풍 라마순은 필리핀과 중국에 영향을 미쳤으며, 라마순의 여파로 총 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약 202명이 사망함.

- 경제적 손실액 총 50억 달러 중 필리핀의 손실액이 8억 달러이며, 필리핀 사망자는 101명으로 필리핀에서 발생한 재해 규모 중 최대임.

■ 2014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인재는 중국에서 발생한 철강공장 폭발 사고로 140명이 사망함.

라. 라틴 아메리카

■ 라틴아메리카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주로 허리케인과 산업사고로 인한 재해가 주를 이루며 총 경제적 손실은 82억 달러이고, 보험 손해액은 23억 달러임.

■ 2014년 9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에 상륙한 허리케인 Odile이 라틴아메리카를 지나간 폭풍 중에서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17억 달러 규모의 보험 손해를 발생시킴.

○ 이 지역은 호텔과 상업용 부동산이 있는 여행지로 보험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임.

○ 2014년 동태평양에는 20개의 고유 명칭을 가진 폭풍이 지나갔는데 이는 연간 평균 15개보다 더 많은 수치임.

■ 브라질 등 중앙아메리카는 극심한 가뭄으로 커피 농사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총 경제 손실액은 30억 달러로 예상됨.

■ 페루는 지난해에 이어 저온현상이 지속되며 어린이와 노인 위주로 약 5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마.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해액은 10억 달러이며, 11월 브리즈번과 퀸즈랜드에서 발생한 폭풍이 약 9억 달러의 보험 손해액을 기록함.
 - 그 외에 산불과 폭풍이 많이 발생했으나 스위스리 대규모 재해 수준에 미치지 못함.
- 2014년 아프리카는 재해로 인해 2,506명이 사망하고, 총 경제적 손실액과 보험 손해액은 각각 15억 달러, 8억 달러임.
 - 모로코는 홍수로 인해 47명이 사망하고 356개의 마을, 505개의 다리와 1만 8,000개의 길이 파괴되어 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봄.
 - 아프리카에서는 테러가 가장 큰 인명피해의 원인이며, 2014년 발생한 테러로 최소 9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3. 2014년 재해 관련 특징

- 2014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를 살펴보면 대규모 대류폭풍에 의한 재해가 대부분의 보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대규모 대류폭풍으로 인한 글로벌 보험손실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9%의 비율로 확대되어 왔음.
 - 글로벌 보험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보험 침투율이 가장 높은 미국에서의 폭풍(특히 토네이도) 발생 빈도 증가와 유럽에서의 우박을 동반 폭풍 및 갑작스러운 홍수에 따른 손실 규모 증가임.
 -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대류폭풍으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은 연평균 7.7% 증가했고, 보험 손실액은 9.0% 확대됨.
 - 기후로 인한 모든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과 보험 손실액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연평균 6.4%, 6.6% 늘어남.

- 대규모 대류폭풍으로 인한 글로벌 보험 손해액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80억 달러에 이르며, 2008년부터는 매년 100억 달러를 초과했음.
- 대규모 대류폭풍에 대한 예측 시스템 및 조기 경보 등의 피해 예방수단이 필요한 시점임.

■ 보험보호격차(Insurance protection gap)를 살펴보았을 때 충분한 보험 담보 부재가 여전히 수많은 국가들의 문제임.

- 2014년 보험보호 격차는 750억 달러로 경제 손해액 증가율이 보험 손해액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Yvette에 의한 유럽의 손실, 미국 사우스나파 지진에 의한 손실, 중국 및 인도에서 발생한 피해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손실액의 규모가 더 큰 상황임.

부록 중국 생명보험시장 현황과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중국 진출 사례

1. 배경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3년까지 대폭 성장했으며 세계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상승함.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01년 1조 3,323억 달러에서 매년 17.3%씩 성장해 2013년 9조 387억 달러로 증가함.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가 2001년 156억 달러에서 매년 28.8%씩 성장해 2013년 1,52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세계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1.1%에서 2013년 5.8%로 상승함.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보험밀도 및 침투도가 낮아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생명보험회사들에게 매력적인 진출 대상임.

○ 스위스리(Swiss Re)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보험밀도가 110달러이고, 보험침투도가 1.6%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한국(1,816달러, 7.5%, 2013년 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한국 생명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010~2013년 전체 한국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이 각각 12.4%, 8.7%, 6.6%, 4.1%를 기록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 둔화는 지속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 진출할 한국 생명보험회사들의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 생명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지표

가. 수입보험료

1) 전국 수입보험료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손해보험시장보다 규모가 크며 2011년을 제외한 2008~2013년 확장세를 나타냄(〈표 1〉 참조).

○ 2013년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가 2008년 6,658억 위안에서 9,425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8.1%에서 54.7%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50%를 웃도는 수준임.

○ 2008~2013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의 CAGR은 7.2%를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전체 보험시장 수입보험료의 CAGR은 12.0%로 나타남.

- 이는 2011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가 보험산업의 회계기준 개편* 및 은행 채널 규제 강화**로 전년대비 10.2%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중국보험감독위원회(CIRC)는 2011년 1월 투자연계형 상품과 유니버설 상품 투자계정의 보험료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제외시키는 새로운 보험산업의 회계기준을 도입함.

** 2010년 11월 CIRC는 보험회사 파견 설계사의 은행 활동을 금지하고 각 은행 지점에 대해 보험 상품 판매를 3개사 이하로 한정하는 은행 채널 규제를 발표함.

〈표 1〉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전체 보험시장	보험료	9,784	11,137	14,528	14,339	15,488	17,222	12.0
	증가율							
생명 보험시장	보험료	6,658	7,457	9,680	8,696	8,908	9,425	7.2
	비중	68.1	67.0	66.6	60.6	57.5	54.7	-

자료: CIRC.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표 2〉 참조).

○ 2008~2013년 중국 생명보험시장이 아시아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13.9%에서 16.9%로 상승했으며, 전 세계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3.8%에서 5.8%로 상승함.

○ 아시아 지역 내 생명보험시장 규모로 보면, 2008년부터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며, 전 세계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임.

〈표 2〉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비중 및 순위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시아 시장	비중	13.9	14.9	16.7	14.3	14.7	16.9
	순위	2	2	2	2	2	2
세계시장	비중	3.8	4.7	5.7	5.1	5.4	5.8
	순위	6	6	5	5	5	5

자료: Swiss Re, Sigma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정리함.

■ 중국 경제는 2012년부터 둔화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로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2015~2019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6%로 내다봤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2020년 중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0%, 2021~2025년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내놓은 바 있음.

○ 맥킨지(McKinsey & Company)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4,06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1) 각 지역 수입보험료

■ 중국은 3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이며 각 지역 생명보험시장 발전 수준 차이가 매우 커서 중국 생명보험시장에 대해 지역별 고찰이 필요함(〈그림 1〉 참조).

〈그림 1〉 중국의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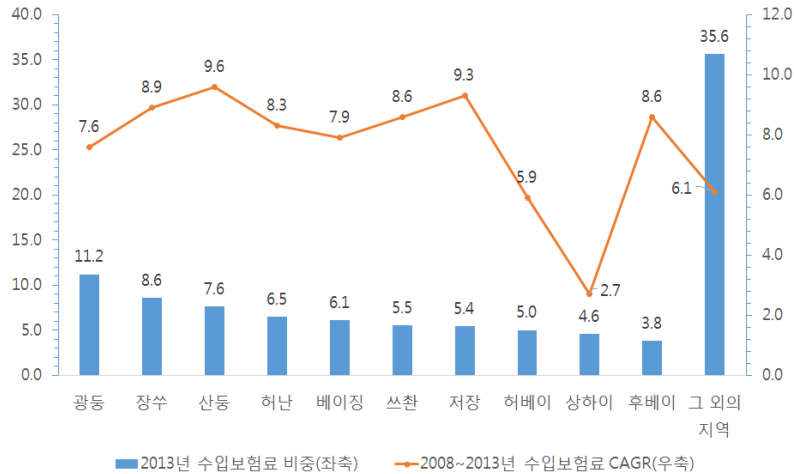


주: 중국 각 지역의 행정단위는 성, 직할시, 자치구로 구분되어 있음. 본고에서 고찰되는 지역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2015년 2월 검색).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지역별 발전이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참조).

- 2013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를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광둥, 장쑤, 산둥, 허난, 베이징, 쓰촨, 저장, 허베이, 상하이, 후베이 등 상위 10개 지역의 수입보험료가 약 6,068억 위안으로 전국의 64.4%를 점유함.
- 2008~2013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의 CAGR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 허베이와 상하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생명보험시장 발전 속도가 전국 평균 속도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2〉 중국 각 지역 생명보험시장의 비중 및 CAGR



자료: 『중국보험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정리함.

○ 보험회사 영업 지역 허가제를 감안할 때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상위 10개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CIRC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지역마다 허가를 받고 지사를 설립해야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큰 상위 10개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임.
- 다만 2008~2013년 각 지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의 CAGR을 감안할 때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 허베이와 상하이는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나.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1) 전국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한국과 비교할 때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가 매우 낮는데 이는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여전히 매우 큼을 의미함(〈표 3〉 참조).

- Swiss Re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보험밀도가 110달러이고, 보험침투도가 1.6%인 것으로 조사됨.
- 2013년 한국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보험밀도가 1,816달러, 보험침투도가 7.5%로 나타남.

〈표 3〉 국제간 생명보험시장의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비교(2013년 기준)

(단위: 달러, %)

구분	중국	한국	아시아	전 세계
보험밀도	110	1,816	213	366
보험침투도	1.6	7.5	3.8	3.5

자료: 『World insurance in 2014』.

- 2012년부터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보험밀도는 상승했지만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중국 경상 GDP 성장률보다 낮아서 보험침투도는 감소세로 보임(〈표 4〉 참조).

〈표 4〉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단위: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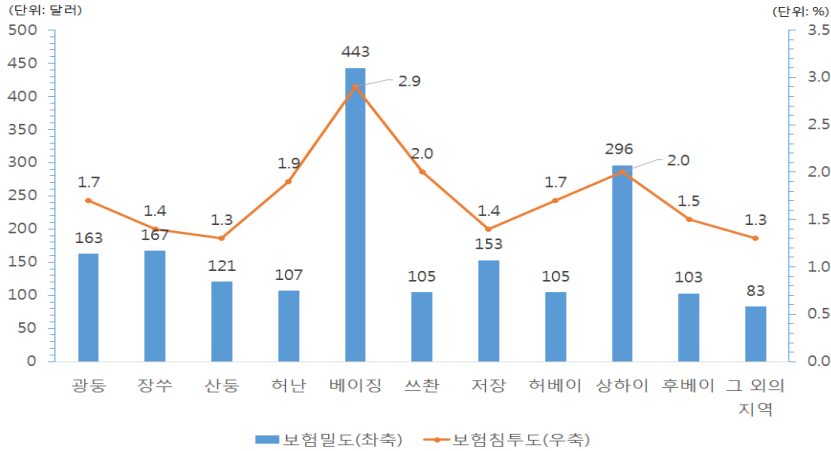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험밀도	72	81	106	99	103	110
보험침투도	2.2	2.3	2.5	1.8	1.7	1.6

자료: Swiss Re, Sigma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정리함.

2) 각 지역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 중국 각 지역 생명보험시장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가 모두 매우 낮아서 전국적으로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모두 매우 높음(〈그림 3〉 참조).
- 보험밀도의 경우,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 베이징(443달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상하이(296달러), 장쑤(167달러), 광둥(163달러), 저장(153달러), 산둥(121달러), 허난(107달러), 쓰촨(105달러), 허베이(105달러), 후베이(103달러)의 순임.
- 보험침투도의 경우,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 베이징(3.9%)이 2.0%를 상회한 유일한 지역이며, 상하이(2.0%), 쓰촨(2.0%), 허난(1.9%), 광둥(1.7%), 허베이(1.7%), 후베이(1.5%), 장쑤(1.4%), 저장(1.4%), 산둥(1.3%)이 그 뒤를 잇고 있음.

〈그림 3〉 중국 각 지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2013년 기준)



자료: 『중국보험연감 2014』 및 『중국통계연감 2014』를 바탕으로 정리함.

다. 시장집중도

1) 전국 시장집중도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 지수(HHI) 및 상위 3사 시장점유율(CR3)은 2008~2013년 조금씩이지만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 생명보험시장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함(〈표 5〉 참조).

○ HHI는 2008년 0.2051에서 2013년 0.1405로 줄어들었으며 CR3의 경우 2008년 63.1%에서 53.7%로 감소함.

- 2011년 HHI가 상승했는데 이는 2010년 강화된 보험회사 관리규정*에 따른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축소에 기인한 일시적인 결과임.

* 2010년 6월 CIRC는 동일 투자자가 동일 업종 내 2개의 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외국 투자자는 2개의 보험회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없게 됨. 2011년 미국계 United MetLife와 Sino-US MetLife는 합병되었고, ING-BOB Life의 지분을 보유한 네덜란드 ING는 ING Capital Life(현 "OCB Life")에서 소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Manulife-Sinochem Life 지분을 보유한 캐나다 Manulife Financial은 John Hancock Tiaran Life(현 "Tiaran Life")에서 소유 지분을 전량 매각함.

- 중국 생명보험시장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는 직접적 원인은 중국시장에 진출한 생명보험회사의 개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시장에 진출한 생명보험회사의 개수는 2008년 51개에서 2013년 70개로 증가함.
- HHI 및 CR3 추세를 볼 때,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상위 3사의 집중도가 높은 상태이며 상위 3사를 제외한 하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경쟁은 치열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대형 보험회사가 차지한 시장 외의 시장에서 늘어나는 중소형 보험회사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이 큼.
 - 그러나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가 매년 약 10%씩 성장하는 규모가 큰 시장이므로 신규 진출 대상으로의 매력은 아직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표 5〉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집중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HHI	0.2051	0.1839	0.1543	0.1589	0.1514	0.1405
CR3(%)	63.1	60.8	55.8	55.7	55.2	53.7

주: HHI 및 CR3은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중국보험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정리함.

2) 각 지역 시장집중도(상위 10개 지역 기준)

■ HHI*(2013년 기준)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 베이징, 상하이, 쓰촨, 후베이, 산둥, 허난, 광둥에서 영업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와 경쟁하는 부담이 큰 반면 장쑤, 저장, 허베이에서 영업하는 생명보험회사는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경쟁하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표 6〉 참조).

- HHI는 베이징(0.0783), 상하이(0.0826), 쓰촨(0.1231), 후베이(0.1359), 산둥(0.1430), 허난(0.1559), 광둥(0.1534)이 0.1800보다 낮은 반면 저장(0.1822), 장쑤(0.1877), 허베이(0.2161)가 0.18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HHI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00 이상이면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 CR3(2013년 기준)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상위 10개 지역 생명보험시장은 모두 상위 3사에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CR3의 경우 저장(64.2%), 허베이(62.8%), 장쑤(59.6%)가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잇는 있는 광둥(58.3%), 허난(57.4%), 후베이(51.7%), 산둥(51.5%), 쓰촨(47.7%), 상하이(43.1%), 베이징(41.0%)이 4~10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중국 각 지역 생명보험시장의 집중도(상위 10개 지역, 2013년 기준)

(단위: 억 위안)

구분	수입보험료	HHI	CR3(%)	보험회사의 개수
광둥	1,058	0.1534	58.3	45
장쑤	809	0.1877	59.5	50
산둥	717	0.1430	51.5	44
허난	613	0.1559	57.4	33
베이징	571	0.0783	41.0	56
쓰촨	521	0.1231	47.7	41
상하이	513	0.0826	43.1	50
저장	467	0.1822	64.2	42
허베이	436	0.2161	62.8	32
후베이	363	0.1359	51.7	37
전국	9,425	0.1400	53.7	70

자료: 『중국보험연감 2014』를 바탕으로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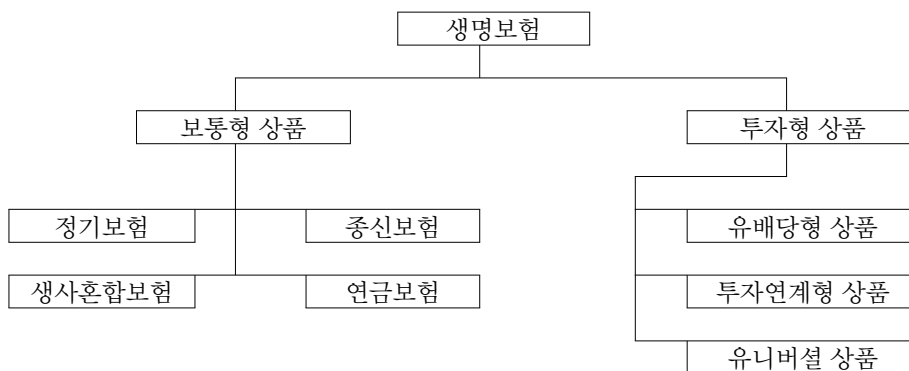
3.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

가. 보험상품의 종목

■ CIRC에 따르면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상품은 크게 보통형(Ordinary,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Investment)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음(〈그림 4〉 참조).

-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Term Life, 정기사망보험), 종신보험(Whole Life, 종신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Endowment, 양로보험), 연금보험(Annuities)은 보통형 상품으로 통칭됨.
- 투자형 상품은 배당형(Participating) 상품, 투자연계형(Investment Linked, 변액보험) 상품 및 유니버설(Universal) 상품 등이 해당됨.

〈그림 4〉 중국 생명보험시장 보험상품의 종목



주: CIRC에 따르면 기본업무 자격을 갖는 생명보험회사는 보통형 상품, 배당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추가업무 자격을 갖는 생명보험회사는 보통형 상품, 배당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외에도 투자연계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자료: CIRC.

■ 한편, CIRC에 따르면 중국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외에도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로 중국 보험소비자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본고에서는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에 대해 분석함.

나. 보험상품별 수입보험료

1) 전국 보험상품별 수입보험료

- 2008~2013년 중국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를 보험상품별로 살펴본 결과, 배당형 상품은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갖는 주력상품이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의 순으로 나타남(〈표 7〉 참조).
- 배당형 상품은 수입보험료가 2008년 3,762억 위안에서 매년 21.5%씩 증가해 2013년 8,203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생명보험에서 차지한 비중은 2008년 56.5%에서 86.1%로 상승함.
 - 2008~2013년 배당형 상품 수입보험료의 증가는 중국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상한이 2.5%로 규제되는 상황에서 은행 금리가 2008년부터 상승하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형 상품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배당형 상품 성장세는 2011년부터 중국 보험회사 자산운용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둔화되고 있음.
 - 중국 보험회사 자산운용 투자수익률은 2010년 4.8%를 기록한 이후 2011년 3.6%, 2012년 3.4%로 낮아짐.
- 보통형 상품은 수입보험료가 2008년 1,042억 위안에서 2013년 1,206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생명보험에서 차지한 비중은 2008년 15.7%에 12.7%로 하락함.
 - 2009~2011년 보통형 상품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예정이율 규제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중국 은행 예금금리(1년 만기 기준)가 2008년 2.25%에서 2012년 3.25%로 상승했으나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상한이 1999년부터 2.5%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없는 보통형 상품은 경쟁력이 점점 약화됨.
 - 다만 2013년 보통형 상품 예정이율 자율화 방안 도입으로 보통형 상품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

- CIRC는 생명보험회사 본연의 보험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통형 상품 예정이율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생명보험 보통형 상품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보통형 상품은 가격이 하락했지만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24.5% 급증함.

* 2013년 8월 CIRC는 생명보험회사가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시장수급에 따라 예정이율을 결정하고, 지급단계에서는 보험감독기관에서 발표하는 바스켓 수익률과 장기국채 수익률을 참조해 지급준비금 평가이율을 결정하게 규정함.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보통형 상품 예정이율의 상한선을 기존의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보통형 상품의 가격을 약 30~50% 정도 인하할 수 있게 됨. 또한 2014년 1월 CIRC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 보통형 상품 비중(수입보험료 기준) 하한선을 20%로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 보통형 상품이 은행 채널에서 판매되는 비중은 2014년 이전에는 약 10%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혁 조치로 최소한 20%로 상승할 수 있음.

■ 2013년 유니버설 상품과 투자연계형 상품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각각 2008년 1,418억 위안, 435억 위안에서 109억 위안, 6억 위안으로 급감했으며 전체 생명보험에서 차지한 비중도 각각 2008년 21.3%, 6.5%에서 1.1%, 0.1%로 급락함.

○ 이는 2009년 이후 유니버설 상품과 투자연계형 상품 수입보험료가 보험산업의 회계 기준 개편과 자본시장 펀더멘털 변화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2010년부터 시행된 보험산업의 새로운 회계기준은 유니버설 상품과 투자연계형 상품 수입보험료를 계산할 때 투자계정의 보험료를 제외시켰으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에 기여한 비율이 낮은 유니버설 상품과 투자연계형 상품을 크게 축소함.

- 중국 자본시장이 2008년 하반기부터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유니버설 상품과 투자연계형 상품의 투자수익이 크게 악화되면서 유니버설 상품과 투자연계형 상품의 수요는 크게 위축됨.

○ 다만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로 유니버설 상품과 투자연계형 상품의 성장세는 소폭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표 7〉 중국 생명보험의 보험상품별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08	2009	2010 ²⁾	2011	2012	2013	CAGR
전체	보험료	6,657	7,481	8,622	8,699	8,931	9,525	9.4
	증가율							
	비중							
배당형 상품	보험료	3,762	5,276	7,163	7,644	7,853	8,203	21.5
	증가율	69.3	40.3	35.8	6.7	2.7	4.5	-
	비중	56.5	70.5	83.1	87.9	87.9	86.1	-
보통형 상품	보험료	1,042	998	965	958	969	1,206	3.7
	증가율	3.8	-4.2	-3.3	-0.8	1.2	24.5	-
	비중	15.7	13.3	11.2	11.0	10.8	12.7	-
유니 버설 상품	보험료	1,418	1,059	435	89	103	109	-47.3
	증가율	67.3	-25.4	-58.9	-79.6	15.9	6.2	-
	비중	21.3	14.2	5.0	1.0	1.2	1.1	-
투자연 계형 상품	보험료	435	148	58	9	5.8	6.2	-65.5
	증가율	10.1	-66.0	-60.9	-84.8	-33.8	6.2	-
	비중	6.5	2.0	0.7	0.1	0.1	0.1	-

주: 1) 이는 『중국보험연감』을 참조해 계산된 수치이며 CIRC가 홈페이지에서 공표한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속보치)와 다를 수 있음.

2) 이는 2011년 시행된 새로운 보험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 다시 집계된 수치이며 CIRC가 일반 회계기준에 따라 공표한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9,680억 위안, 속보치)와 다름.

자료: 『중국보험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정리함.

■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각각 2008년 585억 위안, 204억 위안에서 2013년 1,124억 위안, 461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함(〈표 8〉 참조).

○ 이는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로 생명보험 외에도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08~2013년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의 CAGR는 생명보험(7.2%)보다 각각 6.8%p, 10.5%p 높은 14.0%, 17.7%를 기록함.

〈표 8〉 중국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생명 보험	보험료	6,658	7,457	9,680	8,696	8,908	9,425	7.2
	증가율	49.2	12.0	29.8	-10.2	2.4	5.8	-
건강 보험	보험료	585	574	677	692	863	1,124	14.0
	증가율	52.4	-2.0	18.0	2.2	24.7	30.2	-
상해 보험	보험료	204	230	275	334	386	461	17.7
	증가율	7.1	13.0	19.7	21.5	15.6	19.5	-

자료: 『중국보험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정리함.

2) 각 지역 보험상품별 수입보험료(상위 10개 지역 기준)

- 중국 상위 10개 지역 생명보험 보험상품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 10개 지역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이 모두 비슷한 생명보험을 판매함을 시사함(〈표 9〉 참조).

〈표 9〉 중국 각 지역 생명보험 보험상품별 수입보험료(상위 10개 지역, 2013년 기준)

(단위: 억 위안, %)

구분		보통형 상품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합계
광둥	보험료	130	923	1	27	1,080
	비중	12.0	85.4	0.1	2.5	100.0
장쑤	보험료	86	709	0	5	801
	비중	10.8	88.5	0.0	0.7	100.0
산둥	보험료	76	634	0	7	717
	비중	10.6	88.4	0.0	1.0	100.0
허난	보험료	84	526	0	4	613
	비중	13.7	85.7	0.0	0.6	100.0
베이징	보험료	53	502	0	4	559
	비중	9.5	89.7	0.0	0.7	100.0
쓰촨	보험료	62	456	0	6	524
	비중	11.9	87.0	0.0	1.1	100.0
저장	보험료	60	450	0	3	513
	비중	11.7	87.6	0.0	0.6	100.0
허베이	보험료	46	416	0	4	466
	비중	9.8	89.3	0.0	0.9	100.0
상하이	보험료	62	365	1	4	432
	비중	14.4	84.4	0.2	1.0	100.0
후베이	보험료	47	314	0	4	365
	비중	12.9	86.5	0.0	1.0	100.0
전국	보험료	1,206	8,203	6	109	9,525
	비중	12.7	86.1	0.1	1.1	100.0

주: 이는 『중국보험연감』을 참조해 계산된 수치이며, CIRC가 홈페이지에서 공포한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속보치)와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연감 2014』를 바탕으로 정리함.

■ 2013년 중국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 베이징 및 상하이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의 비중은 전국 평균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기타 지역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의 비중은 전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10〉 참조).

○ 이는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 베이징 및 상하이 경제 발전 수준이 기타 지역보다 높아, 베이징 및 상하이 소비자가 생명보험 외에도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임.

〈표 10〉 중국 각 지역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상위 10개 지역, 2013년 기준)

(단위: 억 위안, %)

구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합계
광둥	보험료	1,080	38	114	1,232
	비중	87.7	3.0	9.3	100.0
장쑤	보험료	801	27	68	896
	비중	89.4	3.0	7.6	100.0
산둥	보험료	717	21	79	818
	비중	87.7	2.6	9.7	100.0
허난	보험료	613	11	48	672
	비중	91.2	1.7	7.1	100.0
베이징	보험료	559	23	101	683
	비중	81.9	3.4	14.7	100.0
쓰촨	보험료	524	16	44	583
	비중	89.9	2.7	7.5	100.0
저장	보험료	513	21	50	584
	비중	87.9	3.6	8.5	100.0
허베이	보험료	466	13	32	511
	비중	91.3	2.5	6.3	100.0
상하이	보험료	432	21	60	513
	비중	84.1	4.2	11.7	100.0
후베이	보험료	365	9	31	406
	비중	90.1	2.2	7.7	100.0
전국	보험료	9,525	325	999	10,849
	비중	87.8	3.0	9.2	100.0

주: 이는 『중국보험연감』을 참조해 계산된 수치이며, CIRC가 홈페이지에서 공표한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속보치)와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연감 2014』를 바탕으로 정리함.

다. 판매채널의 유형

■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은 크게 직접 판매채널 및 간접 판매채널로 구분되어 있음(〈그림 5〉 참조).

○ 직접 판매채널은 점포, 대중 매체, 전화, 인터넷, 우편 채널 등이 있으며 간접 판매채널의 경우 설계사, 은행, 중개인 채널 등이 있음.

■ 직접 판매채널 중 전화와 인터넷 채널은 최근 크게 성장했으며 향후 전화와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생명보험회사는 각각 1997년, 2003년 인터넷과 전화 채널을 도입했으며 2013년 말까지 전체 70개사 중에서 인터넷과 전화 채널을 사용한 보험회사는 각각 44개와 31개인 것으로 조사됨.

■ 간접 판매채널 중 설계사와 은행 채널은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향후 규제강화로 설계사와 은행 채널을 사용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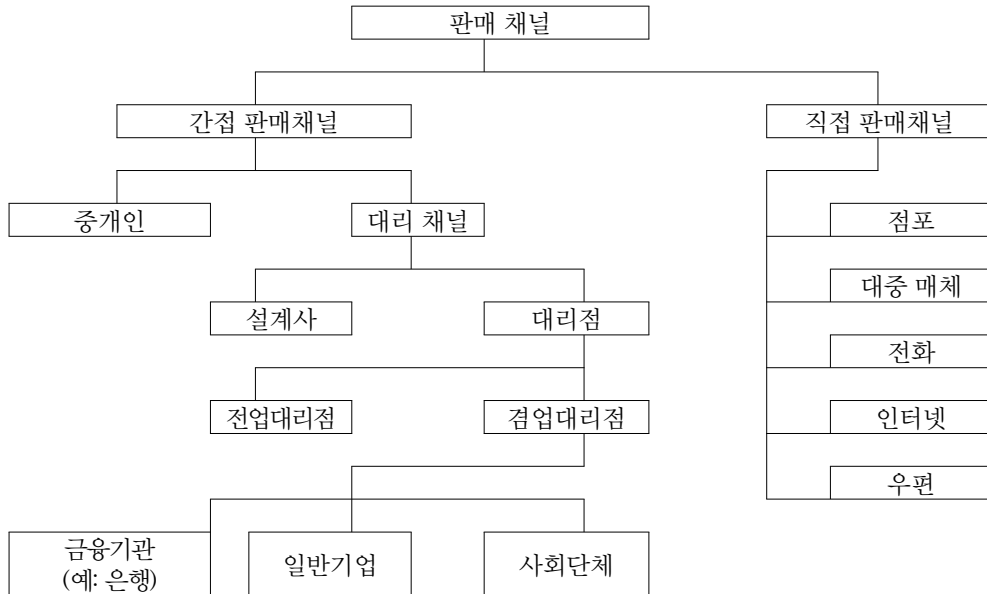
- 설계사와 은행 채널은 각각 1992년, 2002년 도입됐으며 2013년 말까지 전체 70개사 중에서 설계사와 은행 채널을 도입한 보험회사는 각각 64개, 65개를 기록함.
- CIRC는 2013년 1월 생명보험 설계사의 정작률 제고 및 생명보험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민원 완화를 위해 신규 설계사의 최저 학력을 기존의 중졸에서 전문대졸까지 제고함.
- 또한 CIRC는 2010년부터 은행 채널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골자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함.*

* 2010년 11월 CIRC는 보험회사 은행 파견 설계사의 판매 활동을 금지하고 각 은행 지점에 대해 보험상품 판매를 3개사 이하로 한정함. 2014년 1월 CIRC는 은행의 저소득층 소비자에 대해 보험 판매를 금지하고 보험가입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계약이 자동 처리되지 않고 보험회사 언더라이팅 담당자가 심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은행이 판매하는 1년 만기 이상의 생명보험의 계약 철회 가능 기간(cooling-off period)을 기존의 10일에서 15일로 조정함.

■ 간접 판매채널 중 중개인 채널의 경우 중국시장에서 도입된 지 오래됐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주요 판매채널로 성장하지 못함.

- 중개인 채널은 1993년 도입됐으며 2013년 말까지 전체 70사 중에서 중개인 채널을 사용한 보험회사는 53개를 기록함.

〈그림 5〉 중국 생명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유형



자료: CIRC.

나.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 2008~2013년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를 판매채널별로 살펴본 결과, 설계사와 은행 채널은 절대적 시장지위를 갖는 주요 판매채널이며, 다음으로는 직접 판매채널, 겸업대리점, 전업대리점, 중개인의 순으로 나타남(〈표 11〉 참조).

■ 설계사 채널은 수입보험료가 2008년 3,083억 위안에서 2013년 5,496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2.0%에서 51.2%로 상승함.

○ 2011년 설계사 채널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1.1% 감소했는데 이는 2011년 시작된 보험산업의 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생명보험 투자형 상품 수입보험료 감소에 기인한 일시적인 결과임.

- 은행 채널은 수입보험료가 2008년 3,590억 위안에서 2013년 3,940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8.9%에서 36.7%로 하락함.
 - 이는 2010년부터 시작된 은행 채널 관련 규제 강화로 은행 채널 수입보험료가 2011년부터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11월 CIRC는 보험회사 은행 파견 설계사의 판매 활동을 금지하고 각 은행 지점에 대해 보험상품 판매를 3개사 이하로 한정하는 은행 채널 규제를 발표함.
- 직접 판매채널은 수입보험료가 2008년 585억 위안에서 2013년 1,027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8.0%에서 9.6%로 상승함.
 - 이는 2012년부터 직접 판매채널 중 전화 및 인터넷 채널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2012년 전화 및 인터넷 채널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85억 위안, 10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1%, 232.0% 증가함.
- 겸업대리점, 전업대리점, 중개인 채널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각각 2008년 21억 위안, 45억 위안, 14억 위안에서 2013년 158억 위안, 77억 위안, 44억 위안으로 성장했으나 2013년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1.5%, 0.7%, 0.4%)에 그침.

〈표 11〉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설계사 채널	보험료	3,083	3,569	4,315	4,267	4,835	5,496
	증가율	18.8	15.8	20.9	-1.1	13.3	13.7
	비중	42.0	43.8	41.1	44.6	48.6	51.2
은행 채널	보험료	3,590	3,886	5,245	4,577	4,132	3,940
	증가율	111.4	8.2	35.0	-12.7	-9.7	-4.6
	비중	48.9	47.7	50.0	47.9	41.5	36.7
직접 판매채널	보험료	585	539	749	539	740	1,027
	증가율	-0.9	-7.8	39.0	-28.1	37.3	38.6
	비중	8.0	6.6	7.1	5.6	7.4	9.6
겸업 대리점	보험료	21	75	102	95	145	158
	증가율	14.8	262.0	36.3	-6.7	52.4	9.1
	비중	0.3	0.9	1.0	1.0	1.5	1.5
전업 대리점 채널	보험료	45	59	63	60	68	77
	증가율	39.6	30.8	6.0	-3.7	12.6	12.7
	비중	0.6	0.7	0.6	0.6	0.7	0.7
중개인 채널	보험료	14	16	27	22	38	44
	증가율	-2.5	12.9	65.6	-17.8	74.1	14.8
	비중	0.2	0.2	0.3	0.2	0.4	0.4

주: 은행 채널은 우체국을 포함하며 겸업대리점 채널은 은행과 우체국 채널을 제외함.

자료: 『중국보험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정리함.

4.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 현황

가.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 현황

■ 중국은 1992년 외국 보험회사에게 상하이 보험시장을 먼저 개방했으며 2001년 WTO 가입 이후 전국 보험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함.

○ 1992년 미국 AIA는 최초로 상하이에서 독자법인인 AIA China Life를 설립했으며, 1996년 캐나다계 Manulife-Sinochen Life, 1998년 독일계 Allianz China Life가 각각 외자 51%의 비율로 설립됨.

○ 2001년 이후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었으나 2004년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로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입은 합작법인(최대 지분 50%) 형태로 제한되어 있음.*

* 현재 AIA China Life, Manulife-Sinochen Life, Allianz China Life를 제외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상한이 모두 50%로 제한되어 있음.

■ 2013년 말까지 중국시장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개수는 28개를 기록했으며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표 12〉 참조).

○ 한편, 2013년 말까지 중국시장에서 영업하는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개수는 42개로 나타남.

■ 중국 보험시장의 개방에 발맞춰 한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음.

○ 삼성생명은 2005년 7월 최초로 베이징에서 Air China와 합자법인인 Samsung Air China Life를 설립했으며 한화생명은 2012년 12월 ZIB와 저장성에서 합자법인인 SinoKorea Life를 설립함.

○ 교보생명의 경우 2004년 4월 베이징에서 주재사무소를 설립해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합자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됨.

〈표 12〉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 현황

진출시기	회사명	현지회사명	영업지역
1992	미국 AIA	AIA China Life	상하이, 광둥, 선전, 베이징, 장쑤
1996	캐나다 Manulife	Manulife-Sinochen Life	상하이, 광둥, 베이징, 닝보, 저장, 장쑤, 쓰촨, 산둥, 푸젠, 선전, 충칭, 랴오닝, 톈진, 샤문, 후베이, 다롄, 허베이, 후난
1998	독일 Allianz	Allianz China Life	상하이, 광둥, 저장, 쓰촨, 장쑤, 베이징, 산둥
1999	프랑스 AXA	ICBC-AXA Life	상하이, 장쑤, 저장, 베이징, 톈진, 랴오닝, 산둥, 허베이, 쑤시, 후베이, 광둥, 쓰촨
2000	영국 Prudential	CITIC-Prudential Life	베이징, 광둥, 장쑤, 후베이, 산둥, 저장, 톈진, 광시, 선전, 푸젠, 허베이, 랴오닝, 산시
2000	미국 ACE	Huatai Life	베이징, 저장, 장쑤, 쓰촨, 산둥, 상하이, 허난, 푸젠, 후난, 광둥, 장시, 네이멍구, 후베이
2000	호주 CMG	BoCom Life	상하이, 장쑤, 허난, 후베이, 베이징, 안휘이, 광둥, 산둥
2002	이탈리아 Generali	Generali China Life	베이징, 상하이, 광둥, 장쑤, 선전, 랴오닝, 쓰촨, 쑤시, 산둥, 헤이룽장, 후베이
2002	영국 Aviva	Aviva-COFCO Life	베이징, 광둥, 쓰촨, 푸젠, 산둥, 후난, 허베이, 장쑤, 랴오닝, 후베이, 허난, 헤이룽장
2002	일본 Meiji Ysuda	Founder Meiji Yasuda Life	상하이, 쓰촨, 산둥, 장쑤, 후베이
2003	미국 CIGNA	CIGNA & CMB Life	상하이, 베이징, 후베이, 장쑤, 저장, 쓰촨, 산둥, 광둥, 랴오닝, 쑤시, 칭다오, 옌타이, 우시, 둥관, 사오싱
2003	네덜란드 AEGON	AEGON-CNOOC Life	상하이, 베이징, 장쑤, 산둥, 저장, 광둥, 톈진, 허베이, 후베이, 푸젠, 쓰촨
2003	영국 Standard	Heng An Standard Life	톈진, 칭다오, 베이징, 산둥, 장쑤, 랴오닝, 쓰촨, 허난, 광둥, 다롄
2003	일본 Nissay	Nissay-Greatwall Life	상하이, 저장, 장쑤, 베이징
2004	남아공 Old Mutual	Old Mutual-Guodian Life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광둥, 선전, 충칭, 쑤시, 후베이
2005	미국 MetLife	MetLife	상하이, 충칭, 광둥, 랴오닝, 장쑤, 저장, 쓰촨, 후베이, 푸젠, 다롄
2005	대만 Cathay	Cathay Life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베이징, 산둥, 광둥, 랴오닝
2005	한국 삼성생명	Samgung Air China Life	베이징, 톈진, 칭다오, 쓰촨, 광둥, 장쑤
2005	프랑스 CNP	Sino French Life	베이징

진출시기	회사명	현지회사명	영업지역
2005	남아공 Discovery	Ping An Health	베이징, 상하이, 광둥, 장쑤, 저장, 선전, 랴오닝, 톈진
2006	싱가포르 Great Eastern	Great Eastern Life	충칭, 쓰촨, 쓰시, 후베이
2008	타이완 China Life	King Dragon Life	푸젠, 저장
2009	영국 HSBC	HSBC Life	상하이, 베이징
2009	대만 HNA	Shin Kong-HNA Life	베이징, 헤난, 쓰시
2012	미국 Pramerica	Pramerica Fosun Life	상하이
2012	한국 한화생명	SinoKorea Life	저장
2013	미국 Ergo	Ergo China Life	산둥
2014	프랑스 BNPPA	ING-BOB Life	베이징, 랴오닝, 다롄, 산둥, 허난, 안휘이, 톈진, 상하이

주: ING-BOB Life는 2014년 네덜란드 ING 소유 지분을 프랑스 BNPPA에게 전량 매각함.
자료: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 그러나 2013년 말까지 중국시장 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5.2%에서 5.6%로 증가했는데 이는 한국시장 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16.9%, 2013년)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표 13〉 참조).

- 2013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ICBC-AXA Life, AIA China Life, MetLife, Generali China Life, CIGNA & CMB Life로 조사됨.
- 한편, China Life, Ping An Life, New China Life, CPIC Life, PICC Life 등 중국계 대형 5개사는 69.5%를 차지했으며 중국계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는 24.9%를 차지함.

〈표 13〉 중국 생명보험시장 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국계	상위 5사	77.2	72.8	72.8	71.0	69.5
	중·소형사	17.6	21.6	23.2	24.3	24.9
	소계	94.8	94.4	96.0	95.2	94.4
외국계		5.2	5.6	4.0	4.8	5.6

주: 상위 5사는 China Life, Ping An Life, New China Life, CPIC, PICC Life를 의미하며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생명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정리함.

■ 2013년 말까지 한국계 생명보험회사인 Samsung Air China Life 및 SinoKorea Life가 전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표 14〉 참조).

○ Samsung Air China Life는 영업지역이 베이징, 톈진, 칭다오, 쓰촨, 광둥, 장쑤를 포함하며 전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0.06%에 불과함.

○ SinoKorea Life는 영업지역이 저장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0.01%에 그침.

〈표 14〉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위안, %)

순위	현지 회사 영문 명칭	현지 회사 중문 명칭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¹⁾
1	ICBC-AXA Life	工銀安盛人壽	10,287	17.2
2	AIA China Life	友邦中國人壽	9,408	15.8
3	MetLife	大都會人壽	5,670	9.5
4	Generali China Life	中意人壽	4,789	8.0
5	CIGNA & CMB Life	招商信諾人壽	4,240	7.1
6	CITIC-Prudential Life	信誠人壽	4,133	6.9
7	Aviva-COFCO Life	中英人壽	3,531	5.9
8	Manulife-Sinochen Life	中宏人壽	2,987	5.0
9	Huatai Life	華泰人壽	2,892	4.8
10	ING-BOB Life	中荷人壽	2,122	3.6
11	Allianz China Life	中德安聯人壽	1,794	3.0
12	AEGON-CNOOC Life	海康人壽	1,449	2.4
13	BoCom Life	交銀康聯人壽	1,344	2.3
14	Heng An Standard Life	恆安標準人壽	1,180	2.0
15	HSBC Life	匯豐人壽	759	1.3
16	Founder Meiji Yasuda Life	北大方人壽	617	1.0
17	Cathay Life	國泰人壽	476	0.8
18	Shin Kong-HNA Life	新光海航人壽	348	0.6
19	Samgung Air China Life	中航三星人壽	336	0.6
20	Ping An Health	平安健康	308	0.5
21	Nissay-Greatwall Life	長生人壽	271	0.5
22	Great Eastern Life	中新大東方人壽	260	0.4
23	King Dragon Life	君龍人壽	222	0.4
24	Old Mutual-Guodian Life	瑞泰人壽	143	0.2
25	SinoKorea Life	中韓人壽	89	0.1
26	Pramerica Fosun Life	復星保德信人壽	16	0.0
27	Sino French Life	中法人壽	11	0.0
28	Ergo China Life	德華安顧人壽	2	0.0
합계	-	-	59,684	100

주: 1) 이는 해당 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전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의미함.
 자료: 『중국보험연감 2014』를 바탕으로 정리함.

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저성장의 원인

■ E&Y*에 따르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원인은 중국의 법적 장벽 존재, 보험 인재 부족 및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낮은 회사 인지도 등이 있음.

* 2014년 E&Y가 중국시장에 진출한 AEGON-CNOOC Life, AIA China Life, Aviva-COFCO Life, CIGNA & CMB Life, Generali China Life, Heng An Standard Life, Huatai Life, ICBC-AXA Life, ING-BOB Life, Manulife-Sinochen Life, MetLife 등 12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은 합자법인(최대 지분 50%)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측 주주의 회사 운영 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국측 주주가 회사 운영에 관여할 경우 외국측 주주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2011년 미국 New York Life는 중국측 주주인 Haier와의 경영목표 차이로 Haier New York life 에서 소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 바 있음.

○ 중국 보험 인재 공급이 보험시장 성장을 따라 가지 못하고 인건비 상승률이 높아져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적잖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관리급 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한 후 중국계 보험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세계 보험시장에서 회사 인지도가 매우 높지만 중국시장에서는 회사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경쟁 열위에 있음.

- 이는 중국시장에서 영업하는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대국민 이미지가 좋고 회사 인지도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보다 높기 때문임.

참고. CIGNA & CMB Life의 진출 사례

■ 2003년 8월 미국 CIGNA는 중국시장에 CMC(심천정존투자자문주식회사)와 합자법인인 CIGNA & CMC Life를 설립했으며 시장점유율이 작지만 순이익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흑자로 나타남(〈표 15〉 참조).

○ 2013년 CMC가 소유 지분을 CMB(중국초상은행)에게 전량 양도하면서 CIGNA & CMC Life의 명칭은 CIGNA & CMB Life로 변경됨.

○ 2013년 CIGNA & CMB Life의 수입보험료가 42억 4천만 위안으로 중국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0.4%,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차지하는 순위는 5위로 나타남.

- CIGNA & CMB Life의 수입보험료는 2011년 시작된 보험산업의 회계기준 개편 및 은행 채널 규제 강화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12년부터 증가해 회복세를 보임.

○ 또한 2013년 CIGNA & CMB Life는 순이익이 1억 9천 2백만 위안으로 전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5위로 나타남.

〈표 15〉 CIGNA & CMB Life 성장 추이

(단위: 백만 위안,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GACR
수입보험료	848	3,236	1,927	2,422	4,240	49.5
시장점유율 ¹⁾	0.1	0.3	0.2	0.2	0.4	-
순위 ²⁾	16	7	8	9	5	-
순이익	159	171	150	120	192	4.8

주: 1) CIGNA & CMB가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의미함.

2) CIGNA & CMB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차지하는 순위를 의미함.

자료: 『중국보험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정리함.

■ CIGNA & CMB Life의 중국측 주주 선정, 보험 인재 확보 및 회사 인지도 제고 등의 경영전략에 대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CIGNA & CMB Life는 경영권의 독립성과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중국 금융기관과 외국 보험회사가 짝을 이룬 합자법인임.

- 중국측 주주(CMC, CMB)는 보험권과 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이지만 합자회사에 대해 50%의 지분만 소유할 뿐 회사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CIGNA는 경영에 자율권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중국측 주주(CMC, CMB)의 모회사인 CMG(중국초상국그룹)가 금융, 교통운송, 부동산 분야에서 회사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CIGNA & CMB Life의 회사 인지도 제고에 도움을 받았음.
- CIGNA & CMB Life는 미국시장으로부터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 중국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중국 보험소비자에게 전문적 이미지를 구축함.
- CIGNA & CMB Life의 모회사인 미국 CIGNA는 미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선진 시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 CIGNA & CMB Life는 회사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사의 발전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이미지를 구축해왔음.
- CIGNA & CMB Life는 영업지역을 중심으로 공익사업,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CIRC의 보험산업 연구 사업을 후원하였으며 보험산업 관련 포럼을 주최하기도 함.
- 또한 중국에 인기가 많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Weibo)를 통해 약 150만 명 팔로워(Follower)에게 회사 인지도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CIGNA & CMB Life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대학교와 중국 언론인 '21세기 경제보도'가 중국시장 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 중국 언론인 '재산주간'이 평가하는 10대 최고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로 지목된 바 있음.

■ 또한 CIGNA & CMB Life의 영업 지역 선정, 판매채널과 보험상품 선택에 대해 분석했는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CIGNA & CMB Life의 영업 지역은 2004년까지 광둥 선전에 국한됐지만 2005년부터 경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장쑤, 후베이, 쓰촨, 광둥, 랴오닝, 산둥, 칭다오, 쑤시까지 확대됨.

- CIGNA & CMB Life는 최초로 설계사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 위주의 채널을 운용했으며 중국측 주주인 CMB의 은행 지점이 많은 장점을 이용하여 은행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함.
 - 중국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문제 및 보험 인재 부족에 따른 높은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 CIGNA & CMB Life는 전화 채널을 통한 판매채널 전략을 중요시 함.
 - 현재 CIGNA & CMB Life는 전화, 인터넷, 은행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CIGNA & CMB Life는 기존 단체보험 위주의 중국시장에서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킴.
 - CIGNA & CMB Life는 중국측 주주인 CMC와 CMB의 모회사인 CMG가 중국 감독당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합자회사보다 신상품 판매에 대한 허가를 먼저 받음으로써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려왔음.
 - 현재 CIGNA & CMB Life는 중국 가족의 보험 수요를 파악하고 의료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을 패키지로 하여 판매하고 있음.

4. 시사점

■ 2008~2013년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했으나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가 한국과 비교할 때 낮은데, 이는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큼을 의미함.

○ 2013년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가 2008년 6,658억 위안에서 9,425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전 세계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2008년 3.8%에서 5.8%로 상승함.

○ 그러나 2013년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밀도는 110달러이고, 보험침투도는 1.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과 비교할 때 보험밀도가 약 6.1%, 보험침투도가 약 21.3%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임.

■ 중국 생명보험시장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외국 생명보험회사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싶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고려해야 하는 중점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광둥, 장쑤, 산둥, 허난, 베이징, 쓰촨, 저장, 허베이, 상하이, 후베이 등 상위 10개 지역은 수입보험료가 약 6,068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에서 64.4%를 점유함.

○ 또한 2008~2013년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 허베이와 상하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생명보험시장 발전 속도가 전국 평균 속도보다 높게 나타남.

○ 중국 생명보험회사는 각 지역마다 허가받고 지사를 설립해야 영업을 할 수 있어 시장규모가 큰 상위 10개 지역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임.

■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를 종목별로 살펴본 결과, 배당형 상품은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갖는 주력상품이며, 다음으로는 보통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배당형 상품 수입보험료는 8,203억 위안으로 전체 생명보험(9,525억 위안)에서 86.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보통형 상품(1,206억 위안, 12.7%), 유니버설 상품(109억 위안, 1.1%) 및 투자연계형 상품(6억 위안, 0.1%)의 순으로 조사됨.

○ 한편,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은 중국 보험소비자의 수요 증가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 2013년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1,124억 위안, 461억 위안으로 생명보험(9,425억 위안)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2008~2013년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의 CAGR은 생명보험(7.2%)보다 각각 6.8%p, 10.5%p 높은 14.0%, 17.7%로 나타남.

■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를 판매채널별로 분석한 결과, 설계사와 은행 채널은 절대적 시장지위를 갖는 주요 판매채널이며, 다음으로 직접 판매채널, 겸업대리점, 전업대리점, 중개인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설계사와 은행 채널 수입보험료는 각각 5,496억 위안, 3,940억 위안으로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1.2%, 36.7%로 나타남.

○ 2013년 직접 판매채널 수입보험료는 1,027억 위안으로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를 기록했으며 직접 판매채널 중 전화와 인터넷 채널은 급성장하고 있음.

- 2013년 직접 판매채널 중 전화와 인터넷 채널 수입보험료는 각각 108억 위안, 29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5.8%, 174.0% 증가함.

■ 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2001년부터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나 법적 장벽 존재, 보험 인재 부족 및 낮은 회사 인지도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

○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생명보험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했으며 이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본격화됨.

○ 그러나 2004년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로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입 형태는 합자법인(최대 지분 50%)으로 제한되어 있음.

- 중국측 주주가 회사 운영에 관여할 경우 외국측 주주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중국 생명보험시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중국의 보험 인재 공급이 보험시장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경쟁 열위에 있음.

-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적잖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관리급 직원이나 설계사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한 후 중국계 생명보험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 2013년 말까지 중국시장 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6%로 한국시장 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16.9%)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중국시장에서 성공한 CIGNA & CMB Life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이 도출됨.

- 첫째, 합자법인은 중국측 주주를 선정할 때 경영권 독립성 확보 및 시너지 효과 창출에 유의해야 함.
- 둘째, 합자법인은 중국시장에서 영업 활동 외에도 영업 지역을 대상으로 회사 인지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셋째, 합자법인은 보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급 직원의 충성도 및 설계사의 정착률 제고에 힘을 쓸 필요가 있음.
- 넷째, 합자법인은 영업 지역 선정, 보험상품과 판매채널 전략 수립을 추진할 때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조혜원, 이정환(2004), 「중국 보험시장 현황 및 외국계 보험회사 진출사례」.
- 李大豐(2007), 「중국 생명보험시장 지역제한 철폐에 따른 국내 생명보험사 진출 전략」.
- 이소양(2014), 「외국계 보험회사 중국시장 진출성과와 시사점」.
- 채원영(2014), 「중국 온라인 보험 판매 현황과 시사점」.
-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호.
- 자본시장연구원, 『중국금융시장포커스』, 각호.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 中國保險年鑒, 각 연도.
- 孫祁祥(1999), 『論我國壽險業發展戰略的重新定位』.
- 向貴朗(2008), 『論我國壽險業發展前景』.
- 王緒瑾, 席友(2011), 『中國壽險市場現狀, 矛盾和對策』.
- 魏華林, 黃餘莉(2012), 『我國壽險營銷方式轉變研究』.
- 冀雪蓉(2013), 『中外資保險公司面臨的法律制度差異』.
- 中國保險協會(2014), 『互聯網保險行業發展報告』.
- Ernst&Young(2014), "Future Directions for Foreign Insurance Companies in China".
- Swiss Re, Sigma, 각 연도.
- CIRC(<http://www.circ.gov.cn>)
- NBS(<http://www.stats.gov.cn>)
- 허선(和讯) 보험데이터(<http://insurance.money.hexun.com/bfsj/industryData.aspx>)

부 록 I. 통계표

〈부록 표 I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2.7	3.2	3.5	3.9	3.4	3.3	2.7	2.5
경상수지	22,347	22,250	23,936	15,186	24,240	22,566	27,228	23,455
수출	141,156	136,791	146,367	137,536	145,672	141,759	147,697	133,455
수입	126,758	126,034	133,062	132,366	130,957	132,840	129,351	111,795
실업률	3.1	3.0	2.8	4.0	3.7	3.3	3.2	4.1
금리	국고채(3년)	2.67	2.92	2.90	2.87	2.82	2.50	2.17
	회사채(3년)	3.04	3.33	3.33	3.30	3.25	2.89	2.51
소비자물가지수	107.41	107.87	107.84	108.76	109.13	109.36	108.90	109.37
환율	원/달러	1,122.15	1,112.18	1,062.10	1,069.01	1,030.38	1,025.76	1,086.72
	원/엔화	1,137.42	1,124.22	1,058.26	1,039.62	1,008.72	988.33	949.95
KOSPI	1,932.58	1,917.71	2,009.31	1,946.13	1,993.47	2,041.86	1,948.13	1,964.87
외환보유고	326,440	336,922	346,460	354,341	366,546	364,407	363,593	362,750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I-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2/4	3/4	4/4	1/4	2/4	3/4	4/4	1/4	2/4
보험 ¹⁾	139,623	138,497	167,547	133,551	145,570	135,769	196,083	139,618	-
- 생보	109,365	108,554	135,447	101,936	110,963	104,478	165,865	104,840	-
수입보험료	245,003	240,001	287,363	257,467	264,960	255,554	327,771	273,358	-
지급보험금	135,639	131,447	151,916	155,531	153,998	151,076	161,906	168,518	-
- 손보	30,258	29,943	32,100	31,615	34,607	31,291	30,218	34,778	-
원수보험료	173,584	171,156	192,84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193,204	-
원수손해액	143,326	141,213	160,742	151,466	145,610	147,732	193,215	158,425	-
은행	182,746	-31,782	229,979	272,496	250,005	76,442	391,862	138,338	370,258
- 일반 ²⁾	147,443	-40,955	128,580	199,612	231,527	32,411	314,189	28,931	327,515
- 신탁	35,303	9,173	101,399	72,884	18,478	44,031	77,673	109,407	42,743
증권 ³⁾	9,232	-5,597	-47,513	6,904	19,088	53,478	-6,648	65,495	55,742
자산운용 ⁴⁾	44,093	-9,264	-41,835	96,918	16,946	196,161	160,044	278,994	163,004
종금 ⁵⁾	-11,420	1,082	2,444	8,863	2,733	826	3,420	- 6,816	8,403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I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생존	보험료	53,996	55,496	162,636	58,006	60,647	58,776	62,910	240,340	62,882
	증가율	-39.6	-39.2	-32.0	-40.6	14.1	8.9	13.4	-7.6	8.4
	구성비	22.5	19.3	21.1	22.5	22.9	23.0	19.2	21.7	23.0
사망	보험료	79,458	80,289	238,660	81,286	82,133	83,131	85,238	331,788	89,041
	증가율	4.1	4.0	3.8	3.6	4.1	4.6	6.2	4.6	9.5
	구성비	33.1	27.9	30.9	31.6	31.0	32.5	26.0	30.0	32.6
생사 혼합	보험료	46,222	45,910	139,738	50,697	51,639	49,171	49,038	200,544	51,932
	증가율	-15.4	-13.2	-9.0	-25.5	8.5	6.4	6.8	-3.5	2.4
	구성비	19.3	16.0	18.1	19.7	19.5	19.2	15.0	18.1	19.0
변액 보험	보험료	51,368	51,498	155,443	51,884	51,246	51,622	51,957	206,709	51,122
	증가율	-0.8	-2.5	-0.9	-6.2	-2.5	0.5	0.9	-1.9	-1.5
	구성비	21.4	17.9	20.1	20.2	19.3	20.2	15.9	18.7	18.7
개인계	보험료	231,044	233,194	696,477	241,873	245,665	242,701	249,143	979,382	254,977
	증가율	-15.1	-15.0	-10.6	-19.2	5.8	5.0	6.8	-1.7	5.4
	구성비	96.3	81.1	90.2	93.9	92.7	95.0	76.0	88.6	93.3
단체	보험료	8,957	54,169	75,891	15,594	19,295	12,853	78,629	126,371	18,381
	증가율	-2.4	38.6	25.7	13.2	51.2	43.5	45.2	45.8	17.9
	구성비	3.7	18.9	9.8	6.1	7.3	5.0	24.0	11.4	6.7
합계	보험료	240,001	287,363	772,367	257,467	264,960	255,554	327,771	1,105,753	273,358
	증가율	-14.7	-8.3	-8.0	-17.8	8.1	6.5	14.1	1.9	6.2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도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FY2013은 2013년 4~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수치와 비교함.

5)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1),2),3)}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⁴⁾	1/4	2/4	3/4	4/4	연간 ⁵⁾	1/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26,434	29,850	82,379	30,778	30,000	31,034	33,554	125,365	33,783
	증가율	-1.7	3.0	1.0	7.4	15.0	17.4	12.4	12.9	9.8
	지급률	49.0	53.8	50.7	53.1	49.5	52.8	53.3	52.2	53.7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2,859	44,217	129,944	45,364	41,527	42,686	43,569	173,147	44,961
	증가율	-1.3	4.6	1.7	-1.3	-3.1	-0.4	-1.5	-1.6	-0.9
	지급률	53.9	55.1	54.4	55.8	50.6	51.3	51.1	52.2	50.5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25,171	27,710	80,527	32,856	30,000	29,169	28,512	120,537	32,693
	증가율	4.7	19.6	4.1	18.9	8.5	15.9	2.9	11.4	-0.5
	지급률	54.5	60.4	57.6	64.8	58.1	59.3	58.1	60.1	63.0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28,021	32,989	87,188	28,805	32,993	33,595	29,620	125,012	33,278
	증가율	-6.0	6.8	-1.5	-5.0	26.0	19.9	-10.2	6.4	15.5
	지급률	54.6	64.1	56.1	55.5	64.4	65.1	57.0	60.5	65.1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22,485	134,766	380,038	137,803	134,520	136,484	135,255	544,062	144,715
	증가율	-1.4	7.5	1.3	4.0	9.6	11.4	0.4	6.1	5.0
	지급률	53.0	57.8	54.6	57.0	54.8	56.2	54.3	55.6	56.8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8,963	17,151	38,964	17,728	19,478	14,592	26,651	78,449	23,803
	증가율	-23.5	-5.1	-10.6	21.8	51.6	62.8	55.4	46.6	34.3
	지급률	100.1	31.7	51.3	113.7	100.9	113.5	33.9	62.1	129.5
전체	지급보험금	131,447	151,916	419,002	155,531	153,998	151,076	161,906	622,511	168,518
	증가율	-3.3	5.9	0.0	5.7	13.5	14.9	6.6	10.0	8.4
	지급률	54.8	52.9	54.2	60.4	58.1	59.1	49.4	56.3	61.6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4)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2014년 연간치 증가율은 2013년 1~12월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1),2),3),4)}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2/3	3/3	연간 ⁶⁾	1/4	2/4	3/4	4/4	연간 ⁷⁾	1/4
생존 보험	사업비	7,929	8,742	24,530	7,572	8,116	7,566	8,482	31,737	7,907
	증가율	-20.5	-13.9	-16.0	-27.2	3.3	-4.6	-3.0	-9.1	4.4
	사업비율	14.7	15.8	15.1	13.1	13.4	12.9	13.5	13.2	12.6
사망 보험	사업비	23,723	25,309	72,174	23,332	25,941	24,297	27,531	101,100	25,238
	증가율	4.8	7.1	6.5	-7.7	12.1	2.4	8.8	3.7	8.2
	사업비율	29.9	31.5	30.2	28.7	31.6	29.2	32.3	30.5	28.3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4,529	4,908	14,148	4,378	4,505	4,400	4,548	17,830	4,102
	증가율	-20.2	-19.6	-20.3	-26.4	-4.4	-2.9	-7.3	-11.3	-6.3
	사업비율	9.8	10.7	10.1	8.6	8.7	8.9	9.3	8.9	7.9
개인 보험계	사업비	36,181	38,958	110,852	35,282	38,562	36,263	40,560	150,667	37,247
	증가율	-5.4	-2.3	-3.4	-15.2	8.0	0.2	4.1	-1.2	5.6
	사업비율	15.7	16.7	15.9	14.6	15.7	14.9	16.3	15.4	14.6
단체 보험계	사업비	1,083	1,334	3,422	1,059	1,267	994	1,127	4,447	986
	증가율	-10.8	17.4	-1.3	-13.3	26.1	-8.1	-15.5	-4.2	-6.8
	사업비율	12.1	2.5	4.5	6.8	6.6	7.7	1.4	3.5	5.4
전체	사업비	37,263	40,292	114,274	36,341	39,830	37,257	41,687	155,115	38,234
	증가율	-5.6	-1.8	-3.3	-15.2	8.5	0.0	3.5	-1.3	5.2
	사업비율	15.5	14.0	14.8	14.1	15.0	14.6	12.7	14.0	14.0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에 포함된 실적임.

4)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6) FY2013은 2013년 4~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7) 2014년 연간치 증가율은 2013년 1~12월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3		2014					2015
		3/3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⁴⁾	1/4
화재	보험료	923	2,413	759	739	703	905	3,106	728
	증가율	-2.4	-2.9	-6.1	-2.1	-4.3	-1.9	-3.6	-4.0
	구성비	0.5	0.4	0.4	0.4	0.4	0.4	0.4	0.4
해상	보험료	1,638	6,016	1,747	1,927	1,839	1,830	7,343	1,880
	증가율	-24.3	-10.7	17.0	-9.2	-18.5	11.7	-2.2	7.6
	구성비	0.8	1.1	1.0	1.1	1.0	0.8	1.0	1.0
자동차	보험료	32,907	97,435	32,377	33,665	34,259	35,183	135,484	35,298
	증가율	2.0	0.4	3.2	4.1	6.4	6.9	5.2	9.0
	구성비	17.1	18.1	17.7	19.1	19.1	15.7	17.7	18.3
보증	보험료	3,976	11,238	3,842	3,651	3,611	4,048	15,152	3,898
	증가율	1.6	-4.8	-4.3	-3.9	4.3	1.8	-0.6	1.5
	구성비	2.1	2.1	2.1	2.1	2.0	1.8	2.0	2.0
특종 ²⁾	보험료	12,435	37,172	12,566	13,099	11,533	12,793	49,991	13,347
	증가율	3.1	2.4	2.6	0.3	-1.2	2.9	1.2	6.2
	구성비	6.4	6.9	6.9	7.3	6.4	5.7	6.5	6.9
해외 원보험	보험료	1,762	4,840	1,376	1,455	1,442	1,559	5,832	1,217
	증가율	34.0	40.0	-3.0	4.7	-14.6	-11.5	-6.8	-11.5
	구성비	0.9	0.9	0.8	0.8	0.8	0.7	0.8	0.6
장기 손해	보험료	106,187	315,478	110,858	109,526	111,241	112,412	444,037	116,499
	증가율	6.4	5.6	7.5	6.1	4.9	5.9	6.1	5.1
	구성비	55.1	58.7	60.6	60.8	62.1	50.3	58.0	60.3
개인 연금	보험료	10,633	31,829	10,349	10,247	10,200	10,295	41,090	10,066
	증가율	-0.7	3.1	-2.6	-3.5	-3.5	-3.2	-3.2	-2.7
	구성비	5.5	5.9	5.7	5.7	5.7	4.6	5.4	5.2
퇴직 연금	보험료	22,374	31,152	9,209	5,905	4,195	44,408	63,718	10,270
	증가율	28.1	9.8	106.1	-5.5	66.0	98.5	78.9	11.5
	구성비	11.6	5.8	5.0	3.3	2.3	19.9	8.3	5.3
계	보험료	192,842	537,58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765,754	193,204
	증가율	6.8	4.2	8.0	3.8	4.6	15.9	8.3	5.5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3) FY2013은 2013년 13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1),2),3)}

(단위: %)

구분		FY2013	2014				2015
		3/3	1/4	2/4	3/4	4/4	1/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4.0	73.2	50.2	53.4	45.4	66.6
	사업비율	50.5	50.0	43.7	48.1	44.3	55.1
	합산비율	94.5	123.2	93.9	101.5	89.7	121.7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67.5	89.5	18.5	44.3	85.4	55.1
	사업비율	55.4	36.3	27.1	36.8	45.5	25.1
	합산비율	122.8	125.8	45.6	81.1	130.9	80.1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5.8	72.5	7.4	70.8	41.6	81.5
	사업비율	34.4	13.1	15.1	11.0	20.0	38.3
	합산비율	80.2	85.6	22.5	81.8	61.5	119.8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6.1	69.2	71.0	67.7	66.5	65.1
	사업비율	20.9	19.6	16.9	19.7	19.4	21.5
	합산비율	87.0	88.8	87.9	87.4	85.9	86.6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116.9	64.6	89.4	98.1	124.7	84.2
	사업비율	43.0	42.1	49.7	40.7	62.2	52.3
	합산비율	159.9	106.7	139.1	138.8	186.9	136.5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52.8	72.9	45.1	67.1	83.2	50.2
	사업비율	30.1	29.4	28.1	27.6	29.3	30.2
	합산비율	82.9	102.3	73.2	94.8	112.5	80.5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90.3	84.0	84.4	89.3	95.5	85.6
	사업비율	22.5	20.8	19.8	19.4	19.4	19.7
	합산비율	112.8	104.8	104.2	108.7	114.9	105.3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4.0	85.1	84.4	85.2	86.1	86.0
	사업비율	18.4	18.0	17.9	18.0	18.5	18.2
	합산비율	102.4	103.1	102.3	103.2	104.7	104.1
전체	경과손해율	82.5	83.3	80.6	83.9	85.6	83.6
	사업비율	20.4	19.1	18.7	18.8	19.4	19.6
	합산비율	103.0	102.3	99.3	102.7	105.1	103.2

주: 1) 개인연금, 퇴직보험, 그리고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4)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금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부 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27호 (4. 6)	미국의 텔레매틱스 운전자성향보험(UBI) 시장 현황 (김진익) · 미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텔레매틱스 운전자성향보험은 리스크평가를 통해 개인별 할인 가격을 제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보험으로 빠른 확산이 전망되고 있음. · 한편 텔레매틱스 운전자성향보험의 확산에는 장치의 기술적인 문제, 특허권, 운전성향정보의 이전성 등이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텔레매틱스 운전자성향보험은 필연적으로 운전성향 빅데이터를 취급하게 됨으로써 정보 취합, 분석, 이용에 규제와 관련된 우려를 불러일으킴. (CIPR, Deloitte 등)
제327호 (4. 6)	2014년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영실적 현황과 전망 (이소양) · 2014년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영실적 발표 결과,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 손해보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생명보험 상위 4사는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중국태평양재산을 제외한 손해보험 상위 2사와 생명보험 상위 4사의 당기순이익은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투자수익 증가로 크게 증가하였음. · 향후 대형 보험회사들의 성장세는 보험산업 관련 규제개혁이 추진되면서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Sina Finance 등)
제327호 (4. 6)	일본 기업들의 고령화 대응방안 (김현경) · 일본 기업들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층을 타깃고객으로 한 신발제품을 출시하고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연화된 근무형태 도입 등을 통해 고령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정책 및 기업의 대응사례를 참고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Mckinsey 등)
제327호 (4. 6)	AIG의 인도네시아 타카풀 재보험 진출고려와 시사점 (오병국) · 글로벌 타카풀 시장에서 아세안 지역의 타카풀 시장은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를 가지고 있어 아세안 지역 타카풀 시장 점유율 1위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이러한 점에 주목해 최근 AIG는 향후 2년 안에 인도네시아 타카풀 재보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 중임. · 보험회사들은 타카풀 재보험 사업자의 증가가 타카풀 사업능력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면서도 자산운용 및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함. (Insurance Journal, Islamic Finance News, E&Y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28호 (4. 13)	A.M. Best의 미국 보험산업 설문 조사 결과와 시사점 (채원영) ·A.M. Best가 보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15년 미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25% 미만 수준에 머물고 보험산업 내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상당수 보험회사가 연간 목표 ROE를 상향조정하는 등 수익성 확대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M. Best 등)
제328호 (4. 13)	중남미 보험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이해랑) ·EY는 2015년 2월 중남미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보험사를 위하여 중남미 보험시장의 도전과제와 기회를 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표함. ·중남미 보험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보험사들은 특히 중남미 보험시장의 현황과 보험 관련 조세제도 및 규제 등의 주요 변화에 주목해야 함. ·국내 보험사들도 해외진출에 유리한 시장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며, 이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각국 시장의 현황 및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을 주시해야 함. (EY 등)
제329호 (4. 20)	ASEAN 경제공동체 출범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아름) ·ASEAN은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 형성, 경쟁력을 갖춘 경제권 구축, 균등한 경제발전, 세계경제와의 통합 등의 목표를 바탕으로 ASEAN 경제공동체(AEC)를 2015년 말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AEC 출범으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고용 등 역내 개방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받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임. (A.M. Best 등)
제329호 (4. 20)	보험산업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용 (최원) ·만성질환이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부각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음. ·보험산업에서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들은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특히,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와 관련한 기술의 발전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됨. (RGA 등)
제330호 (4. 27)	유럽 양적완화 정책이 생명보험회사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이소양) ·2015년 1월 22일 ECB(유럽중앙은행)는 디플레이션 및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함. ·그러나 2015년 4월 17일 IMF(국제통화기금)는 유럽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저금리로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운용에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며 보험회사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IMF는 유럽 회원국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대응전략을 점검하며 보험회사의 부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함. (IMF, KB경영연구소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30호 (4. 27)	일본 생명보험시장 변화와 보험회사 동향 (김진익) · 일본 생명보험시장은 인구고령화, 일인 가구 증가, 신판매채널 확대 등의 환경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와 같은 환경변화로 정기생명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 시장이 축소되고, 개인 개호보험(LTC), 개인의료보험과 장수리스크대비 저축성보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생명보험회사들은 국내 보험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높아진 자본축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 위험자산 투자, 기업 M&A, 보험료 인하 등을 통해 수익성 확대를 꾀하고 있음. (A.M. Best)
제330호 (4. 27)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 및 활성화 방안 (이성은) · IMF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이 시장 확대 가능성, 안정성, 중소기업 및 공공인프라 개발에 대한 자금조달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함. ·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는 일반금융과의 긴밀한 협력, 율법을 준수하는 금융정책 수단 및 관련 국제기준 개발, 글로벌한 조세협력 강화 등이 필요함. (IMF 등)
제331호 (5. 4)	영국의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과 전망 (이소양) · 영국 정부는 2009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업의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률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는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수준임. · 2015년 3월 영국 정부는 기업의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이버보험을 활성화할 것으로 표명함. · 영국 보험회사의 사이버보험 수입보험료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DBIS, HM Government, Marsh 등)
제331호 (5. 4)	일본 손해보험시장 변화와 보험회사 동향 (이해량) · 일본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과도한 요율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손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약 10년간 꾸준한 업계 재편이 이루어졌음. · 손해보험업계 재편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일본 손해보험산업의 성장 기회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시장진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최근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 보험업계 역시 다양한 규제변화를 겪고 있으며,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 손해보험업계의 규제변화에 대한 대응과 해외시장진출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M. Best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32호 (5. 11)	세계경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위기 가능성 (이아름) ·WSJ에 따르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자본, 노동력 등의 공급 과잉에 따른 디플레이션 위험으로 인해 각국 정책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비축량 증가와 달러화 강세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완제품 재고량도 큰 폭으로 늘어남. ·세계 주요국의 정책당국은 과잉 공급에 따른 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경제 전체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WSJ 등)
제332호 (5. 11)	중국 보험회사의 미국 부동산 투자 확대 (최원) ·보험료 기준 중국 상위 1~2위 보험회사인 China Life와 Ping An Life가 미국 부동산에 처음으로 투자를 결정함. ·최근 중국 보험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 보험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는 중국 보험회사의 자산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임. (WSJ 등)
제333호 (5. 18)	영국 브렉시트(Brexit) 우려와 해외 보험사업에 대한 영향 (김진익) ·영국 총선 결과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공약으로 내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탈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질 전망이다.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당장 2016년 1월에 시행되는 유럽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기준인 솔벤시 II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영국 보험산업의 영향력 감소가 전망됨.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논란은 직접적으로 EU시장 접근이 자유로웠던 영국 보험회사들의 영업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과정과 국민 투표 등의 과정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영국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A.M. Best, 연합뉴스 등)
제333호 (5. 18)	중국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과 시사점 (이아름)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사회 발전계획 8대 중점업무 수행을 위한 경제·사회발전 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체제 개혁안을 발표함. ·2015년 5월 발표된 중국의 의료체제 개혁안은 공공병원 약품가격 인하, 의료보험 보조금 인상, 의료 종사자 수 확충 및 인급 인상, 공공병원의 중국산 의료시설 우선 사용 권고, 약품가격 자유화 및 의료기관 감독 강화, 특수약품 공급보장 강화, 국민의료보험가입률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함. (중국 정부 홈페이지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34호 (5. 26)	금융기관 대형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해량) · IMF는 금융기관 대형화와 경제성장 및 금융 안정성이 지니는 관계를 살펴봄. · IMF는 각 나라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금융발전지수'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금융기관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오히려 국가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흥국 금융발전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금융 감독 당국은 향후 금융관련 규제 수립 시 국가의 경제 발전 및 금융발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IMF 등)
제334호 (5. 26)	중동지역 보험시장 M&A 특징 (채원영) · 중동지역 보험시장은 시장규모가 작고 주로 중소형 보험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쟁도가 높으며 효율 수준이 낮은 반면 사업비율이 높아 시장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며 보험산업 규제도 이를 유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동 보험시장 내에서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현지 회사들이 사업포트폴리오 확장과 주주 수익률 제고를 위해 M&A와 지분 매입 기회를 찾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시장 통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A.M. Best 등)
제335호 (6. 1)	최근 보험 산업의 M&A 동향과 특징 (김현경) · 보험 M&A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위축되었으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M&A 전략을 추구하면서 활발해지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구조조정 목적으로 손해보험회사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형화 전략으로 M&A를 추진하고 있음. · 과거 M&A시장을 주도하였던 북미 및 유럽시장의 M&A 거래는 감소한 반면 남미 또는 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M&A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향후 M&A 거래는 규제변화, 다양한 투자자의 M&A시장 참여, 신채널 수요, 보험회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Swiss RE, Willkie Farr & Gallagher LLP 등)
제335호 (6. 1)	2014년 미국 생명보험회사 투자 수익률 하락 (최원) · 2014년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은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2015년에도 저금리로 인해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이 투자수익률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위험 노출 정도가 크더라도 더욱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음. (A.M. Best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35호 (6. 1)	브라질 경제 현황과 시사점 (채원영) · 브라질 해알화 환율은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과 경기 후퇴, 소비자물가 상승과 정치적 불안 지속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브라질 경제 전망도 실물경제 위축과 긴축정책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국내에서 판매가 급증한 브라질 국채의 손실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IMF, 국제금융센터 등)
제336호 (6. 8)	글로벌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실태 최근 동향 (김진익) ·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규제개혁이 지속되면서 규제개혁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법의 제정과 실무 규정들이 마련되면서 금융기관의 관심과 대응도 고조되고 있음. ·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실무에 대한 조사 결과, 이전보다 리스크관리에 이사회의 경영역량이 집중되고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의 채용이 늘고 전사적위험관리(ERM)가 표준화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지금까지 규제당국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실무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함. (Deloitte University Press)
제336호 (6. 8)	중국 사적 건강보험 활성화 방안 발표와 시사점 (이소양) · 최근 중국은 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사적 건강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중국 사적 건강보험은 생명보험 대비 시장규모가 작은 편이나 향후 의료비 지출 증가 및 세제혜택 제공에 힘입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사적 건강보험시장은 대형 보험회사 및 전문 건강보험회사에 지배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보험회사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CIRC 등)
제337호 (6. 15)	2015년 보험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이해량) · Swiss Re는 5월 20일 보험산업이 주목해야 할 21개의 리스크(emerging risks)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서 제시한 보험산업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리스크는 탈세계화, 각국의 대규모 통화 정책, 그리고 대재해, 사물인터넷의 발달, 예방적 차원의 보수유지, 유행성 질병 등임. · 보고서는 각 리스크에 대한 보험사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Swiss Re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37호 (6. 15)	미국의 온라인 채널 활용 조사 (이선주) · LIMRA(2015)가 발간한 미국 보험소비자들의 온라인 채널에 대한 세대별 활용도와 향후 활용의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보험(Life Insurance)의 온라인 채널 가입률은 베이비붐세대가 X세대와 Y세대에 비해 낮지만 X세대와 Y세대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오프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대면을 통한 정보 획득과 자문에 대한 수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향후 온라인 활용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활용 비중과 미래의 활용 의향에 큰 차이가 없어 온라인 채널의 지속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전망함. · LIMRA는 온라인 채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환경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전략을 제시함. (LIMRA)
제337호 (6. 15)	인도 은행산업 재편의 원인과 전망 (채원영) · 인도 은행산업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은행이 부실채권 증가 및 자본 확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도정부의 “포괄적 금융지원 계획” 등에 따른 은행 서비스 수요 증가로 민영은행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인도 은행산업 재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WSJ, FT, 국제금융센터 등)
제338호 (6. 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보험시장 현황 분석 (최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 보험시장이, 신흥국의 경우 중국, 브라질, 러시아 보험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보험료 증가율과 보험침투도를 보임. · 선진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맞춤형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보험회사들은 투자수익률 제고와 비용 절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신흥국의 경우 보험이해도가 높지 않은 만큼 접근성이 높은 단순한 구조의 보험상품과 방카슈랑스 채널이 부각되고 있음. (timetric 등)
제338호 (6. 22)	평판리스크 증대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이아름) · 최근 Munich Re는 기업과 개인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정보유출, 신분도용 등 사이버리스크로 인해 여러 기업들의 평판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함. · 대형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이버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은 체계적인 사이버보험 상품 설계와 증대되고 있는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평판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해사정, 언더라이팅, 가격측정 등의 역량 구축이 필요할 것임. (뮌헨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39호 (6. 29)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의 최신 동향 (이소양) ·글로벌 보험중개기업인 Marsh에 따르면 2014년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은 사이버 리스크 증대로 인한 미국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증가하면서 크게 성장함. ·미국 의료기관의 경우 취약한 사이버 보안 수준으로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호텔과 도박 기업은 경제적 손실 우려로 사이버보험의 가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사이버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지만 미국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사이버보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Marsh, Allianz, Advisen 등)
제339호 (6. 29)	아시아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감독당국의 대응 (김진익)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보험시장은 경제발전과 지역적 특수성 및 글로벌화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아시아 보험감독당국들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국 보험시장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아시아 각국이 자국 보험시장의 리스크속성을 반영하여 건전성감독체계를 개발하고 자국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이는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RBC모델개발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The Geneva Association, A.M. Best)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조재린, 이경아 2015.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조재린,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황진태, 이선주 2015.3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원,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정원석,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박춘원,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김미화 2015.5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7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류건식,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5년 여름호 (통권 74호)

발행일	2015년 7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5년 4월 30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19)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3, 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